

Donghak Peasant Revolution Symposium



학 | 술 | 대 | 회

# 동학농민혁명 성격규명과 기념사업

2011.11.18(금) 10:00~17:20  
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소회의실)

주관 전북사학회  
공동주최 정읍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시발통문

통문에 고부농민봉기를 계획하고 뜻을 함께한 동지들의 이름을 써 넣었다. 서발 주위에 '동그랗게 배열해 넣어 주모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고,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통문이다.

Donghak Peasant Revolution Symposium



학 | 술 | 대 | 회

# 동학농민혁명 성격규명과 기념사업

주관 전북사학회

공동주최 정읍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행 사 일 정

- 일시 : 2011년 11월 18일(금) 10:00 ~ 17:20
- 장소 : 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소회의실)

사회 : 홍성덕(전주대)

식전행사 10:00 ~ 10:30  
등록 및 접수, 개회사, 환영사, 축사

### I부 .....

주제발표 10:30 ~ 11:00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언/임형진(고려대)  
11:00 ~ 11:30 프랑스혁명과 기념일/이용재(전북대)  
11:30 ~ 12:00 독일농민전쟁과 기념사업/비온티노(서울대)

중 식 12:00 ~ 13:30

기념공연 13:30 ~ 14:10 판소리(뮤지컬 천명 중에서)/왕기석(국립창극단)

사회 : 변주승(전주대)

### II부 .....

주제발표 14:10 ~ 14:40 1984년 농민전쟁과 '고부기포'/김인걸(서울대)  
14:40 ~ 15:10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배항섭(성균관대)  
15:10 ~ 15:40 백산대회 성격과 역사적 의의/박준성(역사문제연구소)  
15:40 ~ 16:10 황토현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조광환(계승사업회)

휴 식 16:10 ~ 16:30

### III부 .....

주제발표 16:30 ~ 17:10 동학농민군의 격문 분석/성주현(경기대)  
17:10 ~ 17:40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강효숙(원광대)

주제논평 17:40 ~ 18:00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일 제정 논평/조 광(고려대)  
정만조(국민대)



## 차 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언 / 임형진(고려대) .....	9
프랑스혁명과 기념일 / 이용재(전북대) .....	23
독일농민전쟁과 기념사업 / 비온티노(서울대) .....	37
1984년 농민전쟁과 ‘고부기포’ / 김인걸(서울대) .....	49
동학농민혁명에서 茂長起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 배항섭(성균관대) .....	63
황토현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 조광환(계승사업회) .....	83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 / 성주현(경기대) .....	107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 강효숙(원광대) .....	123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언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언

임 형 진 | 고려대학교

- 
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2.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의 역사와 현재
  3. 무장기포일과 황토현전승일의 쟁점
  4. 다른 기념일들의 추천과 주장
  5. 추천 기념일의 문제점과 한계
  6.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기준점
- 

## 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동학혁명이 발생한 지 110여 년 만인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고 비로소 동학혁명의 참여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신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관련 유족들은 물론 지자체의 노력과 천도교 교단 등 관련 단체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별법을 통하여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게 과거의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내내 중첩되었던 사회모순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일어난 인간주체의 선언이자 인간해방의 저항으로 이전까지 농민운동의 총결산이었다. 그것은 개항 이후 심화되는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대하여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농민운동의 효시요, 비

로소 우리 역사는 전근대를 마감하고 근대사회를 열어간 한국 근대 민중민족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 부정한 사회에 대한 거부이고 무차별적인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각성을 바탕으로 한 저항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비로소 근대적 자각을 이룬 인간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축하해야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은 혁명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각 시기별 동학교단의 참여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1차 동학농민혁명에서의 교단의 참여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소위 남북점의 갈등과 같은 문제의 진위도 가려야 한다. 나아가 교도들의 참여와 희생자들의 면면을 최대한 밝혀나가야 한다. 적어도 수십만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의 희생자들은 전사, 행방불명 등으로 고향에서 지워졌거나 쫓겨나야 했다. 살아남은 자들도 오랜 기간을 모진 박해와 압박 속에서 스스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야 했다. 스스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알지 못한 채 보내야 했다. 특별법은 이러한 억울한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것이다.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국가기념일의 제정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기념일을 통해 후손들이 그날을 기리고 고혼들의 넋을 달래주며 혁명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분들을 위무하고 선양할 임무는 전국적 차원의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그 절정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제정은 동학혁명의 의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놓고 전개되는 학문적 대립은 물론 관련 지자체들 간의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념일 제정의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학문적 입장으로만 대변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국가기념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념일이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하는 기념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의 기념일로 전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념일 제정에는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공평무사한 택일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렇게 선택된 일자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비로소 공인된 국가기념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논의 수준은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의 국가 기념일 제정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정해지지 못한 수준에 있다. 즉, 기념일 제정의 기준점을 농민혁명의 시작점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농민혁명의 전승일에 두어야 할지, 또는 특정한 상징물을 염두에 둔 상징성에 뒤야 할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진정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둘 것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준점 설정에는 그 기념일이 갖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전국성(대중성)과 현재의 의미를 주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의 역사와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은 이미 일제하인 1926년 4월 7일 천도교청년당에 의해 거행된 바 있었다. 당시 어떤 형식으로 기념식이 거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제하에서 최초로 거행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당시의 청년당에서 잡은 4월 7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음력을 폐지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은 바로 황토현전승일(음력 4월 7일)이 아닐까 싶다. 이는 천도교의 창도일이 원래는 음력 4월 5일인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4월 5일을 창도일로 삼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해방 후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도 천도교 청우당(청년당의 후신) 주최로 열렸다. 1947년 2월 9일이었다. 이날 천도교 측의 우파인 최동오와 사회주의 계열의 홍남표, 허헌, 여운형, 인정식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 화합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였다. 그런데 일자가 2월 9일은 음력으로는 1월 19일이고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1일이 된다. 1월 19일이나 2월 9일, 3월 1일이 모두 동학농민혁명과는 무관한 날이다. 아마도 당시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료적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천도교단이 오늘까지 치르고 있는 3월 21일이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로 정해진 것은 1961년이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식이 거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4·19혁명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당시 천도교단은 동학농민혁명을 '우리 민족사와 동양 역사상 가장 빛나는 민중혁명의 효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시발점'으로 평가하며 사계의 권위자들과 논의 끝에 3월 21일로 확정된 것이다. 이들은 당시까지 나온 『동학란기록』 등을 참조해 동학혁명의 핵심 인물인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등이 호남의 동학 각 접에게 통문을 보내어 제폭구민, 보국안민으로 동학의 대도창명을 위하여 도인들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동학교주 해월 최시형의 탄신일인 3월 21일을 기하여 동학교인들을 고부 백산으로 집결, 동학교인을 '혁명군'으로 조직하고, '격문'을 발포한 날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산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로 확정된 것이다. 첫 기념식에는 민의원 의장이었던 곽상훈 씨가 와서 축사를 할 정도로 범 국가적 차원의 행사였다.

지역적 차원의 최초 행사는 1946년 10월 20일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 청우당 홍천지부 주최로 거행된 위령제로 이는 1894년 끝무렵인 10월 20일(음력 9월 18일) 2천여 명이 희생된 동학군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였다. 또한 군사정권의 암울한 시대였

던 1968년 제1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해 온 정읍시 주최의 황토현 축제는 금년 제44회를 맞이하고 있을 정도의 성대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정읍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진 황토현 축제는 현재 지역을 넘어선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별로는 소규모적인 축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활동하던 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서 만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학술대회와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 많은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주장과 문제제기 등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아 왔지만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관련 지자체들 간의 고장의 정체성과 관련된 경쟁으로 심화되면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재단이 작년 2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면서 재단은 기념일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이하 기념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규칙을 마련해 기념일위원회에서 위원 30인 이내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학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 관련 단체는 주로 지역에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온 단체들과 유족회 중심이었다.

서석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사)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족보존회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강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함평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혁명계승사업회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  
선산갑오동학농민전쟁기념사업회

25개 이르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학자 및 전문가들로 23명이었다. 동학혁명의 가장 큰 관련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천도교단을 대표하는 추천 인사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금년 5월부터 회의를 개최해 왔다.

기념일위원회 중심으로 추천된 전문가들은 두 번째 회의인 6월 18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념일을 근거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3명의 위원 중 16명이 제출했는데 결과는 무장기포일(3월 20일 이하 모두 음력) 8명, 고부봉기일(1월 10일) 2명, 황토현전승일(4월 7일) 2명, 우금치전투일(11월 9일) 2명, 전주성점령일(4월 27일)과 특별법 공포일(3월 5일)이 각기 1명씩이었다. 무장기포일에 8명의 전문가가 선택한 뜻밖의 결과로 백산기포일(3월 25일)이나 삼례기포일(9월 9일), 청산기포일(9월 18일) 등 역시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한명의 추천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동학혁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부민란, 전봉준, 조병갑, 황토현, 우금치 등이 거론되는데 비하여 전문가들은 무장기포일을 압도적으로 추천한 것이다. 이는 무장기포일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정서나 인식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 셈이다.

회의에서는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8월달 3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긍정적인 방안으로 회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의외로 거셌다. 그들은 무장기포일로 쏠린 기념일위원회의 결과를 불신하며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행태를 거론하는 등 나아가 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자 8월 27일 3차 회의에서는 파행을 거듭해 예정되었던 9~10월 개최의 4차 회의는 물론 기념일 제정 공청회까지는 열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재단이 계획한 금년 10월까지의 후보일 확정과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려던 구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원인은 재단의 준비 부족과 전략적 접근 실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재단은 사전에 기념일 제정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사전 준비 없이 그저 추천

단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나가자 이미 자신의 견해가 확고한 학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해준 셈이 되고 말았다.

또한 국가기념일 제정의 중복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커다란 실패 원인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기념일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지지했던 무장기포일(3월 20일)의 양력 일자는 4월 25일로 이날은 이미 ‘법의 날’로 국가기념일이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유성엽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질의 요청한 내용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의 날’은 우리나라의 법제사적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03년 2월 ‘법의 날’을 4월 2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독립된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되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가 개시된 날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함에 있어 ‘법의 날’ 기념일인 4월 25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5월 10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법무부 장관의 답변 요지)

법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의 날인 4월 25일로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한 날에 두 기념일이 겹치게 되면 기념일이 산만하고 위축되어 보일 뿐 아니라 한 날에 양쪽에서 기념일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수의 무장기포일을 주장하는 추천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회의에 임했다. 결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는 이렇게 파행만 거듭한 채 결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 3. 무장기포일과 황토현전승일의 쟁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무장기포일은 3월 20일로 고부에서의 봉기가 민란 수준이었으며 곧 실패하였고 전봉준이 당시 호남의 대접주였던 손화중을 끌어들임으로써 동학혁명이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특히 무장포고문을 발표함으로써 혁명의 대의를 표명했고 그것을 통해 동학교도나 농민군에 국한한 운동이 아닌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혁명이 단순한 일부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국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무장기포일은 혁명의 포부와 비전을 제시한 날로 그 의미가 동학혁명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무장기포일의 중요성은 학계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논증되어 왔었다. 그래서 그 실체의 명확성은 물론 포고문의 의의와 역할도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재단 역시 그동안의 토론회에서 무장기포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대중적 인식과는 별도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무장기포일이 동학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임을 들어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무장기포일에 가장 대립되는 날로 거론되는 일자가 4월 7일 황토현전승일이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부패·무능한 위정자에 항거하며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며, 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날로서 의미를 가진다. 전라감영군과 보부상의 연합부대 2,400명을 거의 전멸에 이르게 한 전과는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최대의 승전지이다. 이 승리에서 자신감을 얻은 동학농민군들은 전국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황토현전승지와 전승일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인 날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황토현전승일은 최초의 전투일이자 승전일로 역사적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지난 수년간 이날에 맞추어 선양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국민적 대중성과 현실성을 겸비했다고 주장한다. 황토현전승일이야말로 기념일 제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최초 전투일과 최대 승전일로서의 역사성을 가장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황토현전승일의 의의가 인정되었기에 황토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기념물 ‘갑오동학혁명탑’이 건립되었다. 당시 김상기 박사 등 학계의 전문가들이 황토현전승지를 지목했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전승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자리하고 있어 가히 동학농민혁명의 메카라는 점도 강조한다.

기념일 제정에 대립되는 두 일자가 더욱 첨예해진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학문적 견해 차이보다는 지자체 간의 갈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동학혁명과 관련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정읍시가 크게 반발하며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학계의 연구가 무장기포일에 치우침으로써 정읍시 입장에서는 갑자기 동학혁명에 관한 우월권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읍시는 더욱 공세적으로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과의 연관 유적지 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문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 대중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무장기포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과 현재의 무장인 고창군의 적극적인 학문적 배려 행위 등에 그 대두의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활동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유족회의 각종 대회에 고창군이 후원을 하고 뒤이은 유족회의 무장기포일 선호 역시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특정 지자체의 후원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해도 의심은 받을 수는 있다. 또한 그동안 유족회 집행부의 활동이 무장기포일에 치우친 행동

을 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있던 시절부터 금년의 44회에 이르기까지 황토 현축제를 치르고 있는 정읍시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될 정도이다.

#### 4. 다른 기념일들의 추천과 주장

동학혁명기념일에 있어서 무장기포나 황토현전승일 못지않게 중요한 날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일자가 고부봉기일(1월 10일)이다. 고부봉기일은 여전히 민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학혁명의 시발점임은 분명하다. 고부에서 시작된 혁명의 열기는 무장과 백산대회 등으로 이어졌고 그 지도부와 조직 등이 확대발전 되어 나갔다. 그러므로 고부에서의 항쟁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일이자 혁명의 성격을 드러낸 명확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또한 고부봉기는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지도부의 오랜 준비와 협의 끝에 시작된 것으로 단순한 민란의 성격을 넘어선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혁명 초기의 전봉준의 행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거사의 준비와 격문과 통문의 준비, 해월 최시형 등 동학 수뇌부와의 연락 그리고 고부를 넘어선 무장과 백산으로의 이동 등으로 확인되는바 분명한 혁명기념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부봉기의 의의는 역사성과 상징성, 대표성, 대중성 그리고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현재성까지를 담보하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4월 27일의 전주성 점령일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전주는 조선 왕실의 본향으로 조선사회 체제의 상징적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호남의 수부도시인데 그곳을 동학군이 점령한 날은 동학혁명의 실제적 측면에서나 상징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을 계기로 동학군은 단순한 민초들의 난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혁명이라는 대의를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주성 점령의 결과물인 집강소를 통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최초로 민이 모든 권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획기적인 사건이었기에 동학혁명기념일로서 다른 어느 날 못지않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월 9일의 공주 우금치전투일 역시 동학혁명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날이다. 동학군 최대의 패퇴지였던 우금치는 비록 패배되었지만 동학혁명을 미완의 혁명으로 명명한다면 그 혁명의 연장과 계속성을 위해서도 우금치전투일을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금치전투를 계기로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혁명은 통한의 막을 내렸고 이후 급격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다시는 역사의 치욕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금치전투일보다 더한 기념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학혁명이 지나칠 정

도로 호남지역에 국한시키는 것 보다는 그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우금치 전투일이 적일이라고 본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3월 8일의 금산기포일도 호남과는 별도로 독자적 차원에서 일어난 최초의 동학혁명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며 2차 기포의 시작인 9월 9일의 삼례기포와 9월 18일 해월신사에 의한 청산기포 역시 중요한 기념일 후보 일자들이다. 특히 청산기포는 해월신사의 기포령에 의한 남북접의 대동단결에 의한 총기포였으며 대일항전을 명백히 하고 있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총결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은 천도교단의 전위단체인 (사)동학민족통일회가 그동안 북한 청우당과 수차례에 걸쳐 남북합동기념식을 가져온 것도 향후의 남북합동대회를 생각한다면 중요한 일자로 거론될 수 있는 날이다.

## 5. 추천 기념일의 문제점과 한계

3월 25일의 백산기포 역시 매우 중요한 기념일 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날짜와 포고문과 4대 강령의 출처 문제 등으로 무장기포와 혼재되고 있어 기념일 추천으로는 거론되지를 못했다. 이처럼 동학혁명 기념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 일자들은 모두 일정 정도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는 아직도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와 규명작업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무장기포일 역시 그 전제인 고부봉기와 연관성이 해결되지 않았다. 즉, 과연 무장기포가 고부에서의 실패했다는 봉기와 무관한 독자적인 봉기였는가의 문제이다. 오히려 고부의 지도부가 그대로 연결되었고 포고문 등이 고부에서의 포고문과의 차별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장기포는 고부봉기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장기포는 고부로 가기 위한 첫 집결지의 의미가 크며 봉기일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산지역에서의 봉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장기포는 대중적 인지도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무장(고창)에는 전봉준의 원고향이라는 점(이것 역시 논란이 있다) 말고는 동학혁명을 연결시킬 상징적 아이콘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황토현전승일 역시 동학혁명의 의의를 승전일로 하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대혁명이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날로 기념일을 삼듯이 승전일을 기념일로 삼자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동학혁명의 의의를 단순히 관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기엔 동학혁명은 너무나 많은 의미와 사연을 가지고 있다. 전주성 점령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종결이 아닌 잠시의 휴식기나 다름없었다. 이는 혁명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 역시 국가기념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금치전투일 역시 남북접이

모두 모인 최대의 전투지였으며 그 패배의 의미가 각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이 전투로 인해 동학농민군의 급속한 종료와 함께 한 겨울에 대부대를 이끌고 고지를 공격한 지도부의 무능을 드러낸 전투라는 비난도 있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부봉기일 역시 문제는 많다. 최초의 혁명 시발이라는 의미는 명백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민란적 봉기인지 아니면 전봉준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혁명적 거사로 무엇보다도 교단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전개된 기포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최초로 사람들이 모이고 전봉준의 연설이 있었던 고부 말목장터의 장날은 1월 8일로 고증되고 있기에 과연 봉기일이 8일인지 10일인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패한 봉기로 그친다면 역시 국가기념일로 선정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봉기가 아닌 고부기포를 규명할 수 있다면 대중적 인식과 더불어 최적의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6.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기준점

오늘날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전술한대로 기념일 제정의 기준점이 없다는 데 있다. 즉, 국가기념일을 제정하는 데에 따른 기준을 어느 지점 또는 어느 가치에 더 두느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일을 기준점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전승일로 둘 것이냐, 패전일로 둘 것이냐의 문제와 상징성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일을 기준점으로 둔다면 단연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사이의 오랜 논쟁이 종식되어야 한다. 이때는 두 지역에서 나온 포고문의 성격과 지역성을 넘어선 봉기의 성격 등을 규명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승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의 기준점을 둔다면 황토현 전승일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봉준 장군이 동도대장의 깃발을 들고 각 지역의 부대가 연합한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치른 전투이자 최초의 승리를 거둔 의의를 높이 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패퇴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의 기준점을 둔다면 우금치전투일을 들 수 있다. 우금치전투는 비록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패퇴한 전투이지만 오히려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 할 의무가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의의가 더욱 살아나는 기념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기념일 제정의 절대성을 갖지 못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관은 물론 민과의 소통 속에서 대공정의 화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대중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 나름의 견해에 의하면 기념일 제정의 기준점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 사실(역사성)은 물론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전국성(대중성)과 현재의 의미를 주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역사성이란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최초의 동학농민혁명일은 언제인가를 확인하지는 것이며 최초의 기념일은 또 언제였는가 등을 확인해 논증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최초의 동학농민혁명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일제시대인 1926년에 거행되었던 천도교 청년당의 최초 기념식과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는 천도교단의 기념식 그리고 순수 민간차원에서 어느덧 44회까지 치러온 황토현 전승 기념축제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기념일의 상징성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국가 기념일에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 아이콘이 존재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하면 광주가 떠오르듯 모든 기념일에는 상징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전봉준, 조병갑, 고부관아, 사발통문, 만석보, 백산기포, 황토현, 전주성 점령, 집강소 설치, 우금치 전투 등 수 없이 많은 상징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아이콘을 찾아내어 기념일 제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표성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고부봉기,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황룡촌전투, 전주성 입성, 전주화약, 집강소 설치, 삼례기포, 청산기포, 우금치전투 등의 연속적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가장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성을 떨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역시 최초로 언급되는 고부봉기를 들 수도 있고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전투를 들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의 여부이다. 전국성은 곧 대중성을 의미하는데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일테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답사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현재성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현재적 입장에서 재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는 것이 아닌 오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한 작업이 어느 시점에서 또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내세웠던 자주, 민권, 평등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고 또 계승 발전될 수 있다는 당위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학계와 관련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모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생산적이고 앞으로의 창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

랄 뿐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계의 목소리가 다수결이나 대세론에 휩쓸릴 수 없고,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전국적인 여망을 벗어날 수 없으며, 관련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110여 년 전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을 계기로 학계는 연구 업적을 위한 기념일 제정이 아닌 보다 열린 사고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나갔으면 한다. 기념일 제정은 결코 학문적 연구 성과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금까지 확인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있었다면 이 역시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면 110여 년 전 선조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프랑스혁명 기념하기

- '7월 14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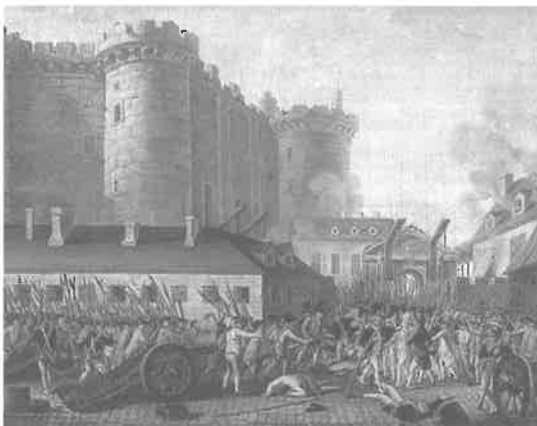


## 프랑스혁명 기념하기

- '7월 14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

이 용 재 | 전북대학교

- 
1. '혁명의 날'에서 '기념의 날'로
  2. 7월 14일 : 역사와 기념 사이
  3. '7월 14일'의 탄생
    - 1) 날짜들의 경쟁
    - 2) 7월 14일 : 두 겹의 날짜
  4. 7월 14일의 기억
- 



7월 14일  
그날, 이 땅에  
자유가 깨어났다.  
그리고 천둥처럼 웃었다.

민중은, 그날 분노했다.  
과거, 이 흉악한 도적이여  
파리는 사악한 바스티유의  
덜미를 잡았다.

빅토르 위고, 「숲에서 7월 14일을 기념함」

## 1. ‘혁명의 날’에서 ‘기념의 날’로

해마다 7월 14일이 되면 프랑스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삼색기가 휘날리고 라마르세예즈가 울려 퍼지면서 축제의 환희로 뒤덮인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벌어지는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로 막이 오르는 국경일 행사는 가든파티, 축제마당, 불꽃놀이 등으로 온종일 이어진다. 대다수 국가들이 ‘독립기념일’이나 ‘통일의 날’ 또는 ‘정부수립일’을 국경일(fête nationale, National Day)로 정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혁명의 날’을 공식 국경일로 삼았다. 1958년 제5공화국 이후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혁명에서 탄생한 ‘삼색기’를 국기로, ‘라마르세예즈’를 국가로, ‘자유·평등·우애’를 국시(國是)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혁명의 정신을 국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 7월 14일은 단순한 혁명 기념일 차원을 넘어 국경일로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7월 14일이 국가의 공식 국경일로 제정된 것은 프랑스혁명 발생 후 거의 한 세기가 경과할 무렵인 1880년이였다. 사실 오늘날 프랑스혁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7월 14일은 당시 10년에 걸쳐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혁명의 이정표가 되었던 여러 ‘혁명의 나날들(journées révolutionnaires)’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10년 동안 체제 변화와 혁명세력들의 부침이 거듭되면서 7월 14일은 다른 혁명적 사건들에 견주어 그 명암과 비중이 달라지곤 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일은 단순히 사건을 재현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기념 주체와 기념 대상 사이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는 일종의 권력게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19세기 상반기에 혁명과 반동을 거듭하는 격동의 정치 현장에서 7월 14일은 정권의 향배와 체제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때로는 부각되는 극절을 겪어야만 했다. 19세기 말, 공화주의 정신을 되살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한 제3공화국은 혁명의 나날들 중 하나를 택해 국경일로 삼고자 했다. 7월 14일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수많은 기념일들과 혁명의 대표성을 놓고 경합을 거친 이후였다. 국경일로 지정된 다음에도 7월 14일은 왕당파 등 보수 정파들이 벌이는 끝없는 ‘정체성 시비’에 시달렸다. ‘혁명의 날’로 시작한 7월 14일이 ‘기념일’을 거쳐 ‘국경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적어도 한 세기에 걸친 유위전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 2. 7월 14일 : 역사와 기념 사이

1789년 5월 4일 베르사유에서 삼신분회가 개최된 지 두 달여 지난 7월 14일에 성난 민중들

이 파리 한복판에 있는 바스티유(Bastille) 요새를 탈취했다. 7월 14일 사건은 프랑스혁명이 도화선이 된 최초의 ‘혁명의 날’이었다. 6월 20일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선포하고 새 헌법을 요구하자 루이 16세는 외국군을 불러들여 국민의회를 위협했다.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 대표를 지켜야 한다며 무장을 결의했다. 7월 14일 아침 600~1000여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바스티유 요새로 쳐들어간 것은 그곳에 무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바스티유 수비사령관 드로네(Bernard-René de Launay)는 60여 병력을 이끌고 요새를 지켰다. 일부 군중이 성벽을 넘어 요새 안뜰로 넘어오자 대포가 발사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오후 들어 정규군에서 이탈한 일부 병사들이 대포를 가지고 시민들을 지원하러 속속 도착한 반면, 상드마르스에 주둔해 있던 왕실 친위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5시경, 시민들과의 협상에 실패한 드로네 사령관이 항복을 선언하자 군중들이 요새 안뜰로 돌진했다. 이때까지 시민 95명과 수비대 1명이 사망했다. 체포된 드로네는 시청까지 끌려와 흥분한 군중들에게 처형당했다. 수비대 장교 3명과 배반 혐의로 체포된 파리참사회원 자크 드 플레셀(Jacques de Flesselles)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그날 밤 군중들은 드로네와 플레셀의 머리를 미늘창에 꽂아 팔레루아알 광장에서 바스티유 요새까지 행진한 후 밤새도록 춤을 추며 승리를 만끽했다.<sup>1)</sup>

바스티유가 민중의 폭력적 행동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었다. 파리의 사건이 전해지자 7월 내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습격과 방화가 들불처럼 번졌다. 프랑스 전역이 ‘대공포(Grande Peur)’에 휩싸이자 국민의회는 서둘러 8월 4일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8월 21일 인권선언을 반포했다. 혁명은 이렇게 폭력과 공포, 기쁨과 환희가 뒤섞이며 시작되었다. 이것이 훗날 구체제의 몰락과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혁명적 신화로 역사에 기록된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다.<sup>2)</sup>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7월 14일 사건의 상징성은 단 4일 후인 7월 18일에 샤를 빌레트(Ch. Villette)가 “우리의 부활의 신기원을 만든 날(7월 14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sup>3)</sup>라는 제안을 내놓을 정도로 뚜렷했다. 하지만 7월 14일은 혁명 기간에 발생한 여러 ‘혁명의 나날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방에서 반혁명 세력이 준동하고 인접국의 무력개입이 시작되자 혁명은 더

1) 윤선자, 『축제의 정치사』, 한길사, 2008, 28쪽.

2) 훗날 자유와 해방의 외침으로 신화화된 바스티유 습격 사건의 계기는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세 때 수도 방어용으로 세워진 거대한 요새인 바스티유는 점차 방어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루이 13세 때부터 단순한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죄수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부르주아 또는 왕정을 비판한 문필가들이었다. 7월 14일 바스티유를 습격한 군중들은 왕정을 비판하다 수감된 많은 정치사범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위폐범 4명, 정신병자 2명, 성폭력범 1명 등 잡범 7명만이 수감되어 있었다. 수비병도 요양 중인 상이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바스티유는 감옥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음산한 분위기로 인해 전제왕정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베르사유 궁에 머물던 루이 16세가 바스티유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에 잠에서 깬 때였다. 시종장 라로슈푸코(La Rochefoucauld) 공작의 보고를 들은 루이 16세는 “폭동(révolte)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라로슈푸코는 “폐하, 이것은 폭동이 아닙니다. 혁명(révolution)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G. Chaussinand-Nogaret, *La Bastille est prise*, Editions Complexe, 1988, p. 102.

3) “Révolution de 1789”, *Chronique de Paris*, 18 juillet 1789, in: Ch. Villette, *Lettres choisies sur les principaux événements de la Révolution*, Chez les Marchands de Nouveautés, 1792, p. 6.

욱 급진화되었다. 1792년 8월 10일 파리 군중의 킬리리 궁 습격 사건을 계기로 루이 16세가 폐위당하고 9월 22일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1793년 1월 23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Terreur)가 시작되었다. 혁명세력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 속에서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쿠데타에 의해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고 총재정부(Directoire) 체제가 뒤를 이었다. 10년 동안 이어진 혁명의 나날들은 1799년 11월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로 인해 겨우 막을 내렸다.

혁명 세력은 연이어 발생한 혁명적 사건들을 스스로 기념하면서 혁명의 정당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사실 프랑스 전래의 기념일들을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제정하지는 논의가 시작된 것도 프랑스혁명 당시부터였다. 바스티유가 함락된 7월 14일(1789년), 왕정이 폐지된 8월 10일(1792년), 공화정을 선포한 9월 22일(1792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몰락한 7월 27일(1794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혁명의 나날들이 혁명이 진행된 10년 동안 해마다 공식 국경일로 기념되었다. 1790년과 1792년 7월 14일에는 대연맹제가 개최되어 1789년 바스티유 함락 사건을 기념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는 민중의 혁명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유(Liberté)의 제전’(1792년 4월 15일)과 ‘이성(Raison)의 제전’(1793년 11월 10일)에서 ‘승리(Victoires)의 제전’(1793년 12월 30일)과 ‘최고 존재(Être sublime)의 제전’(1794년 6월 9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혁명 축제들을 조직했다. 혁명은 기념과 축제의 무대이기도 했으며, 7월 14일이 여느 혁명 축제일들을 앞서는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sup>4)</sup>

로베스피에르를 몰락시킨 온건 혁명세력이 권력을 잡은 총재정부 체제는 1795년 법령을 통해 공식 국경일을 7개로 재정비했다.<sup>5)</sup> 혁명 기념일 중에서 공화정 선포일(9월 22일)과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낸 테르미도르 쿠데타일(7월 27일)만이 국경일로 남았다. 혁명 퇴조기에 총재정부는 민중 폭력의 기억이 서린 7월 14일을 혁명의 성과에서 제외시키고자 한 것이다. 통령정부(Consulat) 시절에 7월 14일은 의미가 더욱 퇴색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은 한편으로 국민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한편으로 교황과의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 7월 14일 기념식을 ‘정교협약(Concordat)’과 ‘화해(Réconciliation)’의 축제로 바꾸었다. 군사 퍼레이드와 여흥이 이어지는 7월 14일은 더 이상 혁명의 축제가 아니었다.<sup>6)</sup>

혁명과 반동으로 점철된 19세기에 프랑스는 제정, 왕정, 공화정을 반복하는 끝없는 정치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새 체제는 자신의 정통성을 굳히는 방편으로 때로는 혁명의 기억을 되살리고 때로는 멀리하곤 했다. 따라서 7월 14일 바스티유 사건은 체제의 변화에 따라 명암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나폴레옹 제국(1804~1814)에서 축제와 기념일은 주로 제국의 영광을

4) M. Ozouf, *Fête révolutionnaire 1789-1799*, Gallomard/Folio, 1988, p. 273.

5) 총재정부가 제정한 7대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 공화정 선포일(9월 22일), 젊은이의 날(3월 30일), 부부의 날(4월 29일), 감사의 날(5월 29일), 농업의 날(6월 28일), 자유의 날(테르미도르 쿠데타일, 7월 27일), 노인의 날(8월 27일). 민중의 혁명 열기를 가라앉히고자 한 총재정부는 혁명 기념일보다 민간 기념일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6) J.-P. Bois, *Histoire des 14 Juillet 1789-1919*, Editions Ouest-France, 1991, p. 87.

선양하는 군사 페레이드로 장식되었다. 가톨릭 제의가 민간 제전을 대신하고, 축제는 혁명의 색채를 잃었다. 1806년 제국 칙령은 고대의 성인 나폴레옹(Saint Napoléon)의 축일인 8월 15일을 최고 국경일로 제정했다. 전설 속의 인물인 성인 나폴레옹의 축일을 자신의 생일인 8월 15일로 정함으로써 황제는 옛 성인을 내세워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혁명의 날 7월 14일은 제국의 날 8월 15일에 밀려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복귀한 부르봉 왕조(1815~1830)는 구체제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혁명의 자취를 지우고자 했다. 혁명의 깃발 삼색기는 왕조의 상징 백색기로 대체되었으며, 라마르세예즈는 금지곡이 되었다. 해마다 7월 14일에는 공식 기념제 대신 가톨릭 미사가 열렸다. 복고왕정은 해마다 8월 25일에 중세 프랑스를 빛낸 위대한 성왕 루이(Saint Louis)의 기념제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7월 15일의 기억을 지우고자 했다. 자유주의자나 공화주의자 등 복고왕정에 맞선 반대파들만이 은밀하게 7월 14일을 기념할 수 있었다.

1830년 7월 ‘영광의 사흘(27, 28, 29일)’ 동안 벌어진 시가전은 샤를 10세의 복고왕정을 타도하고 7월왕정(1830~1848)을 탄생시켰다. 7월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시민 왕’ 루이 필리프(Louis-Philippe)는 바스티유 광장 한복판에 7월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7월 기념탑(Colonne de Juillet)’을 세우고 여기에 1789년 7월 14일의 ‘위대한 국민적 승리’를 연결시켰다.<sup>7)</sup> 7월 14일의 기억은 복권되었으나, 해마다 열리는 ‘7월 축제’에서 기념된 것은 사실 14일이 아니라 7월왕정의 공식 국경일인 29일이었다. 프랑스혁명을 탄생시킨 7월 14일은 7월왕정을 탄생시킨 ‘7월의 나날들’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다. 1848년 2월혁명으로 이번에는 7월왕정이 붕괴되고 단명한 제2공화국(1848~1852)이 탄생했다. 제2공화국은 그해 7월 14일은 그냥 지나친 반면, 1792년에 제1공화국이 탄생한 날인 9월 22일에 맞추어 성대한 기념연회를 개최했다. 제2공화국의 공식 국경일은 1848년에 공화정을 선포한 날이자 1789년에 삼신분회가 개최된 날이기도 한 5월 4일이었다.

1851년 12월,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로 공화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루이 나폴레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제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제2제국을 열었다. 국민의 자유와 혁명의 열기를 압살한 제2제국은 제1제국의 판박이었다. 루이 나폴레옹은 옛 황제의 생일인 8월 15일을 다시 국경일로 제정했다. 혁명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7월 14일을 기념하는 일은 제국의 폭압에 맞서는 몇몇 공화주의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7월 14일/그날, 이 땅에/자유가 깨어났다./그리고 천둥처럼 웃었다.”<sup>8)</sup> 루이 나폴레옹의 폭정에 맞서 망명길에 오른 빅토르 위고가 쓴 「숲에서 7월 14일을 기념함」(1859)이라는 시는 7월 14일이 프랑스 안에서는 기념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제2제국은 곧 붕괴되고 제3공화국이

7) 모리스 아퀼롱, 『마리안느의 투쟁』, 전수연 옮김, 한길사, 2001, 116쪽.

8) V. Hugo, “Célébration du 14-Juillet dans la forêt”, *Les Chansons des rues et des bois*, Gallimard, 1982.

뒤를 이었다. 제3공화국은 향후 70여 년 동안 지속될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였다. 하지만 공화국 선포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군의 점령 아래 치러진 1871년 2월 총선에서 왕당파가 공화파를 누르고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왕당파 중심의 공화국은 파리의 노동자 봉기를 진압하는 한편, ‘도덕 질서’를 내세우며 왕정복고를 획책했다. 하지만 1876년과 1877년에 연달아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파가 승리한 데 뒤이어서 1879년에 처음으로 공화파 정부와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제3공화국은 비로소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다. 프랑스혁명의 기억이 새 공화국의 반석 위에 되돌아온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요컨대 7월 14일이 국가의 공식 국경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이 탄생한 후 10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 3. ‘7월 14일’의 탄생

#### 1) 날짜들의 경쟁

제3공화국은 프랑스혁명 때 탄생한 제1공화국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공화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려 애썼다. 진정한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공화주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정책이 필요했다. 기념제 정책은 공화국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제3공화국은 우선 자기 자신이 탄생한 1870년 9월 4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9월 4일 공화국 임시정부 선포일은 바로 이틀 전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대패했다는 쓰라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금기의 날짜였다. 결국 제3공화정은 한 세기 전 제1공화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택했다. 제3공화국은 프랑스혁명 때 만들어진 여러 공화주의 상징기제들을 되찾았다. 예컨대 시청사마다 공화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마리안느(Marianne) 상이 들어서고, 1879년에는 ‘라마르세예즈’가 공화국의 공식 국가로 채택되었으며, ‘자유·평등·우애’가 국시로 채택되었다. 이제 혁명의 날을 범국민적 축제의 날로 지정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1880년 5월 21일, 공화파 의원 방자맹 라스파유(B. Raspail)가 동료 위원 64명의 서명을 얻어 “공화국은 7월 14일을 연례 국경일로 채택한다.”라는 간단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이 제출되자 의회는 물론 언론에서 과연 어떤 날이 공화국 국경일로 합당한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프랑스는 역사상 세 개의 커다란 혁명을 이룩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중에서 어느 혁명을 기념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1848년 2월혁명은? 원내 극좌파 의원인 노(老)사회주의자 루이 블랑(L. Blanc)은 2월혁명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기억을 되살려 2월 24일을 국경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단명한 제2공화국이 무기력하게 제2제정에 자리를 내주었던 쓰라린

기억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2월혁명은 제외되었다.<sup>9)</sup> 그렇다면 1830년 7월혁명은? 그것은 혁명으로 왕정이 들어섰으며 7월왕정은 2월혁명에 의해 타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곤란했다. 결국 남은 것은 제1공화국을 탄생시킨 프랑스혁명이었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의 위대한 날들 중에 어느 날짜를 채택할 것인가? 각 날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은 사실상 1880년 당시의 정치적 대립, 즉 공화파와 왕당파 사이의 대립뿐만 아니라 온건 공화파와 급진 공화파 사이의 간격과 일치하는 만큼 날짜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다.<sup>10)</sup> 삼신분회 개최일인 1789년 5월 4일은 혁명의 서막이기는 했지만 루이 16세가 삼신분회를 주재했다는 점에서 왕정의 색채가 배어 있고 따라서 왕당파에게 이로운 선택으로 보였다. 제3신분 대표가 국민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소위 정구장 서약을 했던 6월 20일은 공화파의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그 주체가 주로 부르주아 대표들로 민중이 배제됐다는 큰 약점이 있었다. 1792년 8월 10일 봉기는 공화정 탄생의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적 성격으로 인해 원내 온건파들의 거부감을 샀다. 제1공화국이 탄생한 9월 22일은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에 잘 들어맞았지만 끔찍한 폭력을 부른 '9월 대학살'과 너무 가깝다는 단점이 있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1793년 1월 21일은 극좌 혁명가 앙리 로슈포르(H. Rochefort)를 제외하고는 좌파 의원들도 선뜻 제안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몰락시킨 1794년의 테르미도르 9일(7월 27일)은? 이날을 국경일로 삼는 것은 공포정치를 혁명의 성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공화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풀기 힘든 논쟁을 다시 끄집어 내는 일이며 결국 왕당파에게 득이 되는 일이었다. 혁명 세력들 사이의 대립의 결과인 테르미도르 9일은 새 체제의 초석으로는 걸맞지 않아 보였다.

#### 국경일로 제안된 혁명의 날들

날짜	연도	사건	찬반 근거
5월 4일	1789	삼신분회 개최	국민 대표들의 첫 모임, 혁명의 서막. 루이 16세가 삼신분회를 주재했다는 점에서 왕정의 색채가 강하다.
6월 20일	1789	정구장 서약	제3신분 대표들이 헌법 제정과 국민의회 소집을 결의. 주체가 주로 부르주아 대표들이며 민중의 참여가 미약하다.
7월 14일	1789	바스티유 함락	군중이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하고 일부 수비병을 학살. 구체제와의 단절의지와 민중의 개입이 뚜렷이 나타난다. 민중 폭력과 무질서를 수반했다.
8월 4일	1789	봉건제 폐지 선언	국민의회 의원들이 봉건 특권 폐지를 선언.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제와의 단절을 표현했다. 주체가 주로 상류층 의원들로, 민중적 성격이 약하다.

9) "Le 14 Juillet: histoire d'une célébration", p. 4. [www.elysee.fr/president/root/bank/print/11717.htm](http://www.elysee.fr/president/root/bank/print/11717.htm) 참조.

10) M. Ozouf, "Le premier 14 Juillet de la République 1880", *L'Histoire*, N.25(juillet/aofit 1980), p. 13.

7월 14일	1790	대연맹제	바스티유 함락 1주년 기념과 국민 화합 축제. 신분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국민통합의 의지를 나타냈다.
8월 10일	1792	파리 민중봉기	민중봉기의 위세에 놀려 국민의회가 왕정 폐지 선언. 공화국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민중 폭력의 성격이 강하다.
9월 22일	1792	공화국 선포	제1공화국 탄생. 새로운 사회 건설의 초석이다. 끔찍한 민중폭력의 현장인 '9월 학살'을 연상시킨다.
1월 21일	1793	루이 16세 처형	왕정과 구체제를 청산한 선언적 표현이다. 국왕 처형을 경축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7월 27일	1794	테르미도르 쿠데타	로베스피에르의 처형과 공포정치의 종언. 혁명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를 되찾았다. 공포정치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것은 1789년 7월 14일과 8월 4일이었다.<sup>11)</sup> 8월 4일은 국민의회가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한 날이다. 7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봉건특권의 폐기를 요구하는 농민 소요가 들불처럼 번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의원들은 서둘러 봉건제 폐기를 선언했다. 구체제의 종언을 뜻하는 봉건특권의 폐기 선언이 민중의 유혈폭력 없이 의원들의 자발적 발의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8월 4일은 상원의원들과 보수 신문 『주르날 데 데바(*Journal des Débats*)』의 관심을 끌었다. 에마뉴엘 알강(E. Halgan)과 샤를 포리케(Ch. Poriquet) 등 왕당파 계열의 의원 들은 '폭력과 무질서'의 7월 14일을 '화합과 질서'의 8월 4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sup>12)</sup> 반면에 공화파 의원들은 8월 4일 선언이 구 체제와의 단절을 뜻하기는 하지만 농민 소요에 겁먹은 국 민의회의 자구책의 소산일 뿐 민중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 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1789년 7월 14일이었다.

## 2) 7월 14일 : 두 겹의 날짜

1789년 7월 14일은 한편으로 그날이 구 체제와의 단절을 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익명의 군중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알맞은 선택으로 보였다. '민중에 의한 바스티유 탈환'이라는 7월 14일의 이미지는 자유나 해방과 같은 구 체제와의 단절을 상징 하는 단어들과 잘 어울렸고 주권재민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공화주의 이념과도 잘 맞닿았다. 레 옹 강베타(L. Gambetta) 등 공화파 정치인들에게 프랑스혁명의 상징은 바로 1789년 바스티유

11) 크리스티앙 아랄비, 『7월 14일 기념일』, 피에르 노라 외 지음, 『기억의 장소』, 김인중 등 옮김, 도서출판 나남, 2010년, 337쪽.

12) J.-P. Bois, *Histoire des 14 Juillet 1789-1919*, p. 150.



함락 사건이었다. 강베타는 1872년에 7월 14일 기념강연에서 “프랑스혁명의 가장 결정적인 나날들은 그날들을 감싸고 있는 이 첫 번째 사건 즉 1789년 7월 14일에 포함되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으로 혁명적인 날짜, 프랑스를 뒤흔든 날짜입니다”라고 말했다.<sup>13)</sup>

하지만 문제는 바스티유 함락이 민중적 폭력의 발현이라는 데 있었다. 왕당파 의원 샤를 포리케는 “당신들은 7월 14일을 축하하려는가? 하지만 억울한 희생자들의 피가 당신들 손에 들려 있는 등초롱의 모호한 불빛을 가릴 것이다”라며 거친 반감을 나타냈다. 왕당파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온건파 의원들에게도 바스티유 함락은 민중의 폭력적 광기와 무질서를 연상시켰다.

폭력을 신성화하고 기념하는 것이 국민 화합에 도움을 줄 것인가? 국경일로 지정될 역사적 사건에는 국민 화합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은가? 여기서 일부 공화파 의원들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이 아니라 1790년 7월 14일 대연맹제(Fête de la Fédération)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1790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 1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전국의 국민방위군 대표들이 거대한 축제를 벌였다. 샹드마르스 광장 양쪽 편에 개선문과 조국의 제단이 세워지고 6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루이 16세와 국민방위군 사령관 라파예트가 단상에 올랐다. 국왕과 국민이 함께 어울린 대연맹제는 어느덧 바스티유의 기억을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한 화합을 외치는 국민적 통합의 마당이 되었다. 따라서 ‘통합’의 대연맹제는 ‘갈등’의 바스티유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었다. 공화파 상원의원인 역사가 앙리 마르탱(H. Martin)은 왕당파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두 7월 14일의 상보관계를 내세웠다.

7월 14일에 피를 흘리는 개탄스러운 장면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에서 진보는 많은 고통과 많은 피를 대가로 치르고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 체제에 맞서 새 시대가 무장투쟁으로 승리를 거둔 이 7월 14일의 뒤에, 1789년 7월 14일의 날 이후에 1790년 7월 14일의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은 이날을 피가 흘렀거나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프랑스의 단합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옛 왕국이 시작한 것을 끝냈었습니다. 옛 왕국은 말하지만 프랑스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대혁명은 그날 1790년 7월 14일에... 프랑스의 영혼을 만들었습니다.<sup>14)</sup>

앙리 마르탱은 1789년 바스티유 습격에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두면서도 그것을 국민적 통합의 계기로 이끌어낸 것은 바로 1790년 대연맹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연맹제의 통합적이고 범국민적인 성격은 바스티유 함락의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성격을 지워버리고 어렵지 않게

13) “Anniversaire du 14 Juillet 1789, Discours prononcé à La Ferté-sous-Jouarre”, *Discours politiques de M. Gambetta*, Ernest Leroux, 1875, p. 158.

14) “Discussion du projet de loi ayant pour objet l'établissement d'une fête nationale(séance du 29 juin 1880)”, <Tout savoir sur le 14 Juillet>, <http://14juillet.senat.fr/toutsavoir/>

상원 내 온건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하원의 심의를 거쳐 상원에 올라온 국경일 법안은 비교적 무난히 통과되었다(찬성 173 대 반대 64). 결국 1789년과 1790년을 동시에 기념하게 된 것이다. '7월 4일'은 바스티유 함락과 대연맹제를 동시에 지시하는 "두 겹의 날짜(date bicéphale)"<sup>15)</sup>로 탄생했다.

결국 프랑스인들이 해마다 7월 14일에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1789년 바스티유 함락과 1790년 대연맹제 두 가지인 셈이다. 그것은 차라리 앙리 마르탱의 표현을 빌자면,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뒤섞인 '혁명 그 자체(Révolution tout entière)'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진정한 공화파에게, 그리고 프랑스혁명을 수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관점에서, 7월 14일 기념일이 경축하는 대상은 무엇보다 1789년 7월 14일이었다. 그들이 볼 때, 1790년 대연맹제는 1789년 바스티유 사건의 축제 분위기가 연장된 말하자면 복제품에 지나지 않았다. 1790년을 1789년과 함께 국경일에 포함시킨 것은 1789년에 대해 망설이는 반대파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차선책이었던 것이다. 7월 14일의 이중적 의미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던 20세기 초에 샤를 페기(Ch. Péguy)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아마도 프랑스인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대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다.

역사는 말한다. 바스티유 함락은 하나의 축제, 첫 번째 축하, 첫 번째 기념제였다고, 달리 말하자면 바스티유 함락이 바로 바스티유 함락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고. 아니 그것은 차라리 바스티유 함락의 영 번째 생일이었다. 역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한 면만 보았고 다른 면을 보아야 했다. 우리는 보았다. 바스티유 함락의 첫 번째 기념일, 첫 번째 생일이 연맹제가 아니다. 첫 번째 연맹제, 미완의 연맹이 바스티유 함락이다.<sup>16)</sup>

#### 4. 7월 14일의 '기억'

1880년 7월 14일, 제3공화국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첫 7월 14일 기념행사를 치렀다. 프랑스혁명을 상징하는 날짜가 국가의 정통성을 기리는 국민적 축제의 날이 된 것이다. 하지만 7월 14일로 상징되는 프랑스혁명의 유산을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 세력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혁명이 발생한 지 한 세기가 지난 19세기 말~20세기 초에도 정파들은 대혁명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치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곤 했다. 보수 왕당파 등 보수

15) 크리스티앙 아말비, 『7월 14일 기념일』, 340쪽.

16) Ch. Péguy, *Clio, dialogue de l'histoire et de l'âme païenne, Oeuvres complètes de Charles Péguy*, V. 8, Éditions de la Nouvelle Revue Française, 1916, p. 142.

세력은 여전히 대혁명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고, 집권 공화파 계열 내부에서도 대혁명 동안 분출된 여러 이념과 국면들에 대한 입장을 서로 달리했다. 대혁명을 둘러싼 이 새로운 ‘백년전쟁’은 역사학계의 논쟁에서 자양분을 얻기도 했다.

프랑스는 1889년에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식을, 1939년에 1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그것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화합을 기리는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대혁명의 유산에 대한 역사학계의 논란과 정파 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성대한 공식 국가 행사의 뒤편에서 관련 단체들은 기념식을 제 나름의 색채로 장식하곤 했다.<sup>17)</sup>

역사가들이 “프랑스혁명은 끝났다.”<sup>18)</sup>라고, 그것도 다소 성급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달리 말하자면 정치적 차원에서 반혁명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시(Vichy)체제가 패배하고 제4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였다.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식을 치른 1989년 무렵, 프랑스혁명은 이제 정치적 대립을 낳는 갈등 요인이 아니라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7월 14일에 내재해 있는 역사적·상징적 기억들, 1880년에 국경일로 지정할 당시 좌파 공화주의자들만이 신성화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 프랑스인 모두에게 내면화 되어 범국민적 집단 기억이 되었다.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제를 앞둔 1989년 초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프랑스인들이 바스티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응답자의 37%가 바스티유 함락을 프랑스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았다. 인권선언 반포(16%), 루이 18세 처형(13%), 봉건제 폐지 선언(10%), 왕정의 몰락(8%)이 그 뒤를 이었다. 바스티유 함락의 이미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24%는 그것이 ‘민중의 승리’를, 17%는 ‘자유’의 상징’을, 14%는 심지어 ‘왕정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바스티유 함락이 ‘학살·유혈·공포’를 의미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응답자는 단 2%에 지나지 않는다.<sup>19)</sup> 이렇게 바스티유 함락 사건은 프랑스혁명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요컨대 국경일 7월 14일은 1789년 바스티유 함락과 1790년 대연맹제를 모두 가리키는 ‘두 겹의 날짜’이지만, 프랑스인 대다수는 해마다 7월 14일에 바스티유 함락을 떠올리는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바스티유 함락의 이미지에 1880년 국경일 제정 당시 선택 기준으로 삼았던, ‘구 체제와의 단절’과 ‘민중적 의지의 발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념제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논리이며 권력게임이기도 하다. ‘7월 14일’의 탄생은, 기념일 제정을 놓고 역사 해석의 차이와 정파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17) P. Ory, “La République en fête. les 14 Juillet”,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52(1980), p. 460.

18) F. Furet, *Penser la Révolution française*, Gallimard, 1978, p. 11.

19) <La culture révolutionnaire des Français>, Sondage, IPSOS, *Le Monde* 4 janvier 1989.

술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합의된 역사상이 도출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선 세대의 갈등의 역사가 기념제를 거치면서 뒷 세대의 기억 속에 합의된 역사로 되살아난다. 기념제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랑스혁명 연표 1789~1799

혁명 초기-입헌군주정	혁명의 급진화-공화정	혁명 후기-공화정(총재정부)
(온건)부르주아의 주도권	(급진)부르주아와 민중의 동맹	(온건)부르주아의 지배
<p>1789년</p> <p>5.04 삼신분회 개최, 베르사유</p> <p>6.17 〈국민의회〉 선포</p> <p>6.20 정구장 서약, 베르사유</p> <p>7.14 바스티유 습격</p> <p>7~8. 농촌의 '대공포' (농민혁명)</p> <p>8.04 봉건제 폐지 선언</p> <p>8.26 인권선언</p> <p>10.05 '10월 켈기'-베르사유 행진</p> <p>1790년</p> <p>7.14 대연맹 축제</p> <p>6.20 국왕의 도주, '바렌스 사건'</p> <p>7.17 샹드마르스 학살사건</p> <p>1791년</p> <p>10. '91년헌법' : 입헌군주제, 재산제한선거제, 단원제, 간접선거</p> <p>10.01 〈입법의회〉 개최</p> <p>1792년</p> <p>4.20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p> <p>7. 의용군 모집, 라마르세예즈(國歌)</p> <p>8.10 '8월10일 봉기' 왕정 폐지</p> <p>9.02 '9월 학살', 파리군중이 반혁명용의자 1,200여 명 학살</p>	<p>1792년</p> <p>9.20 프랑스군, 발미 전투 승리</p> <p>9.20 〈국민공회〉 개최</p> <p>9.22 제1공화국 탄생, 혁명력1년</p> <p>1793년</p> <p>1.21 루이 16세 처형</p> <p>2. 제1차 대불동맹(유럽對프랑스)</p> <p>3.03 방데 지방 반혁명 시작</p> <p>3. 공포정치 93.3~94.7</p> <p>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설치</p> <p>6.02 '6월봉기'-지롱드파 몰락, 산악파 주도권 장악</p> <p>6.24 '93년헌법': 보통선거제</p> <p>6. 지방의 반혁명(연방파의 반란)</p> <p>7.13 마라의 암살</p> <p>8.23 국민총동원령</p> <p>10.10 혁명정부 선언, 혁명력 제정</p> <p>10.16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p> <p>1794년</p> <p>1.21. 국왕 처형 1주년 기념축제</p> <p>6.09 최고존재의 제전</p> <p>6.26 프랑스군, 플뢰리스 전투 승리</p> <p>7.27 테르미도르 쿠데타, 로베스 피에르 처형</p>	<p>1795년</p> <p>9.23 '95년헌법' : 재산제한선거제, 양원제</p> <p>10.05 방데미에르 봉기(왕당파) 실패</p> <p>10.26 〈총재정부〉 탄생</p> <p>1796년</p> <p>3·11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p> <p>5.10 그리쿠스 바비프 '평등주의 자음모' 실패</p> <p>1797년</p> <p>9.04 프뤼티도르 쿠데타, 군대의 힘으로 왕당파 제압</p> <p>5.11 플로레알 쿠데타, 군대의 힘으로 자코뱅파 제압</p> <p>1798년</p> <p>4. 제2차 대불동맹</p> <p>1799년</p> <p>10.16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에서 귀국, 파리 도착</p> <p>11.09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나폴레옹의 권력 장악 대혁명의 종언</p>

## 독일농민전쟁과 기념사업



# 독일농민전쟁과 기념사업

비온티노 | 서울대학교

- 
1. 독일 농민전쟁과 그 기념사업
  2. 독일 농민전쟁의 경과
  3. 독일 농민 연구사 및 용어 정의
  4. 독일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 및 기념사업에 대한 소개
  5. 기념사업을 하는 기관 및 박물관
  6. 맺음말
- 

## 1. 독일 농민전쟁과 그 기념사업

오늘날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독일이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사업은 지역적이고 소규모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 농민전쟁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농민전쟁”의 연구사와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기념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념관 및 박물관, 고향회 등 기관들과 그들의 기념행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독일 농민전쟁의 경과

독일 중세 후기 봉건제도와 봉건사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봉건사회의 기반은 농업과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과 교회가 농민의 복지를 중시하지 않았고 농민들을 착취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지배계급을 향해 그들의 착취를 그리고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것이 농민전쟁입니다. 슈튀링엔(Stühlingen) 지역의 농민들이 1524년 6월에 봉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농민반란이 있었지만 소규모적인 봉기였습니다. 슈튀링엔 봉기는 본격적인 농민전쟁의 출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524년 성탄절까지 봉기가 수없이 일어났지만, 몇몇 지역으로 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5년 수난절부터 부활절까지 3개의 커다란 농민군단이 형성되었습니다. 1525년 부활절 후, 반란군에 참여한 농민의 수는 300,000명을 넘었고, 봉기가 이전보다 대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곧, 영주동맹군이 탄압하기 시작했고 가혹한 전투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농민들은 영주동맹과 교섭하여 더 나은 생활을 보장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유도시인 멤밍겐(Memmingen)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525년 3월에 멤밍겐에서 농민들이 “농민의 12개 조항(Zwölf Artikel)”, 그 당시 농민들의 대표적인 탄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성직자의 자유선거(freie Pfarrerwahl), 노예제 폐지, 조세 및 부역제도의 완화와 엄청난 상속세(Todfall)의 폐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개혁 요구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것이었고 봉건 제도의 뿌리까지 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526년 초까지 저항한 농민군단은 영주동맹의 군대로 모두 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3분의 1은 전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폭력을 수단으로해서는 더 이상 농민들을 이전처럼 다스릴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탄압 후에 농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개 조항”에 실린 요구의 대부분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 3. 독일 농민 연구사 및 용어 정의

1526~1795년 동안, 농민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625년과 1725년에 기념행사가 있었다는 것뿐, 그 행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Georg Friedrich Sartorius의 “Versuch einer Geschichte des deutschen Bauernkrieges(독일농민전쟁사의 시도)”라는 책은 1795년부터 농민전쟁에 대해 본격



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합니다. 레오폴트 폰 랑케는 농민전쟁을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 최대 규모인 사건("das größte Naturereignis des deutschen Staates")으로 보았습니다만, "대중"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50년에 제출한 "Der Deutsche Bauernkrieg(독일농민전쟁 : 한국에서 독일혁명사로 발행)"에서 농민전쟁을 역사적 유물론의 전통과 일치하는 혁명의 시도로서 해석했습니다.

2차세계대전의 말까지, 1843년에 발간된 Wilhelm Zimmermann의 "Allgemeine Geschichte des großen Bauernkrieges(농민대전쟁의 일반사)"와 Günther Franz의 "Der Deutsche Bauernkrieg(독일 농민전쟁)"이 대표적인 연구였습니다. 농민전쟁을 정치운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전후에 서독과 동독에서, 연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서독에서는, Zimmermann과 Franz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동독에서는 Engels의 연구가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농민전쟁의 450년 기념으로 1975년에 서독과 동독에서 500권 이상의 간행물이 나왔습니다. 그해, 서독 농민전쟁 연구의 권위자인 Peter Blickle가 그의 저서 "Die Revolution von 1525(1525년 혁명)"에서 서독과 동독의 연구를 맞춰서 농민전쟁을 혁명으로 해석하면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Peter Blickle는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재고하고, 동독의 "초기 부르주아 혁명"적 개념을 비판하면서 독일 농민전쟁을 "평민의 혁명(Die Revolution des Gemeinen Mannes)"으로 해석했습니다.

새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첫째, "독일" 농민전쟁의 여러 봉기가 독일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혁명을 수행한 사람은 농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세 마을 집단 모두가 봉기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Blickle는 이러한 평민을 지배계급과 대립하고 지배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Blickle의 정의에 따르면 집안일에 묶여 있어서 봉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여지들과 머슴(Knecht, 크네흐트),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는 용병 등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무산계급(Pöbel, 또는 Proletariat)과는 일치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러한 평민(Gemeiner Mann)이라는 용어는 Blickle의 연구가 발표된 당시에, 인류역사학에서 "민중(Volk)"이나 "서민"과 대조되는 말로서 사용되었는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민(Gemeiner Mann)을 사용함으로써 봉기의 모든 지배계급에 대한 봉기였던 것을 강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Blickle는 농민들이 요구했던 12개 조항은 "청원서, 개혁방안과 정치적인 선언서"로 여기기 위해서 농민의 운동을 혁명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12개 조항은 진보적인 헌법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2개 조항을 새로운 사회와 지배 질서에 대한 문서로 여기고 농민들을 대중운동을 추진하는 힘으로 해석합니다. 현재에는 Blickle의 학설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4. 독일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 및 기념사업에 대한 소개

이제부터 독일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 및 기념사업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에 농민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공식적인 공휴일이나 기념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 동독(DDR)에서 4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지만, 서독(BRD)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독일의 공휴일은 기독교와 같이 종교적인 것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기념일과 캠페인 데이("Aktionstage")는 다양하게 있지만, 농민전쟁과 관련한 기념일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법적으로 제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없습니다.<sup>1)</sup> 이것으로 독일인의 역사의식에서 농민전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념일 가운데 대다수는 가혹했던 나치 지배와 같은 일이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념(mahnende Erinnerung)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은 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규칙은 없지만 대부분 기념사업은 농민전쟁 몇 주년을 기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기관은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협회나 고향회입니다. 그들은 마을이나 도시의 행정관청에 재정적 원조나 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400주년, 450주년과 475주년이란 큰 기념일에서조차 도시 간 지역 간 협력은 없고 그저 박물관 사이에서만 협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 도시가 동시에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민전쟁이 일어난 날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농민전쟁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도시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중앙집권 체제가 아닌 연방국 체제라는 점으로 인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앙 기념관을 설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념행사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전투가 발생했던 날짜를 기념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그의 95개 논제를 발표함으로써 독일 종교개혁(Reformation)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꽤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으로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행하는 국내외 행사 프로젝트도 지원합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년당 5백만 유로(EUR, 한 8십억 원)를 제공합니다. 교회, 재단, 협회(Vereine) 모두 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하지만 독일연방정부 차원에서 농민전쟁에 대해 보다 권위 있고 강력한 힘을 신기 위해 단일한 기념일을 제정한다면, 그 날짜에 관해서는 12개 조항이 작성되기 시작한 날인 1525년 3월 6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독일 농민전쟁 연구에 관한 학계에서,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이 서로 촉매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사업은 이와 같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한 농민전쟁 기념사업이 가능하지만 물론 그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지원되는 종교개혁기념일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생각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전쟁기념에 대한 지원금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듯 농민전쟁은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그림자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 소개한 기념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 2025년 500주년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계획이 아직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450년 및 475년의 기념행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500주년 기념행사도 틀림없이 실시될 것입니다. 서남독 지역에서는 2014년에 큰 기념일이 있습니다. 1514년의 Armer Konrad, 가난한 건랏이라는 농민 봉기 500주년입니다. 2009년에 벌써 그 기념행사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의 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Armer Konrad 기념사업의 계획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 도시를 걸쳐서 몇몇 곳에서 내용이 다른 전시회를 하면서, 심포지엄 및 연속 강연, 공연 및 재연, 그리고 음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념사업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부터 20만 유로(한 314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2017년의 독일 종교개혁기념행사의 여파로 일반 독일 대중 가운데 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민전쟁기념사업을 맡는 기관은 반드시 종교개혁의 기념행사로부터 새로운 동기를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5. 기념사업을 하는 기관 및 박물관

다음으로는 기념사업을 하는 기관 및 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반프랑켄하우센(Bad Frankenhausen)의 Werner Tübke의 “독일의 초기 부르주아 혁명” 파노라마 그림을 전시하는 파노라마미술관(Panoramamuseum)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사회당(SED)의 프레스티지에 의한 프로젝트는 1989년 통일되기 직전에 문을 열었는데 원래는 농민전쟁의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통독정부는 파노라마미술관을 문화적인 기념 장소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으로서 파노라마미술관은 독일 농민전쟁 박물관 연구회(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Bauernkriegsmuseen, ARGE)의 회원은 아닙니다. Bad Frankenhausen지역 박물관이 오히려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미술관에서는 농민전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뮌처의 활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전쟁 박물관 연구회는 2007년부터 500주년 기념까지 농민전쟁에 대한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ARGE의 홈페이지에서 연맹에 가입한 박물관의 소개 및 사진이 있습니다. ARGE는 일 년에 한 번 총회의를 합니다. 박물관은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전시물을 대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25년의 기념일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기념행사 5년 전에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제약으로 인해, 저는 농민전쟁 박물관 연구회 ARGE에 가입한 가장 크고, 대표적인 뵘블링겐농민전쟁박물관(Bauernkriegsmuseum Böblingen)만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뵘블링겐은 1525년 5월 12일의 농민전투의 장소이었습니다. 뵘블링겐의 도시 설립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7년 “자유, 권리와 영광을 위하여(‘Um Freiheit, Recht und Ehr’)”라는 제목으로 농민전쟁에 관한 공연을 상연하였고, 농민전쟁의 4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민오페라(Die Bauernoper)” 뮤지컬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농민전쟁박물관 설립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2월에 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전시 내용은 농민들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도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전시하고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 및 작업용품, 당시의 무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판화 등을 통해 활판 인쇄기로 인한 발전까지 인쇄술의 변화도 전시의 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특별전시회와 강의, 심포지엄 등도 주최합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역사연구회와 고향회들도 농민전쟁 기념사업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오바슈바벤 역사문화회 (Gesellschaft Oberschwaben für Geschichte und Kultur)입니다. 1996년부터 독일의 민주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슈바벤주의 지역적인 의식을 장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슈바벤지역은 농민전쟁의 중심적인 지역이었으므로, 농민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농민전쟁연구의 권위자 Peter Blickle씨가 회장입니다. 2000년 농민전쟁의 4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슈바벤지역을 넘어서 수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의, 심포지엄과 음악회 그리고, 답사와 지역안내 이벤트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간행물도 많습니다. 2009년에는 농민전쟁에 관한 미술전시가 있었고, 2011년 가을에는 농민전쟁과 관한 지역의 하이킹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름스-페더스하임(Worms-Pfeddersheim)의 문화풍경 승진회입니다. 1974년부터 Worms시 Pfeddersheim구의 문화 및 경관보전을 맡지만, 그 회의 활동에서는 역사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Worms시는 루터의 역사와 관계가 있으니 루터에 대한 기념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전쟁에 대한 의식은 없습니다. Pfeddersheim에서 격렬한 농민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Pfeddersheim 문화풍경 승진회는 기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전쟁 당시에 Pfeddersheim은 농민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포위전략을 당하였습니다. 1525년 6월 23~24일의 전투에서 Pfeddersheim이 몰락하였습니다.

1925년에서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회, 예배식 및 전사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문화풍경 승진회의 감시 아래 2000년 475년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재연행사도 있었습니다. 2000년 농민전쟁 475주년을 기념하여 동시에 2개의 새로운 기념비가 설치되었습니다. Pfeddersheim의 Simultan교회 앞에 평화기념비(Friedensstele)를 세웠고, Pfeddersheim에서 있었던 전투를 기념하는 농민전투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기념비들의 디자인도 문화풍경 승진회가 직접 정하였습니다.

독일농민전쟁 기념사업의 가장 큰 성공으로는, 메밍엔의 자유상(Memminger Freiheitspreis 1525)을 소개합니다. Memmingen시에서 12개 조항이 발표되었는데, 2000년, 농민전쟁 4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Memmingen가 자유상을 만들었습니다. 12개 조항은 평민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은 문장이었음을 독일정부는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수호를 위해 투쟁하고 운동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15,000 유로, 한 23백만 원)입니다. 당시의 독일연방 대통령이었던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의 2000년 3월 10일 멤밍겐상 창립 연설에서 12개 조항을 인권의 주춧돌의 하나로 여기며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농민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전쟁을 의도적으로 기념하지 않는 지역과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역사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좌시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Villingen-Schwenningen시의 역사로 인해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이 없습니다. 농민전쟁 당시에 Villingen와 Schwenningen이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다른 두 곳이었는데, 농민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반되는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Schwenningen의 농민들은 봉기에 참여했지만, Villingen은 그 농민들의 공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므로 Villingen은 지배계급과 협력하고 Schwenningen의 탄압을 가혹하게 실행하면서 약탈 및 방화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통일된 그 두 도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6. 맺음말

본 발표는 독일의 농민전쟁 기념사업 및 기념정책과 문화에 대한 조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겸해 독일농민전쟁 기념사업의 성격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농민전쟁이 발생했던 곳에서만 기념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박물관이나 고향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많은 경우에 독일의 농민전쟁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는 농민전쟁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연활동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토마스 뮌처가 태어난

도시인 Mühlhausen에서 일 년에 한 번 주말 동안 농민전쟁 스펙터클 “Bauernkriegsspektakel”이라는 재연 축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토마스 뮌처의 생활 및 활동을 내용으로 했는데, 요즘은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합니다.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연활동은 고향의 역사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연기의 즐거움이 공연의 더 큰 동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연을 보는 관객 역시 농민전쟁을 기념한다는 의미보다는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연기를 감상하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가운데 농민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 농민전쟁의 기념을 주관하는 박물관 및 협회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유 없는 엄살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농민전쟁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박물관의 존재 자체는 이미 엄청난 노력과 상당한 의지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많은 기념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사로잡지 못하는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상당한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농민전쟁 기념사업은 지원 할만한 프로젝트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에 국가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재정적 지원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개혁은 이미 독일만의 역사가 아닌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국민의 40%는 개신교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신교들의 숫자에 비하면 농민전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는 매우 드뭅니다.

둘째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민전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기념 사업은 과거 나치 지배에 대한 반성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것은 독일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기념행사입니다. 이에 반해 농민전쟁 기념행사는 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통독 이전에는 서독에서보다 동독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농민전쟁의 기념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조차도 농민전쟁을 기념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농민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박물관의 관람객들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간략한 설명은 - 예컨대 “하층의 고층에 대한 봉기”라는 역사적 사실은 생략된 채 - 관람객들이 농민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농민전쟁은 종교개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집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특히 남독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전쟁과 관련해서 카톨릭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농민전쟁과 관련한 기관들은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농민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독일 농민전쟁이 발발했던 장소는 오늘까지 농업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농업 지역입니다. 사실 한국처럼 독일에서도 농업은 그 경제적 수익성과 관련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젠 농업이 - 봉건시대 농업이 가지

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과 비교하여 - 명예가 덜한 작업 및 직업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바탕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농민들은 사회를 부양하는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농민 그리고 농민전쟁은 반드시 기념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1894년 농민전쟁과 '고부기포'



# 1894년 농민전쟁과 '고부기포'

김 인 걸 | 서울대학교

- 
1. 머리말
  2. '고부민란'과 전봉준
  3. 농민전쟁 봉기계획의 실현과 고부기포
  4. 맺음말 : 고부기포의 역사적 의의
- 

## 1. 머리말

1894년 농민전쟁은 한국사에서 반제반봉건운동의 총결이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었다. 그것은 과거 농민항쟁의 전통 위에서 전개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군현단위의 고립성을 벗어나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민중운동사의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동시에 농민전쟁은 민중이 왕조사회의 피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서 전면에서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조선의 민중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간 농민전쟁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진전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특히 1994년, 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여러 학술행사 및 자료집 발간은 농민전쟁 연구를 한 단계 크게 진전시켰다.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실증적 기반이 확충되어 오면서 기왕의 통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농민전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하

게 되는 점의 하나는 전쟁의 발발이나 전개 과정에서 동학조직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동빈 김상기 선생이 3·1운동에서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가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동학과 동학란’에 주목한 바 있었는데,<sup>1)</sup> 그러나 비록 표현은 ‘동학란’이라 하였지만 이를 ‘민중의 애국적’ 운동으로 규정한 그의 연구시각은 계승되지 못하고 당시 민중의 움직임과 동학 사이의 연계에 대한 추적은 당분간 정체되었다. 이후 19세기 ‘민란’ 등 민중운동사에 대한 연구의 진전에 의해 새로운 설명방식이 가능해지면서 하나의 통설적 이해체계가 정립되었는데, 그 결과 새로 자리잡게 된 통설은 ‘고부민란’과 ‘농민전쟁’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고, 농민전쟁에서 동학은 하나의 외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sup>2)</sup> 물론 이때 ‘고부민란’은 여타의 민란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여타의 민란이 원대한 체제개혁의 구상을 갖지 못하고 눈앞의 수탈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데 반해, 그것은 이 시기 다른 정치·사회운동에 자극받으면서 한 차원 넘어서 이른바 동학란으로 연계시키는 가운데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농민전쟁·농민혁명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다고 이해한다.<sup>3)</sup>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농민전쟁 주도 세력의 ‘전쟁 기획’과 동학의 역할이다.

이제 검토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고부민란’은 기왕의 ‘민란’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농민전쟁의 한 단계를 점하는 것이었다. 고부, 백산은 동학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반봉건운동을 기획하였던 ‘전봉준세력’의 전쟁기획의 거점이 되었고, 농민전쟁의 1차 봉기에 나선 농민군의 구성은 단지 전라도 농민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현 단위를 뛰어넘어 구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민중의 의식 성장과, 이를 조직할 수 있는 지도부의 형성 없이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내의 변혁지향 세력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농민전쟁에서 ‘고부 기포’가 갖는 의미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1)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東學과 東學黨亂)」, 동아일보 연재, 1931.

2) 정창렬, 「갑오농민전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 김용섭, 「고부민란의 사회경제사정과 지적환경-동학란·농민전쟁의 배경 이해와 관련하여」(미발표 논문, 1994고, 19987보),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지식산업사, 2001, 80-81쪽.

## 2. '고부민란'과 전봉준

많은 연구들이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는 3월 20일의 '무장기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군현 단위의 국지성을 탈피한 것에 크게 주목한 것이다. 그렇지만 무장봉기나 고부봉기 모두 농민전쟁 기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봉준 세력'의 전쟁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즉, 1894년 1월의 '고부기포'는 1893년 11월의 이른바 '사발통문 거사계획'과<sup>4)</sup> 일정한 연계를 갖는 것으로서 일반 군현 단위의 민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뒤에 설명할 바와 같이 사실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부임 이후 그의 불법탐학에 대한 원민들의 원성이 고조되어 오다가 1893년 11월, 12월 각각 40여 명, 60여 명의 등소가 있었으나 고부 한 읍에 관련된 '民狀'을 올린 데서 그친 것으로서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전봉준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894년 정월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전봉준은 소지를 직접 작성하여 원민들로 하여금 읍과 감영에 정소하게 하는 한편 그는 군중의 추대에 의하여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이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 조병갑의 재부임에 맞추어 일어난 대대적인 이 거사에는 동학도 보다는 일반 원민들이 중심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은 이를 '기포'로 표현하였다. 그는 동학에 들어간 목적을 실현할 계기를 고부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봉준이 '동학운동'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2년 10월의 삼례취회에서였다. 이미 그 전에 동학 조직을 이용한 변혁지향 세력은 1892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1892년 10월 서인주, 서병학 등이 최시형의 허락 없이 공주에서 취회하고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각도 동학유생의송단자」를 제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892년 11월 3일 삼례취회에서 소장을

#### 4) 沙鉢通文

[A]

계사 11월 일 (1893·11)

各里(里)執綱座下

[B]

다음(우)과 같은 격문을 사방에 보내니 세상 여론이 들끓었다. 매일 나라의 어지러움과 망함을 칭송하며 노래 부르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닳아 난리가 닳아”,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들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하며 기일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C]

이때에 道人들은 善後策을 토의하여 결정하기 위해 고부 서부면 죽산리의 송두호 집에 都所를 정하고 운집하여 일의 순서를 결정하니, 그때 결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1.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의 재산을 빼앗은 탐관오리를 격징할 것.
1.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경사(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

작성한 사람은 서병학, ‘괴수’는 서인주였는데, 소장을 고평할 마땅한 사람이 없던 차에 자원해서 나선 인물이 우도에서는 전봉준, 좌도에서는 柳泰洪이었다(崔炳鉉, 『南原郡東學史』, 1924). 이들은 전라감영에 두 차례 정소 후 감결을 받고 다음 날 11월 12일 통문을 돌려 해산할 것일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교도들은 해산할 기미 없이 복합상소를 주장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12월 1일 공주에 다시 모여 충청감사에게 3개항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5)</sup>

결국 동학 본부는 1892년 12월 복합상소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都所를 차리고, 1893년 1월 10일 복합상소 결정하였다(『천도교회사초고』 445~446쪽). 당일 전봉준은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에 돌려 같은 시각에 방문을 붙였다고 한다(『南原郡東學史』 및 구례유생, 『嶺上日記』, 癸巳 2월 10일조). 복합상소를 전후해서는 ‘斥倭洋倡義’가 전면적으로 내세워지는 가운데 기존 지방관의 침탈에 대한 항의에서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기도하겠다는 표현이 표출되고 있었다. 중앙정부 측의 인사들은 신하로서 차마 듣고 말할 수 없는 과격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경악하였다. 당시 변혁운동 세력에는 다양한 세력이 혼재하고 있었으나 여기에서 중심을 이룬 것이 전라도 지방의 여러 동학 세력이었다.

1893년 복합상소에도 불구하고 교단 측의 기대와 달리 관리의 침탈이 배가되자 최시형이 드디어 교도 구원과 교조신원을 위한 대규모의 집회 개최 결정, 1893년 3월 10일 報恩聚會가 열리게 된다. 보은취회에서 주된 구호는 척왜양(왜양을 소파하고 탐관오리를 축출하자)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전라도에서는 金構聚會(호서의 서병학, 호남의 김봉집(김봉균=전봉준, 서장옥)가 별도로 열리고 있었다. 금구취회가 보은취회와 기본적으로 구분되니 달리 취급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sup>6)</sup> 보은집회와 금구취당은 성기가 통한다(『日省錄』 고종 30년, 계사4월 5일)고 여겨졌으며, 금구집회에 모인 이들 역시, “우리가 모인 것은 도주 최시형의 분부에 따라 斥倭洋을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수령의 침학이 고통스러워서이다.”(김윤식, 『속음청사』 상, 269쪽)라고 주장하였다. 교조신원을 위해 보은에 모인 ‘東學徒’들은 다중을 동원할 수 있는 ‘척왜양창의’ 슬로건을 전면내세우고 있었으나 충주유생 金永相의 日記(『栗山日記』, 계사 3월 15일자)에서 볼 수 있듯이 반봉건 의식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일기에서는 어윤중과 흥계회가 ‘동학괴수’와 만나 ‘파병귀가’할 것을 타일렀으나 그 괴수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시행되면 곧 해산하겠다고 하였다. 그 6가지는 斥倭洋事, 閔氏逐出事, 戶布革罷事, 當五革罷事, 各邑稅米靜持事, 着木棉不通外國物色事 등이었다.

5) 1892년부터 93년까지의 동학 내 변혁지향 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는 주7) 및 주10)의 배향섭의 설명에 따른다.

6) 보은취회의 두령으로 지목된 서병학이 어윤중에게 한 다음 말은 의문의 대상이 된다.

“호남취당은 얼핏 보면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 발문계방은 모두 그들의 소행이다. 정형이 극히 수상하니 원컨대 좋은 상세히 살펴보고 판단하여 우리 당과 혼동하지 말라”(『취어』)

위와 같은 정세 속에서 1892년 삼례집회 이후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등은 전라도 일대의 교도를 이끌고 독자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무장군수가 동학교도들로부터 뺏은 돈 1천 냥을 돌려받기 위해 수백 명을 이끌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南原宗理院, 『宗理院史附東學史』), 보은 금구집회에서 해산한 이후 전봉준과 김개남 등은 호남 지방에서 教衆을 거느리고 “혹은 모이기도 하고 혹은 흩어지기도 하면서 갑오년까지 이르렀다.”(『侍天教歷史』 기사 11월조) 이같은 사실을 한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때때로 먼 곳에서 온 손님이 여러 날 머무는 일이 있었으나 그들이 마을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았다. … 그는 이번의 변란이 일어나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일어나 난당을 지휘하였다. 고부민란에 달려가기 며칠 전 서너 명이 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인물들로서 후에 알고 보니 모두 동학당의 중요 인물이었다.”(菊池謙讓, 『近代朝鮮史』, 1939, 171~172쪽)

이상의 사실은 당시 객관적 정세와 농민들의 동향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있던 변혁지향 세력들이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여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전봉준은 바로 고부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농민군 지도부를 결속시키는 중심으로 나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 3. 농민전쟁 봉기계획의 실현과 고부기포

1892년 10월 공주취회, 삼례취회 및 1893년 보은취회 등 교단 주도의 교조신원운동과 반의세운동을 통해 정치력을 실험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농민들의 반봉건 열망을 전국적 차원의 정치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동학 내의 변혁지향 세력들은 내부 결속을 통해 지역 간 연계망을 확보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기포’를 구상할 수 있었다.<sup>7)</sup>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한 것은 전봉준이었다.

전봉준은 각 읍의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공통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그 모순은 중앙권력 집단에 의해 증폭되어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

7)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해서는 중앙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전봉준이 공초에서,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해를 제거하기 위해 기포하였다고 한 점, 한 道の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중앙의 권귀를 척결한다면 자연 8道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던 점<sup>8)</sup> 등이 그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봉준이 주도한 1894년 정월부터 3월까지의 ‘교부민란’은 과거의 민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전봉준은 고부 부안 정읍 태인 고창 무장 등지의 동학 접주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가운데 고부에서의 근거지 확보를 위해 농민들의 정소운동을 간접 지원하다가, 1894년 체임되었던 조병갑의 채부임에 맞추어 기포하였다. 일반적으로 1893년 仲冬의 ‘사발통문’ 거사계획으로부터 농민전쟁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하는데, 전봉준공초에 의하면 그는 원민들을 위해 ‘等狀’ 등 所志는 써주었지만 그 스스로 소장을 올리는 데 나서지는 않고 1893년까지는 대단한 정소는 없었다고 하였다.<sup>9)</sup>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위 1893년 11월 각리 리집강 앞으로 보낸 사발통문의 내용은 사후 전봉준세력의 활동 경험을 투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sup>10)</sup>

8) 『全捧準供草』, 〈初招問目〉 1895년 2월 9일

문: 너는 피해함이 없는데 기포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공: 일신의 해를 위하여 기포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리요. 중민의 원한하는 고로 민을 위하여 해를 없애고자 한 것이이다.

〈再招問目〉 2월 11일

문: 네가 작년 3월 기포한 이유는 민을 위하여 해를 없애고자 함으로 뜻을 삼았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전라도 한 도에서 탐학하는 관리만 없애고자 기포하였는가, 8도를 일체로 하는 의향이냐?

공: 전라 1도 탐학을 제거하고 내직으로 매각하는 권신을 구축하면 8도가 자연히 일체로 될 것입니다.

9) 위 〈再招問目〉 2월 11일

문: 네가 어떤 방책으로 탐관을 없애려 했느냐?

공: 별다른 방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安民하는 것이 간절하여 탐학을 보면 분탄을 이기지 못하여 이 일을 행했습니다.

문: 그러하다면 정소하여 청원하지 않았느냐?

공: 모쪼록한 것이 몇 차례인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 정영, 정읍은 내가 직접 행하였느냐?

공: 매번 所志는 이 몸이 제작하였으나 모하기는 원민으로 하게 했습니다.

문: 정영, 정읍한 것은 언제인가?

공: 작년 정월, 2, 3월 간입니다.

문: 정월 이전에는 정소하지 않았느냐?

공: 정월 이전에 고부 일읍은 民狀뿐입니다. 대단한 정소는 아니하였습니다.

문: 누차 정읍을 정하되 결국 청시하지 않아서 기포하였느냐?

공: 그렇습니다.

10) 『나라사랑』 15(1974)에 소개되어 알려진 ‘사발통문’은 각리 리집강 앞으로 전해진 것으로서, 그 진모를 보여준다고 파악된 내용의 개략이 처음 김용섭 교수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김용섭, 「전봉준공초의 분석」, 『사학연구』 2, 1958 게재, 1994, 1998 보;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2001 수록). 그것은 1954년 송재섭의 『갑오동학혁명란과 정봉준장군 실기』(필사본)에 게재된 것으로서, 1893년 11월(계사중동 월 일)의 통문 가운데, “유아도인은 물론이요 일반 동포형제도 본년십일월이십일을 기하여 고부마항시로 무부내옹하라 악불옹자 유하면 효수하리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1893년 당시 ‘일반 동포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 외에도, 고부의 각리 리집강들 앞으로 보내는 통문에 ‘마항시(말목장터)’로 모이라고 하면서 ‘교부마항시’라고 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대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형섭, 『조선 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239~242쪽 참조.



전봉준공초에 의하면 고부군수 조병갑의 불법탐학에 고부민들이 참고 참았다가 1893년 11월과 12월에 각각 40여 명, 60여 명이 등소를 하였지만 옥에 갇히거나 쫓겨나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sup>11)</sup> 다음 해 갑오 1894년 정월 수천의 중민이 전봉준 자신을 찾아와 주모자로 추대하기에 일신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기 위해 기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기포 후에도 정월에서 3월까지 감염 등에 문제를 제기해보기도 하였으나 고부관을 접명한 후에는 진황전에서 녹탈한 곡식을 거두어 나누고 관으로부터 築淤한 것을 회파한 후 일단 해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민군의 구성에서 동학도의 숫자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원한을 품은 일반 농민들이었다. 후에 쓰여진 장봉선의 기록에 의하면 1월 14일까지 참가한 사람이 15개 마을 1만 명에 이르자 장정을 선발하고 노약자는 귀가시켰으며, 각 촌마다 5명의 대표를 두어 이들을 통할하였다고 한다. 1월 17일 농민군은 군기고를 파하여 무기를 가지고 말목장터에 주둔, 여기에서 지도부는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고,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백산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13)</sup>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기포 당시 만들어졌다고 하는 다음 두 창의문과 격문이 전한다. 1894년 1월(갑오 정월 일) 초3일 호남창의소 창의문과 1894년 1월(갑오 정월 일) 17일 격문(호남창의대장소 재백산)이 바로 그것이다. 오지영은 『동학사』의 초고본에서 전자를 정월 초3일, 후자를 정월 17일이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창의 날짜의 착오가 아니라 이 시

11) 『全瑋準供草』, 〈初招問目〉

문: 연즉 네가 처음부터 官庭에 일차 呈狀도 하지 아니하여 보았는가?

공: 초차의 40여 명이 等訴하다가 捉囚를 당하고 재차 等訴하였다가 60여 명이 驅逐을 당하였나이다.

문: 等訴는 언제였는가?

공: 초차는 작년 11월, 재차는 동년 12월입니다.

12) 『全瑋準供草』, 〈初招問目〉

문: 너는 피해함이 없는데 기포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공: 일신의 해를 위하여 기포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리요. 衆民이 怨恨하는 고로 민을 위하여 해를 없애고자 한 것이외다.

문: 기포 시에 네가 어찌 주모가 되었는가?

공: 중민이 다 이 몸을 밀어 주모하라 하기에 민의 말에 의한 것이외다.

문: 중민이 네가 주모하라 할 때에 너의 집에 왔었는가?

공: 중민 수천 명이 이 몸의 집에 모두 모인 고로 자연히 된 일이올시다.

문: 고부기포 때의 동학이 많았는가 원민이 많았는가?

공: 기포 시에 원민이며 동학이 합하였사오나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습니다.

문: 기포 후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 기포 후 진황 녹탈 조를 遷推하고 관으로부터 築淤한 것을 회파하였나이다.

문: 그때가 언제인가?

공: 작년 3월 초입니다.

문: 그 후는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공: 그 후는 해산하였습니다.

문: 해산 후는 무슨 일로 인하여 다시 기포하였느냐?

공: 그 후 장흥부사 이용태가 인핵사로 본 읍에 와서 기포한 인민을 동학이라 동칭하고 열명하여 博促하며 그 가족의 집을 태우며 당사자라 하면 처자를 잡아서 살육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나이다.

13) 張奉善, 『全瑋準實記』

점에서 이러한 문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4)</sup>

전봉준은 고부항쟁을 지속시켜 나가면서도 처음 구상했던 체제변혁의 달성을 위해 백산으로 진을 옮기기 전, 2월 20일경 전라도 전 고을에 격문을 띄웠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백성을 지키고 길러야 할 지방관은 치민의 도를 모르고 자신의 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轉運營이 창설됨으로써 폐단이 번극하니 민인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 우리는 비록 초야의 遺民이지만 차마 나라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군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를 떨쳐 일어나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봉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sup>15)</sup>

위 사실에 대해 옆에서 주의 깊게 사태를 추적하고 있는 한 일본인 파계생의 『고부민요일기』에는, “民軍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에 58주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 목적은 다만 1군의 이해일 뿐 아니라 우선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개혁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병향은 먼저 郡倉의 세곡을 빼앗아 충당한다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위 격문은 전라도 전 민인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나아가 중앙권력의 핵심세력을 제거하여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농민전쟁의 기본 구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기본 골격은 1차 봉기 기간의 각종 통문이나 창의문에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격문이 날아간 이후에도 전라도 내 각지의 호응은 거의 없었고, 2월 25일 고부 농민군이 백산으로 옮긴 뒤 3월 1일 고부군의 海倉이 있었던 부안 줄포에<sup>16)</sup> 나아가 세곡을 거두어 장기전을 꾀하였지만,<sup>17)</sup> 3월 3일 신임 군수 박명원의 회유로 농민군이 해산되기 시작하여 3월 13일경에는 일단 해산한다.<sup>18)</sup>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도부 50여 명도 고부를 빠져나갔는데 일부는 무장으로 향하였다. 전봉준이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간 데 대해 장봉선은, “부하를 잃은 봉준이 품소 방문하여 구원을 청함에 화중은 시기상조를 역설하였으나 전 씨의 간절한

14) 김용섭, 앞 논문 주 114) 참조.

15) 李復榮(1870~?) 『南遊隨錄』 갑오 2월 20일.

16) 『大東地志』

고부에서 서북쪽으로 20리 떨어진 부안군 소속 줄포에는 고부군 소속의 海倉이 있었다.

17) 巴溪生, 「古阜民擾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7쪽.

“民軍 수백 명이 줄포의 세고를 파괴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양식에 궁하지 아니하였던가를 들어보니, 조병감이 소독한 미곡을 전부 탈취하여 이에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2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8) 정창렬, 앞 논문, 104쪽.

소원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전봉준과 손화중 사이에 어떤 형태의 논의가 있었으나 기포에 필요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부기포가 먼저 이루어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 2월 20일경의 창의격문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과연 전봉준이 격문을 띄운 지 10여일 뒤 2월 29일경에는 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 리 떨어진 곳(금구 원평 일대)에 동학이 둔집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3월 11일 12일 경 동학당 약 3천여 명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가는 것을 태인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sup>19)</sup> 그리고 손화중의 지원이 있었는지 3월 16일을 전후해서는 전라도 내 우연(우측 해안) 10여 읍의 농민군들이 무장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농민전쟁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 농민전쟁에는 전라도 농민군만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충청도에서의 활동이 주목되는데,<sup>20)</sup> 4월 4일 고산현 읍성에 걸린 방문 내용이 주목된다. 그 내용은 장차 3,000명을 이끌고 4월 5일 고산현을 지날 터이니 한 명당 쏠신 1짝과 전문 1냥씩을 준비하여 '천명'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말미에는 '동도대장 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서 '서'는 서장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천 황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전쟁의 1차 봉기가 徐包(서장옥 휘하의 동학군)의 일련의 계획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sup>21)</sup> 1937년에 쓰여진 『김낙봉이력』에는 위 사실이, “그때(갑오년 봄)를 당하여 서장옥 관하에서 진산 방축점에 회소를 설치하고 전봉준과 상하 상응할 양으로 수천 명이 회동한 사유가 대신사(최시형)께 入聞되어”라고 남아 있다.

이 기록은 서장옥과 전봉준의 연계 속에서 1차 봉기가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봉준은 공초에서 고부에서 일단 해산한 다음 왜 다시 기포하였는지 묻는 말에, “그 후 장흥 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읍에 와서 기포한 인민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열명하여 博促하며 그 가족의 집을 태우며 당사자라 하면 처자를 잡아서 살육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기실 1차 봉기는 단지 무장에 집결한 전봉준 중심의 3,000여 주력군만이 아니라 호서의 동학군 등 연합군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이다. 「초초문목」에서 전봉준이 어디에서 무리를 모았느냐는 물음에 전라도와 논산에서 규합하였다고 한 것이라든지,<sup>22)</sup> 진압군 대장 홍

19) 배향섭, 주7)의 논문.

20) 충청도 농민군의 1차 봉기 참여에 대해서는 박맹수, 「갑오농민전쟁의 종합적 고찰」,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한국사연구회, 1994, 참조.

21)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90-91쪽 참조.

22) 앞 〈初招問目〉

문: 너는 어디서 사람들을 모았느냐?

계훈이 ‘兩湖剿討使’의 직함을 Ep게 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서장옥의 제자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서장옥의 활동 중단 사태가 이들의 농민전쟁 기획에 일정 정도 수정을 가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서포’의 기포구상은 호남농민군의 지도부에 의해 일정 정도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고부를 제점령한 뒤 백산에 날리던 ‘동도대장’의 깃발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 4. 맺음말 : 고부기포의 역사적 의의

전봉준은 동학에서 협동일치와 결당하는 것의 중요함을 보고 그를 통해 보국안민의 업을 이루기 위해 동학에 들어갔다고 하였다.<sup>23)</sup> 그의 일차적 목표는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그 근원이 되는 중앙의 부패한 권력집단의 교체를 추구하며, 그를 통해 폐정개혁,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일반인들은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전봉준은 결코 이씨 왕조까지 폐기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sup>24)</sup>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한계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반봉건 반외세의 지향을 가졌고, 중앙권력의 교체까지 기도하였지만 근대사회 변혁에 대한 구상이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된다.<sup>25)</sup> 다시 말하면 전봉준은 ‘爲民除害’, ‘濟世’를 위해 기포, 武裝蜂起를 하였지만, 그 방법 자체는 본래 무력, 군사 활동으로써 보다는 조선왕조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정소운동으로써 하는 것이 바라는 바였으며

공: 전라도와 논산에서 초집하였다.

23) “단지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뿐이라면 물론 동학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경천수심’이라는 主義에서 생각할 때 정심 외에 ‘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당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동학대거괴심문속문』, 『東京朝日新聞』, 1895.3.6)

24) 「동학당 대두목적과 자백」, 『東京朝日新聞』, 1895.3.5 (2월 18일 경성 아오야마 발)

문: 너희들이 거병한 대 목적을 숨기지 말고 자상하라.

답: 원래 우리들이 병을 일으킨 것은 閔族을 타도하고 폐정을 개혁할 목적이었지만, 민족은 우리들의 입경에 앞서 타도되었기 때문에 일방 병을 해산했다. 그런데 그후 7월(음력)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없애려고 다시 병을 일으켰다. 단, 나의 중국의 목적은 첫째 민족을 무너뜨리고 한패인 간신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하는 데 있고, 또한 전운사를 폐지하고 田制 山林制를 개정하고 私利를 취하는 小吏를 엄중히 처단할 것을 원할 뿐이다.

문: 이제 500년으로 망한다고 하는 예언은 무엇인가?

답: 모두 이 예언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역시 이같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 왕을 폐해서 또한 누구를 추대할 것인가.

25) 김용섭, 「전봉준공초의 분석」, 앞 책, 198~204쪽.

이는 수천 년 체제유지의 교학이 되어 온 유교사상의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서, 신사회 신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봉준은 과거 민란이 가진 폭발적인 힘과 아울러 그것이 갖는 취약점(국지성, 고립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 조직을 통해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동학에 들어갔던 것이며, 그 내부의 지향은 결코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동학군의 균을 가운데 “孝悌忠臣이 사는 마을의 경우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않는다.”<sup>26)</sup>는 구절이 말해주듯, 그들의 언어는 유교적 언사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미 보은취회 단계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회와 같은 성격의 민회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7)</sup>

전봉준은 공초에서 고부에서 東學을 行教한 적은 없었고, 倡義로 起包하였으며, 자신을 동학 괴수라 일컬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민군 가운데는 동학은 소수이고 다수가 원민들이며, 접주는 동학이나 그 나머지 솔하는 충의의 선비가 많았다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선험적 평가나 결과론적 설명에서 나아가 '전쟁기획' 단계의 지향과 실천 과정의 경험 위에서 엮어가는 자기정체성의 변모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부기포'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는 한 계기로 파악되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26) 『東匪討錄』,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319~320쪽.

27) 그들이 서울로 올라와 조정에 고하여 탐관오리를 정치하겠다고 하기에 臣이 말하길, “이는 조정의 처분에 맡길 일이 지 어찌 너희들이 그같이 할 일이나”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길 “(그들의) 이번 모임은 아주 사소한 병기 하나 휴대하지 않았으니 이는 민會이다. 일찍이 듣건대 각 나라들에도 민회라는 것이 있어 조정의 정령 가운데 民國에 해가 되는 것을 회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니 이는 근자에 흔히 있는 일이다. 어찌 이를 匪類들의 행위로 몰아부치려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臣이 말하길, “너희들이 왕께 올릴 사정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해 와라. 그러면 내가 전달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서울로 올라가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渠欲上告朝廷 斥逐貪汚爲辭 臣曰 此在朝廷處分 汝等焉敢乃爾 又曰 渠等此會 不帶尺寸之兵 乃是民會 嘗聞各國亦有民會 朝廷政令有不便於民國者 會議講定 自是近事 豈可措爲匪類乎 臣曰 汝等若有上達底情事 成文狀以來 當爲之轉達 汝等切不可西上 警動京師也 : 『宣撫使再次狀啓; 魚允中兼帶』, 『東學亂記錄』, 국사편찬위원회, 1974, 123쪽).



## 동학농민혁명에서 茂長起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 동학농민혁명에서 茂長起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배 항 섭 | 성균관대학교

- 
1. 머리말
  2. 동학교세의 확산과 변혁지향 세력의 압도
  3. <교조신원운동> 및 <최왜양운동>의 전개와 거  
병가도
  4. <사발통문 거사계획>·<고부농민항쟁>과 “농민  
혁명” 기도
  5.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茂長蜂起의 의의
  6. 맺음말
-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에 들어 심해진 정치적 문란과 사회적 모순에 따라 빈발하던 민란의 연장선에서, 또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의 확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발발한 대규모 민중운동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동학의 확산과 변혁지향세력들의 압도, 동학을 활용한 수차례의 ‘반란’ 기도와 실패 등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무장포고문>이 발표될 수 있었다.

전봉준 등 변혁지향 세력은 이른바 “교조신원운동” 기간에만 하여도 2~3차례 정도의 ‘반란’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통해 전국적인 '반란'을 다시금 기도하였다.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농민항쟁>은 그 과정에서 준비되고 일어난 것이다. 전봉준은 <고부농민항쟁>을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하려고 의도하였으나, 인근 읍의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1894년 3월 20일 비로소 농민군은 대오를 조직하고 전라도 무장에 모여 <포고문>을 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은 시작될 수 있었다.

여기서는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무장포고문>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동학교세의 확산과 변혁지향 세력의 입도

동학은 1860년에 창도되었으나, 조정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18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히 포교되어 왔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충청도와 전라도의 평야지역으로까지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교세는 18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더욱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 무렵 급격히 증가한 호남지방의 교도들 가운데는 道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변혁지향 교도들이 적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교도들의 입도는 주로 무장·고창·영광·홍덕·고부·부안·정읍·태인·전주·금구 등 훗날 농민혁명의 중심 세력이 형성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sup>1)</sup> 전봉준은 체포된 후 동학에 입도한 이유에 대해 동학은 守心하여 충효로써 본을 삼아 輔國安民하자는 것으로, '守心敬天'이라는 教義를 매우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2)</sup> 또 일본영사가 취조하는 다른 자리에서도 동학에 입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輔國安民이라는 동학당의 主義에 동감하고 있던 바 ... 단지 마음을 바로 한다는 것 때문이라면

\* 이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책 『조선 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경인문화사, 2002)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1) 전봉준의 입도 시기는 1885년, 1888년, 1890년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鄭昌烈, 「고부농민항쟁 연구」, 『한국사연구』 48, 1885, 124쪽 참조) 전봉준 스스로는 1892년부터 동학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2) 「全禱準供草」 再招問目 『東學思想資料集』(1)(이하 생략), 333쪽.

물론 동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主意에서 생각할 때는 正心 외에 ‘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sup>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봉준이 이미 동학에 입도할 무렵부터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동학에 입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에 공감하였고, 확산되고 있던 동학에서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즉 마음을 바로 한 자들끼리의 ‘협동일치’와 ‘결당’의 가능성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곧 동학은 국지성과 고립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던 민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거기에는 마음을 바로한 자들, 곧 보국안민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할 동지들과 대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이나 손화중 김개남과 같은 변혁지향 세력이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리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던 민중들과 결합해 가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 3. <교조신원운동> 및 <척왜양운동>의 전개와 거병 기도

18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변혁지향 세력은 동학교단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전국적 항쟁을 기도하고자 하였다. 첫 단계가 교조신원운동이었다. 1892년 10월 17일경 서인주와 서병학이 주도하여 공주에서 교조의 신원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sup>4)</sup> 이때 동학교도들은 서학에 대한 반대, 日商의 미곡유출에 따른 폐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대하였지만, 요체는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동학교도에 대한 侵奪 금지 등 종교적 요구에 있었다.

이어 11월 3일에는 최시형이 교도들을 삼례에 집결시켰다. 공주집회 때와 유사한 요구를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全奉準이 이때부터 교단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부상한다는 점이다. 삼례집회에서 訴狀을 작성한 것은 徐丙鶴이었고 ‘魁首’는 徐仁周였다. 서병학에 의해 소장이 작성되기는 했으나, 탄압이 두려워 訴狀을 告로할 마땅한 사람이 없던 차에 자원해서 나선 인물이 바로 右道의 전봉준과 左道의 柳泰洪이었다.<sup>5)</sup>

3)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4) 「天道敎會史草稿」, 439쪽; 『東學書』, 57-60쪽; 「大先生事蹟」 『총서』 27, 237쪽; 「時間記」 『총서』 2, 175-176쪽. 「時間記」에서는 이때 모인 동학도의 수가 1,000여 명이었다고 하였다.

5) 崔炳鉉, 『南原郡東學史』, 1924.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때 全瑋準이 金開南·金德明·孫化中 등과 함께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교단의 지시와는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茂長郡守가 동학 교도들로부터 빼앗은 돈 1,000냥을 돌려받기 위해 수백 명을 이끌고 무장을 향해 갔다. 그러나 이들이 금구 원평에 도착했을 때 茂長의 座首와 吏房이 와서 돈 1,000냥을 되돌려주었으므로 비로소 해산하였다 한다.<sup>6)</sup> 이는 이미 삼례집회 시기부터 훗날 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김덕명 등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고, 또 독자적인 반탐학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경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주집회나 삼례집회 이후에도 동학금단에 따른 폐해를 중단시키겠다고 감영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최시형은 1892년 12월 6일 복합상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都所를 차렸다.<sup>7)</sup> 이어 2월 11일부터 13일에 걸쳐 朴承浩를 疏頭로 한 교도 대표 40명은 광화문으로 나가 상소문을 올렸다.<sup>8)</sup> 2월 13일 司諫을 통해 구전으로 “귀가하여 安業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는 국왕의 교지가 하달되자<sup>9)</sup> 최시형은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2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대부분의 교도들은 해산하여 하향하였다.<sup>10)</sup>

한편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복합상소 무렵부터 한층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복합상소> 무렵부터 京鄕 각지에서는 대대적인 척왜양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南原郡東學史』에 따르면 교단 측에서 복합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은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로 돌렸다. 창의문은 전라도 일대 각 군의 衙門에 나붙었으며,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지에서는 같은 시각에 방문이 붙었다.<sup>11)</sup> 이때부터 창의문이 나붙은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을 비롯한 전라도 각지의 인물들과 전봉준 사이에는 일정한 조직적 연계가 확보되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어 2월 8일 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경 전라도 參禮에서는 교도 수천 명이 모여 전라감사에게 또 다시 글을 올렸다(이하 제2차 삼례집회).<sup>12)</sup> 제2차 삼례집회는 1892년 11월의 제1차 삼례집회 직후 전라도

6) 南原郡宗理院, 『宗理院史附東學史』, 1924.

7) 『天道教會史草稿』, 446쪽; 『本教歷史』, 323쪽.

8) 『東學書』, 91~97쪽.

9) 『天道教會史草稿』, 452쪽.

10) 『海月先生文集』, 『총서』 27, 238쪽.

11) 『南原郡東學史』, 1924. 또 전봉준은 창의문을 돌린 후 복합상소에 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봉준은 복합상소에 참여하지 않고 전라도에 남아 척왜양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2) 이 사실은 李復榮, 『南遊手錄』, 癸巳 3월 8일, 『총서』 3, 126쪽; 金在洪, 『嶺上日記』, 癸巳年(1893) 2월 10일, 『총서』 2, 274쪽; 金允植, 『續陰晴史』 上, 3월 8일조, 258쪽; 『天道教會史草稿』, 453쪽; 『天道教書』, 『총서』 28, 226쪽 등에 언급되어 있으며,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06 東學派舉動情報의 件, 附屬書 2, 457쪽; 『東學文書』 『총서』 5, 63·66·70쪽; 『羅巖隨錄』 癸巳 2월, 『196. 東學黨與完伯書』; 『미국의교문서』(국방군사연구소 소장, 문서관리번호 SN-576) 1893년 4월 20일에는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무장 군수 등을 상대로 반탐학운동을 벌였고, 1893년 1월 10일경에는 전라도 일원에 ‘창의문’을 게시하였던 全奉準, 그리고 金開南·孫化中·金德明 등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례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사에게 척왜양을 주장하며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忠義로운 선비들을 선발하여 함께 輔國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sup>13)</sup>

이때 동학교도들은 척왜양 격문을 전라감사에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전라도 각 읍에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일본공사관 측에서는 삼례의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53개 군에 동일한 내용의 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5)</sup>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보은집회가 열리는 3월 11일 보은관아 문 밖에 걸린 패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sup>16)</sup> 둘째, 이전에 충청감사와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이나 복합상소문에서 주조를 이루던 교조의 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 종교적 요구가 사실상 사라진다. 셋째, 발신자의 명에서도 처음으로 “東學倡義會所”가 등장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斥倭洋을 통한 輔國이 강조되고 倭夷와 洋夷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었다. 공주집회에서도 西學에 대한 반대, 倭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반대는 있었으나, 왜양 자체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그를 직접 쳐부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은 없었다. 또 보은에 都所를 차린 직후인 1892년 12월에 정부에 보낸 〈朝家回通〉이나 복합상소문에서도 동학을 서학과 동일시하여 탄압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였지만, 외세 그 자체에 대해 ‘척왜양’을 명시하며 반대하지는 않았다. 격문 내용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동학교도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또 동일한 내용의 격문이 보은집회에서도 게시되었다는 점은 이때부터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세력에 의해 척왜양운동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척왜양운동은 전라도 삼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복합상소 직후부터 서울에 나붙은 이후 보은집회 이전까지의 시기에 지방 곳곳에도 나붙었다.

이상과 같이 척왜양운동은 1893년 1월 10일경 전봉준이 전라도 각지에 〈창의문〉을 띄우면서 그 단초를 보였고, 2월 8일 동학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 개최된

13) 경상도 예천의 유생 朴周大의 일기인 『羅巖隨錄』(癸巳 2月條, 「196. 東學黨與完伯書」)과 「뮤텔문서」(「東學文書」 『총서』 5, 63·66·70쪽) 등에 실려 있다. 또 1893년 4월 12일(음력 2월 26일) 조선주재 일본 변리공사 大石正己가 일본 외무대신 陸奥宗光에게 보낸 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06 東學派舉動情報의 件, 附屬書 2, 457쪽)와 4월 20일(음력 3월 5일) 조선주재 미국 변리공사 Augustine Heard가 본국에 보낸 외교문서(「미국외교문서」(국방 군사연구소 소장, 문서관리번호 SN-576), 1893년 4월 20일자)에도 『羅巖隨錄』이나 「뮤텔문서」에 실린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14) 「東學文書」, 『총서』 5, 66-69쪽. 「嶺上日記」, 癸巳年(1893) 2월 10일조, 『총서』 2, 274쪽. 또 “밤중에 방문을 붙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2월 9일 밤에 붙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재홍은 동학교도들이 밤중에 방문을 붙이고 列邑에 民擾를 선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였으나, 척왜양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가상하다고 평가하였다. 또 김재홍은 동학교도의 방문에 倭와 洋夷뿐만 아니라 淸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15)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126쪽.

16) 다만 중간 부분에 나오는 “壬辰年の 원수와 丙子年の 치욕”이라는 구절이 〈보은관아통고〉에는 “壬辰年の 원수와 丙寅年の 치욕”으로 되어 있다.

전라도 삼례집회와 복합상소 직후부터 경향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삼례집회를 개최한 세력이나 이와 연계된 인물에 의해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 각지에서 전개된 척왜양운동은 단순히 방문을 붙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척왜양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병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우선 「天道教會史草稿」에는 상경한 교단 대표들이 남소동 최창한의 집에 奉疏都所를 정하고 절차를 논의하던 중 동학교단의 대표보다 7일 앞선 2월 1일(吉日)에 상경하였던 서병학이 “意를變하여 隊兵과 協同하여 政府를 鑿打”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孫秉熙 金演局 孫天民 등이 반대하였으나 서병학이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7)</sup> 이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적인 행동을 모색해오고 있던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이 병란을 기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최시형도 1898년 5월에 체포된 뒤 복합상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들의 청원에 대한 (국왕의-필자)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중 한 사람이 ‘우리들이 군인으로 변장하고 먼저 閔泳駿의 집을 공격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였던 대중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다.”라고 하였다.<sup>18)</sup> 『東京朝日新聞』에서도 이때 동학교도들 가운데는 “일(복합상소)이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수도 漢陽을 불태우는 大事를 일으키고, 지방의 黨員도 호응하여 대혁명을 단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여<sup>19)</sup> 복합상소 이전에 모종의 거사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복합상소 시에 다른 대표보다 먼저 상경한 서병학이 서울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돈화의 「天道教創建史」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都所에 모여 相議할세 때에 徐仁周 徐丙鶴은 上疏하여 陳情할 뜻이 없고 教徒로 하여금 兵服을 換着게 하고 兵隊와 協同하여 政府奸黨을 掃蕩하고 크게 朝廷을 改革하기로 決定하였는지라(徐仁周先上京周旋) 이 秘密을 探知한 捕盜大將 申正熙가 警察을 道人旅宿에 派送하여 嚴密히 調査하거늘 神師가 이에 二人을 불러 그 不當함을 責하니 二人이 듣지 안는지라.<sup>20)</sup>

여기서는 서병학 혼자가 아니라 서인주와 서병학이 함께 정부간당의 소탕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며, 서병학이 아니라 서인주가 먼저 상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두 사람이 모두 일찍 상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문제는 이들이 먼저 상경한 뒤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간당을 소탕하려는 계획을 주선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복합상소>에 즈음하여 동학교단에서는 그 준비를 위해 서병학을 일주일 정도 미리 올려보냈다. 그러나 서병학은 <복합상소> 준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불평

17) 「天道教會史草稿」, 449쪽.

18) “Confession of a Tong Hak Chief”, The Korean Repository vol. 5(june 1898), 234~235쪽.

19) 「東學黨의事」, 『東京朝日新聞』, 1893年 4月 18日(趙景達, 『이단의 민중반란』, 암파서점, 105쪽에서 재인용)

20) 「天道教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2, 143쪽.

을 가지고 있던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조정을 개혁하려는 거사계획을 누군가와 사전에 밀모하여 두고 교조신원운동을 위해 상경한 동학교도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라도 삼례와 충청도 일대에서는 서울에서 밀의한 병란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복합상소 직전부터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정부나 官側に 보낸 이전 시기의 글과는 전혀 달리 척왜양을 주조로 한 통문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고 각 읍 관아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들에게는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일반 민인들에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알리는 통문을 보냈다. 전라감사에게 척왜양 통고문을 보내는 2월 10일 무렵 삼례에 회집한 교도들은 동학교도들에게도 통문을 보냈고, 일반 인민들에게도 효유하는 통문을 보냈다고 한다.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고 혹시라도 두려워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왜양을 剿滅하려는 것일 따름이고 平民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민간에 폐를-필자) 범한 자는 처벌할 것이다.<sup>21)</sup>

앞부분은 일반 민인들을, 뒷부분은 동학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 만큼 주도면밀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거사를 앞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실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무렵 척왜양 방문운동을 주도한 동학교도들 혹은 그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왜양을 물리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요체는 “금수 같은 倭洋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乘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忠義之士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다.<sup>22)</sup>

척왜양의 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충의지사’의 동참을 선동함과 동시에 일종의 행동강령까지

21) 『續陰晴史』 上, 3月 初8日, 258쪽.

22) 「東學文書」, 76~85쪽. 여기에는 “東學揭榜”, “東學掛榜”, “東學榜”이라는 제목으로 된 같은 내용의 방문이 3종류가 실려 있다. 방문이 게시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방문들은 복합상소 직후 일련의 척왜양 방문과 같은 시기에 나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언급한 「東京朝日新聞」과 「大阪朝日新聞」에서 남대문·동대문 등 요처에 나붙었다고 한 척왜양 방문 가운데는 이러한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개조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 근래 바깥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위로는 종사가 위태롭고 아래로는 (오랑캐의) 財色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비할 데 없이 통탄스럽다. 기필코 쓸어 없애버릴 따름일 것.
- ② 하늘을 받들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냄에 있어 장정을 가려 뽑지 않고 손에는 병기를 잡지 않으므로써 위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아래로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인민들은 안심하고 樂業하라. 혹시 충성을 본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舍力할 것.
- ③ 불효하고 不忠한 자와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는 도적임이 분명하니 우선 그를 討罪할 것이니, 개과 천선하여 후회하지 말 것.
- ④ 서화에 입도한 사람은 동방에서 태어나고 동방에서 자라 國君의 땅을 갈아먹고 선왕의 법을 따랐으면서 그 이름을 오랑캐의 나라에 붙이고 그 마음을 오랑캐의 땅에 두어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복무하니 어떤 마음에서인가? 매우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본래대로 돌아와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무렵 일부 교도들 간에는 척왜양을 명분으로 한 “거사”를 실제로 일으키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병란 기도는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1893년 3월에 개최된 보은·금구집회에서도 이어졌다. 최시형은 1898년 3월에 체포된 뒤 보은집회 당시의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중에 정부에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자, 교도들 가운데 몇 명—열 명 정도가 채 안되는—이 斥倭의 깃발을 세워야 하고, 보은에 모여 반란을 시작하고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 제의는 반대에 부딪혔고 우리가 취할 여러 가지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선유사 어윤중이 와서 해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였다. 그의 두 번째 효유에 우리는 해산하였다.<sup>23)</sup>

이것은 보은집회 당시 교단 내부에서는 척왜양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키지는 쪽과 그에 반대하는 쪽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척왜양을 내건 반란 기도는 실패하고 만다. 이후 전봉준 등 지도부는 전국적 항쟁을 위한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게 된다. 1893년 말에 나온 〈사발통문 거사계획〉은 바로 그러한 모색의 결과였다.

#### 4. 〈사발통문 거사계획〉·〈고부농민항쟁〉과 “농민혁명” 기도

보은·금구집회 이후 전봉준은 조정의 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다. 그것은 바로 민란의 확산을 통해 전라도 전 지역의 봉기, 나아가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구상하고 추진한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농민항쟁이다.

먼저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알려주는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24)</sup>

- 一. 古阜城을 擊破호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호실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의게 阿諛호야 人民을 侵漁호실 貪吏를 擊懲호실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호고 京師로 直向호실 事

23) Confession of a Tong Hak Chief, “The Korean Repository”, vol. 5, 234~235쪽.

24) 「전봉준자료집」, 『나라사랑』 15, 1974, 134~135쪽.



위의 결의사항을 볼 때 그 대체적인 구상은 조병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고부에서 민란을 일으킨 다음 인근 읍의 ‘난민’을 규합하여 전주성을 함락하고, 여기서 전라도 일대의 변혁 세력을 규합하여 서울로 직향하여 탐관오리를 축출한다는 구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부농민항쟁에서는 제4항에 제시해 놓은 바 전주성의 함락과 京師直向을 기도한 바 없다. 그러나 중앙 권력을 목표로 한 봉기계획은 이미 일찍부터 전봉준의 머릿속에는 구상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이미 1893년 1~2월 무렵부터 일련의 “반란”을 기도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경사로 직향하는 일이 당장 실현되지 못했지만,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계획은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나타난 바 ‘반란’의 순차적인 전개에서 최종 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위의 봉기계획은 고부농민항쟁에서 당장 기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 권력을 목표로 한 전국적 항쟁은 <농민혁명 봉기계획> 이전 단계부터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 간에 구상되어 있었으며, 고부농민항쟁은 그러한 구상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보은·금구집회에 비추어볼 때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보은·금구집회에서 전면에 제기되었던 척왜양 구호가 사라지고 ‘반봉건’적 성격의 구호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던 모습이 사라지고 고부라는 특정 고을을 기반으로 교단 지도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운동을 추진하려 한 점이다. 셋째, ‘輔國安民’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추진 구상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는 곧장 서울로 가서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발통문 거사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고부성을 점령하고 이어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 서울로 쳐들어가는 경로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는 변혁 세력의 의식과 조직 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보은·금구집회를 겪은 이후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 간에 지역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吳知泳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各地 道人이 解散 以後에 各地 官吏들의 東學黨 逮捕侵虐이 前日과 조금도 다름없어 安居의 望이 없는지라 道人들은 할 수 없이 官屬과 對抗策을 講究할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음을 알고 各包各接이 서로 團結을 지어 어느 지방에서 일이 생기든 하면 그 卽時로 보발을 띄워 그 부근 그 부근으로 부터 솔밭을 흔들고 일어서서 잡혀가는 사람을 빼앗아 놓기로 하였다.<sup>25)</sup>

관리들이 교도들을 체포해 가면 각 포·각 접이 서로 연락하여 잡힌 사람을 빼앗아 가는 일

25) 「東學史」(간행본), 443쪽. 「東學史」(草稿本)에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고부농민항쟁 이후의 기사 속에 혼입되어 있다. “당초 관리측으로부터 … 東學黨 잡는 것을 돈벌이로 알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限이 없고 돈양은 限이 있어서 許多한 東學軍에 許多한 歲月을 두고 돈이라는 것을 이루 다 當해내는 수가 없었음에야 어찌 하리오. 죽기는 마찬가지니 차라리 힘으로써 對抗하지는 議論이 成立되어 古阜, 扶安, 井邑, 泰仁, 高敞, 茂長 등 各地에 있는 東學黨들은 特別한 團結을 지어 어느 方面에서든지 일이 있는 時는 地境地境마다 枹발을 세워 奇別이 가는 대로 晝夜를 不分하고 일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法을 만들어 되던 것이다”(「東學史」(草稿本), 450~451쪽).

이 많아진 것은 그러한 자구책의 표현이었다. 이와 짝하여 변혁지향적인 교도들의 변혁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때쯤은 도인이 모여 앉으면 道談보다도 난리 이야기가 많았다”는 데서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sup>26)</sup> “도담보다도 난리를 이야기하는” 변혁지향적인 세력들은 고부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연계를 획득해 나갔다. 이들은 점차 단결을 통해 ‘힘으로 대항’한다는 항쟁의 싹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척왜양 운동 이후 전라도 일대에는 변혁지향 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농민항쟁 단계에 와서 중앙권력을 투쟁대상으로 삼는 전국차원의 항쟁을 기도하면서도 ‘척왜양’ 구호를 탈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지도부가 내건 구호와 민중의 내면의 요구가 일치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은·금구집회까지도 지도부가 내건 ‘斥倭洋倡義’ 구호와 민중의 의식 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을 거치는 동안 거기에 참여했던 교도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성장하였다는 점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조신원운동은 집회에 참가했던 대중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공주·삼례집회에서는 각지에서 모여든 교도들이 직접 감사와 담판하였으며, 복합상소에서는 국왕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보은·금구집회는 복합상소에서 제시한 국왕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척왜양 구호를 전면으로 내걸고 일으킨 전대미문의 ‘대규모시위’였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민란과는 격을 달리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은 각지에서 모인 민중들의 경험이 집단적으로 교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바뀌어져 가는 세상을 체험하는 자리였다.<sup>27)</sup>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혁주체로 자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변혁지향 세력의 의식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변혁주체로서의 자각을 결여하고 있던 교도들에게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이는 곧 이전까지는 王化의 대상, 牧民의 대상이라는 의식, 혹은 민란에서 보이듯 王法을 어기는 지방관에 반발하는 정도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내외의 적을 제거함으로써 宗社를 지키고 聖道를 밝히는 주체임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26) 위와 같음.

27) 이러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접촉, 교류하던 시장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주목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서촌의 어민과 동촌의 농민이 鹽魚와 곡물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하루는 관습을 달리하는 각읍의 인민이 서로 모여 정치적으로 위협하다는 소문, 收稅官吏가 가혹하다는 불평, 怪力亂神에 관한 마을의 이야기, 祭式葬禮, 혼례의 풍속, 가족의 안부, 생활상의 잡사 등으로부터 혹은 某村에는 천하의 대학자인 某 진사가 있다거나, 某邑에서는 마부와 외지인의 싸움이 있었다거나, 某鄉에서는 유령이 나왔다는 등 다양한 인민들이 서로 하루 동안 잡담을 하며 각읍의 교제, 각자의 친선을 맺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사교의 一機關임을 알아야 하고(하략)”[菊池謙讓, 1896, 『朝鮮王國』, 民友社(東京), 243쪽]. 시장이 가진 민중운동의 場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鶴園裕, 「李朝後期民衆運動の二・三の特質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1990. 참조.

28) 전봉준의 경우 입도할 때에 이미 보국안민의 핵심으로 왜양이라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조정의 奸黨을 척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고, 그 스스로를 보국안민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상대적으로 변혁지향 교도들도 아직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하였다기보다는 다만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濟世安民’의 뜻을 다져나가는 한편<sup>29)</sup> 보은·금구집회 이후 전라도 일대의 지도자급 인물들=동학의 변혁지향 접주들 간에 교류해 나가던 전봉준 등이 척외양운동 단계를 조직과 구호 면에서 양상을 전혀 달리하는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구상한 것은 이와 같이 변혁지향 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조직과 의식 양면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고부농민항쟁이었다.

따라서 고부농민항쟁은 처음부터 민란의 양상도 여느 민란과 다른 점이 많았다. 관아를 점령하여 탐묵한 이서배를 懲治하였으며, 창고를 털어 곡식을 나누어 가지는 등 ‘난민’들로서는 요구하던 바를 일정하게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민란이 장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속된 것도 바로 전봉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sup>30)</sup> 14일까지 가담한 사람이 15개 마을 1만여 명이 이르자 장정을 선발하고 노약자는 귀가시켰으며, 각 촌락마다 5명의 대표가 이들을 통할하였다. 1월 17일 난민들은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가지고 1월 17일 말목장터로 옮겨서 주둔하였다. 여기서 지도부는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고,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白山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sup>31)</sup> 말목장터로의 이동과 백산성의 축조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민란이 발발한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인근 읍의 호응이 없자 일단 장기전의 태세를 갖춘 것이다. 둘째, 전봉준 등 지도부는 이미 대규모의 봉기로 돌입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 근거지로 백산을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란이 전봉준의 뜻대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고부농민항쟁의 발발은 곧 ‘경사직항’을 최종 목표로 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의 착수를 의미하였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엇보다 인근 읍의 지도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발하였기 때문에 이웃 읍의 호응도 받지 못하였다.

<全瑋準實記>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고부농민항쟁이 끝난 다음 전봉준이 손화중을 찾아간 데 대해, “부하를 잃은 (全)瑋準이 품소 방문하여 구원을 청함에 (孫)化中은 時機尙早를 역설하였으나 전씨의懇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sup>32)</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봉준의 요청에 대해 손화중이 거부나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時機尙早’라는 의견을 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이들 간에 이미 이전부터 어떤 식으로든 봉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봉기에 필요한 조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봉기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부농민항쟁이 일어났음을 동시에 보여준다.<sup>33)</sup>

29) 전봉준은 스스로 자신은 “安民하는 데 간절하여 貪虐을 보면 不勝憤歎”한다고 하였고(「全瑋準供草」 再招問目, 329쪽), “세상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기에 憤然하여 한번 濟世하기 위해”(위와 같음, 332쪽) 擧事하였다고 밝혀 ‘濟世安民’을 향한 그의 뜻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30) 巴溪生, 「古阜民擾日記」, 54쪽.

31) 張奉善, 「全瑋準實記」, 『井邑郡誌』(『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 1, 여강출판사, 1991에 재수록), 353쪽.

32) 張奉善, 앞의 글, 354쪽.

33) “(전봉준이) 고부농민항쟁에 달려가기 몇 일 전 서너 명이 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인물들로서 후에 알고 보니 모두 동학당의 중요 인물이었다.”는 菊池謙讓의 탐문 내용도 고부농민항쟁 발발 직전까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의 ‘수행비서’로 활동하였다는 김홍섭의 회고에 따르면 전봉준은 1893년 12월 10일 무장군 동음치 당상리(현 고창군 공음면)의 宋文洙씨 댁에 잠시 몸을 피신해 있으면서 동학접주 손화중, 김성칠, 정백현, 송문수 등 네 사람과 자리를 같이하고 전라감사 김 문현의 폭정에 맞서 거의할 것을 모의하였다고 한다. 또 그 후 1894년 2월 19일에는 당시 동음면 신촌리에 있던 김홍섭의 집에서 다시 모여 거의 준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은 앞서 언급한 손·김·정·송씨 외에도 김개남·서인주·임천서·김덕명·강경중·김영달·고영숙·최재형 등 각 읍의 접주들이었다고 하였다.<sup>34)</sup> 이러한 회고 역시 1894년 2월 19일 적어도 이 전까지는 전봉준과 주변 읍의 손화중 김개남 등 지도자급 인사들 사이에 거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부농민항쟁이 일어나자 태인의 최경선·정읍의 손여옥 등 인근 읍의 인물들도 일부 참가하였지만,<sup>35)</sup> 조직적인 호응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隣郡 도처에서 동정을 표하여 대체로 악평하는 지는 없었”으나, “아직 자진하여 이들에게 합세하여 자기 머리 위의 악정을 없애려는 자”도 없었던 것이다.<sup>36)</sup> 또 ‘난민’들과 지도부 사이에는 아직 의식상의 간극이 있었다. 관아를 점령한 후 창고의 곡식을 털어 나누어 가지는 등 그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관철되자 ‘난민’들은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sup>37)</sup>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민란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개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인 2월 20일경 민란을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봉기계획’을 실현에 옮기고자 전라도 각지로 보낸 ‘倡義檄文’이다.<sup>38)</sup> 『南遊隨錄』에는 그 대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守牧之官은 治民의 道를 모르고 生貨의 本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轉運營이 창설됨으로써 폐단이 煩劇하여 民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草野의 遺民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坐視할 수 없다. 원컨대 各 읍의 여러 君子들은 齊聲奔義하여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sup>39)</sup>

지도 전봉준과 인근 동학접주들 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菊池謙讓, 앞의 책, 171-172쪽).

34) 중앙일보, 1965년 10월 30일.

35) 甚至於悖譎之輩 言壽張興訛旁嗾隣邑浮浪之徒(『日省錄』, 高宗 31年 2月 22日). 상주와 선산에서도 농민들이 관아로 쳐 들어가 무장한 다음 고부로 와서 합세했다는 기록도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8쪽).

36) 巴溪生, 앞의 글, 54쪽.

37) 東學人全明肅者往投之 自爲狀頭之計 曰吳輩若不成所求 反受其禍 不加遽散 遂取官倉米食之 營邑許其所求 諸民曰吳成吳求去矣(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4月 9日, 『총서』 3, 193쪽).

38)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2月 20日, 『총서』 3, 180-181쪽. 종래에는 巴溪生의 「古阜民擾日記」, 黃玆의 「梧下記聞」 등을 이용하여 2월 22일 전후인 것으로 추정했으나(정창렬, 앞의 글(하), 1985, 126쪽), 『南遊隨錄』에서는 고부에서 각지로 격문을 돌린 사실을 2월 20일조에 기록하고 있어서 늦어도 2월 20일 이전에 격문이 飛傳된 것으로 보인다.

39)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2月 20日, 『총서』 3, 180-181쪽.

「古阜民擾日記」에도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 58주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 목적은 다만 1군의 이해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釐革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兵米向은 먼저 郡倉의 세곡을 빼앗아 이에 충당한다는 것이다.<sup>40)</sup>

이것은 명백히 민란의 차원을 넘어서는 ‘舉義’를 선동하는 격문이다. 이 격문은 각 고을 관리들의 탐학뿐만 아니라 전라도 일대의 다른 고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轉運營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일개 고을 범주를 명백히 벗어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민란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 격문이야말로 공개적으로 ‘보국안민’을 위해 일제히 일어날 것을 각지에 촉구하는 최초의 ‘倡義直言’인 것이며,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사실상의 농민혁명을 기도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여기서 제시된 내용이 척왜양운동에서와 같이 ‘반외세’에 경사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輔國安民’을 위한 ‘倡義’의 목표에서도 척왜양 구호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齊聲奔義’의 당위성을 탐학한 지방관과 전운영의 폐해의 제거에 두고 있었다. 공주·삼례 집회 때부터 교도대중들의 기저에 깔려 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전면내 내건 것이다. 척왜양운동 단계와 달리 구호가 목적이 일치된 것이다.

2월 25일에는 말목장터에서 백산으로 이동하였고,<sup>41)</sup> 이어 전봉준은 ‘난민’들에게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轉運使 趙弼永을 징치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2)</sup> 격문을 날린 데 이어 일대의 많은 고을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던 폐해의 근원인 전운영을 공격함으로써 인근 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sup>43)</sup>

그러나 ‘난민’들은 전운영 공격을 꺼려하였다. 그것은 민요가 越境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고, ‘난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다.<sup>44)</sup> ‘난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반적인 민란의 양상을 벗어나는 항쟁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과 지도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5)</sup> 대부분의 ‘난민’들의 목표는 조병갑을 축출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재물을 환

40) 巴溪生, 앞의 글, 56쪽.

41) 巴溪生, 앞의 글, 56쪽.

42) 張奉善, 「全琿準實記」, 356쪽.

43) 이 무렵 교부의 난민들이 부안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떠돈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쪽).

44) 張奉善, 앞의 글, 353쪽. 민요와 난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5) 金邦善의 『林下遺稿』에도 지도부와 민란중 민간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全明叔等懼禍及身 收民家銃奪民家農器 造鎗劍之屬 爲拒逆官軍之計 民有識見者 疑其作亂 新郡守朴源明 請鄭一西金道三 誘以禍福 解散衆民 全明叔知事不成 率砲軍五十名 往投茂長東學人孫化中(『충서』 5, 21~23쪽). 이때 고부농민항쟁의 난민들 간에는 적지 않은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토사 홍계훈의 보고에 따르면 고부민들 사이에는 전봉준을 감영에서 온 수교와 함께 체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였다(『兩湖剿討臚錄』 『東學亂記錄』 上, 167쪽).

수하는 데 있었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일반적인 민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난민’들의 의식은 결국 신임 고부군수로 부임한 朴源明의 효유가 쉽게 奏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sup>46)</sup>

이어 3월 1일 전봉준은 수백 명의 ‘난민’을 동원하여 줄포의 稅庫를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기도 하였다.<sup>47)</sup> 그러나 인근 읍의 호응은 없었다. 아직까지 인근 지도자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전봉준의 격문에 호응을 하는 인근 읍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각 고을에서 ‘舉義’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시일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신임 군수 박원명의 효유가 奏效하여 3월 3일경이면 그렇지 않아도 민란 수준을 뛰어넘는 항쟁을 반대하던 ‘난민’들은 해산하기 시작하고,<sup>48)</sup> 3월 13일이면 완전히 해산하였다.<sup>49)</sup> 전봉준은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sup>50)</sup>

그러나 전봉준의 〈輔國安民倡義〉 격문이 날아간 열흘 정도 뒤인 2월 말부터 고부 인근 읍에서 농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월 29일(양력 4월 4일) 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 리 떨어진 곳(금구 원평 일대<sup>51)</sup>)에 동학당이 모여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sup>52)</sup> 3월 11, 12일 경 동학당 약 3,000여 명쯤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가는 것을 태인에서 볼 수 있었다.<sup>53)</sup> 또 전봉준은 3월 10일 무렵부터 사냥꾼들로부터 총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sup>54)</sup>

3월 16일에는 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부터 3월 18일에 걸쳐 사방에서 몰려와 1,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黃玑는 “右道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과 ‘난민’이 함께 어우러진 것은 이때부터였다. … 봉준 등은 茂長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sup>55)</sup>라고 하였다. 우도 10여 읍이라는 데서 볼 때 이때 움직인 농민들은 주로 고부농민항쟁 이전부터 지역 간의 조직적 연계의 단초를 보이고 있던 고을의 동학교도들이었다. 또 열흘 동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한 데서 이미 전봉준이 고부를 떠나 손화중에게 가기 이

46) 張奉善, 앞의 글, 354쪽.

47) 巴溪生, 앞의 글, 57쪽.

48) 張奉善, 앞의 글, 354쪽.

49) 정창렬, 앞의 글(하), 113쪽.

50) 金邦善, 「林下遺稿, 甲午 9月 日 濟行日記, 『총서』 5, 21~22쪽; 『金洛鳳履歷』 3면.

51) 죽산에서 동쪽 40리 되는 곳은 바로 금구 원평 일대이다(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7~128쪽 참조).

5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8쪽.

5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3쪽. 여기서는 “대장으로 추대된 자는 田明述이라 하며 연령은 40세 가량으로서 복장은 보통이었다”고 하여 전봉준 부대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侍天教歷史」, 614쪽에는 3월 17일 손화중이 수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태인, 부안 등지를 순회한 것으로 나와 있다.

54) 이때 전봉준은 평을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는 말로 사냥꾼들을 유인하여 총기를 탈취하였다고 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0쪽).

55) 黃玑, 「梧下記聞」 首筆, 52쪽.

전인 3월 10일경부터 인근 읍의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부농민항쟁은 인근 읍의 지도자들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의 폭발 이후 계획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무렵 전봉준이 각지에 격문을 보낸 지 열흘 뒤인 2월 말부터 인근 읍에서 '舉義'의 움직임이 가시화하였다. 이어 고부에서 퇴각한 전봉준이 순화증을 찾아가서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3월 10일경부터는 인근 읍에서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해 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부농민항쟁이 정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끝내 민란이 해산한 뒤에야 전국적인 항쟁을 지향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 요인은 우선 按察使 李容泰의 만행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sup>56)</sup> 무엇보다 전봉준의 노력에 의해 인근 읍의 호응이 이루어졌다는 점,<sup>57)</sup> 곧 지역 간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월 20일 무렵에는 전라 각지에서 모인 농민군이 4,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舉義'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일정하게 갖추어지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드디어 3월 20일에 茂長에서 농민전쟁을 알리는 〈布告文〉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茂長蜂起의 의의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사람에게 인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 父子는 바로 인륜의 요체로 임금은 어질고 신하된 자는 정직해야 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가정과 국가가 이루어지고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총명한 정신과 뛰어난 예지를 겸비하신 분으로 만약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가 보필한다면 堯舜의 德化와 漢나라 文帝와 景帝의 政治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56) 전봉준은 공초에서 “其後의 長興府使 李容泰가 按察使로 本邑의 來하여 起包한 人民을 東學이라 通稱하고 列名하여 捕捉하며 其家舍를 燒灰하며 當者가 (無)하면 妻子를 捕하여 殺戮을 行하는 고로 다시 起包하였나이다”(「全捧準供草」 初招問目, 313쪽)하여 이용태의 만행이 재차 기포한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판결문에도 “작년 3월 상순에 領率其徒하여.....일이치에 作梗한 후 한번 해산하였으나, 其後 按察使 장흥부사 이용태가 먼저 작경한 것은 다 동학당의 所爲라 하고 동학 修道하는 자를 잡아 살육을 과히 하므로 이에 피고가 다시 其徒를 규합하여 모병하 되.....其徒 4천여 명을 얻어가지고 각기 소유한 흥기를 가지고 양식은 其 지방 富民에게 徵擄하여 是年 4월 상순 분에 피고가 친히 其徒를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처를 갈새”라 하여 이용태의 무고한 살육으로 무장에서 기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57) “(전봉준이) 민요를 야기하다가 事不如意하여 茂長郡 孫化中을 運動하여”라는 표현은(「金洛鳳履歷」, 3면) 인근읍의 호응을 불러일으키 위한 전봉준의 노력을 보여준다.

자들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벼슬자리만 탐내며 (국왕의) 충명을 가린 채 아침을 일삼고 있다. 忠諫하는 말을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적 때라 일컫는다. 조정에는 국가를 도울 만한 인재가 없고 조정 밖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변하여, 집에서는 즐겁게 종사할 생업이 없고 나가서는 제 한 몸 간수할 방책이 없건만 가혹한 정치는 날로 심해져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이미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옛날 管子는 “禮義廉恥가 실행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한 점이 있다. 公卿 이하 方伯守丞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낱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마치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것은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다한 돈과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의 채무는 늘어가는데 그것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음탕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다. 팔도가 죽음의 빛이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지만, 저 가혹한 지방관들의 가혹한 학정은 더욱 그러함이 있으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보국안민의 방법은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지으며 오직 저 혼자만 잘될 생각으로 벼슬자리만 엿보는 것이 어찌 올바른 정치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없는 백성들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사는 까닭에 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세를 하였다. 급일 이러한 광경은 놀랄 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여 다 함께 임금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음.<sup>58)</sup>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方伯守丞으로부터 중앙의 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지배층의 총체적 부패상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부패로 인해 국가가 처한 존망의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맹세하고 나선다는, ‘보국안민’을 이룰 수 있는 주체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 등이다. 농민군이 궁극적으로 목적인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逐滅~~逐~~夷 및 盡滅~~盡~~權貴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자 과정이었다. <포고문>은 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제대로 함축하고 있으며,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포함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不殺人 不殺物 ② 忠孝

58) 『隨錄』 茂長縣階上東學人布告文,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 5, 157~159쪽; 『茂長布告文』, 『東學亂記錄』 上, 142~143쪽; 『梧下記聞』, 『총서』 1, 52~54쪽; 『東學文書』 茂長縣東學布告文, 『총서』 5, 136쪽; 『東匪討錄』 東學輩布告文,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1894년의 農民戰爭篇』(이하 생략), 303~304쪽; 『東學史』 倡義文, 『東學思想資料集』 2(이하 생략), 464~465쪽; 『東學史』(초고본), 창의문(內譯), 『총서』 1(이하 생략), 452~453쪽; 『羅巖隨錄』 茂長東徒布告文, 『총서』 2, 382~283쪽;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5~206쪽 참조.



雙全 濟世安民 ③ 逐滅倭夷 澄清聖道 ④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 이어 농민군들은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올랐다.<sup>59)</sup>

##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봉기>는 길게는 19세기 이래 빈발해온 민중운동의 총거결이었고, 짧게는 1893년 초부터 변혁지향세력이 기도한 중앙권력의 타도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병” 노력, 그리고 1893년 말 전봉준이 주도하여 마련한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 농민항쟁의 결과였다.

동학과 결합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이미 척왜양운동 시기부터 중앙권력 타도를 목표로 한 거사를 수차례나 기도하였다. <사발통문 거사계획>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추동하기보다는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적 조직을 기반으로 삼아 농민혁명을 기도하였다. 또 전면에 내세운 구호도 척왜양이 아니라 민중적 이해를 수용한 “반봉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무엇보다 <무장포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전봉준은 고부농민항쟁을 통해 전국적 항쟁을 기도하였으나, 손화중 등 인근 지도자들과의 사전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고부농민항쟁은 3월 초순에 들어 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의 사정은 <전봉준실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전봉준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가서 “구원을 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화중은 “時機尙早”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전봉준과 뜻을 합쳐 농민혁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 결과 고을 단위를 뛰어넘어 전라도 각 지역에서 농민혁명을 수행할 의식을 일정하게 갖춘 농민군이 무장으로 모였으며, 마침내 3월 20일<sup>60)</sup>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문>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점에서 무장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었으며, 무장에서 발표된 <포고문>은 지배층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고통받던 민중의 분노,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터져 나온 커다란 울림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은 그 자체로도

59) 『大韓季年史』, 『총서』 4, 363쪽;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292~293·295쪽. 『大韓季年史』에는 4대 명의가 3월 25일에 내걸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내용의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 6만 명의 농민군을 불러 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 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여 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 시에 4대 명의를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時事新報』에도 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

60) 무장기포에서 농민전쟁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慎鏞廈,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참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중세 혹은 중세 말기에 발발한 대규모 민중운동에서 자신들의 거의 동거나 목표를 명확하게 이처럼 명확하게 천명하고 시작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9세기 중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중운동이 태평천국운동에서도 홍수전은 1851년 1월 11월 金田에서 배상제회 교도들을 모아 놓고 태평천국의 성립을 선언하고 자신은 천왕임을 선포하였다. 태평천국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이날을 태평천국운동의 시작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起義가 시작된 이날 태평천국군에서는 특별한 다른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청초에 대한 호소력 있는 비판론이 마련되거나 발표되지도 않았다.<sup>61)</sup>

1381년 영국의 와트타일러 난은 10만여 명의 농민군이 봉기한 중세 영국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다. 그러나 운동은 곳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왔으며, 그것이 모여 대규모 반란으로 비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봉기가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문이나 포고문은 없었다. 전개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 조건이 수차례 제시되었을 따름이다.<sup>62)</sup> 사정은 독일농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토마스 뮌저는 평소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였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을 때는 역시 그들의 봉기 목적이나 현 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을 발표할 사례가 없다.<sup>63)</sup> 이점은 서구 중세의 수많은 청년왕국운동 등 대규모 민중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64)</sup>

이 점에서 무장포고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우 조직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으며, 자신들의 봉기 목적, 현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등이 이 처럼 당당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글은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61) 조병환 편저,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 인간, 1981, 73·221쪽;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 『강좌중국사V』, 1989, 91쪽; 조너선 D. 스펜스, 양휘웅 옮김, 『신의 아들 : 홍수전과 태평천국』, 이산, 2006, 227쪽.

62) J. F. C. 해리슨, 『영국민중사』, 소나무, 1984.

63)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혁명사 2부작』, 소나무, 1988.

64) Mollat, Michel, Wolff, Philippe, 瀬原義生 譯, 1996, 『ヨーロッパ中世末期の民衆運動 : 青い爪, ジャック, そしてチオンピ』, ミネルヴァ書房; Paul Freedman, 1999, Images of the Medieval Peasant, Stanford University Press; 노만론 지음, 김승환 옮김, 『천년왕국운동사』, 한국신학연구소, 1993.

## 황토현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 황토현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조 광 환 |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글을 정리하면서

1. 황토현전투 전개 과정
    - 1) 백산 기포 이전 동학농민군의 동향
    - 2) 황토현전투 이전의 동향
    - 3) 황토현전투 상황
  2. 황토현전투의 성격 및 의의
  3. 황토현전승일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 1) 최근 학계의 동향과 무장봉기설에 대한 문제 제기
    - 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황토현 전승일
- 

### 글을 정리하면서

1894년 고부고을의 농민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로 펼쳐 일어나, 이 땅의 민중들이 역사의 주인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비록 좌절되었지만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통해 성장한 농민 대중이 스스로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자각하여 조선왕조의 착취와 폭정을 타파하고 일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민족민중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는 결국

1910년의 국권강탈과 이로 인한 한국 근·현대사의 굴절로 이어졌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역시 철저하게 왜곡되어왔다. 일제치하와 해방 직후에 일정 부분 한계를 안고 있긴 하지만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을 필두로 임화, 이청원, 전석담, 박경식, 강재언, 김용섭 등의 학자들의 학술연구와 채만식의 소설 '제향날', '어머니', '옥랑사' 등의 발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미미하게나마 있었다.

해방의 혼란을 겪은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반봉건 민주정신과 반외세 자주정신인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1963년 정읍 황토현에 '동학혁명기념탑'을 건립하면서부터이다. 가람 이병기 선생, 김상기 박사, 최현식 선생 등과 뜻있는 지역민들의 노력에 더해 군부독재 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묵인 내지는 협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재조명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간의 연구동향을 주제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동학사상의 내용과 그 성격, 둘째 동학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 셋째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성격, 넷째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주체세력, 다섯째 동학농민혁명의 지향성 문제, 여섯째 동학농민혁명 이후 잔존 농민군의 동향, 일곱째 각 지역별 사례연구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밝혀지고 또 기존 연구의 오류가 바로잡히는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가 미진한 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황토현전투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동학농민혁명 과정 중 그 일부인 황토현전투를 다루는 것이 협애하다 할 수 있으나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최초의 전투인 황토현전투와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승리가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향방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황토현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또 당시 상황에 대한 동학농민군 측의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으며 관측 자료 또한 상반되는 부분<sup>1)</sup>이 있기 때문에 관련 책자마다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이의 정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 본고에서는 황토현전투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 황토현전투가 당시 정부와 농민군, 그리고 민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농민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황토현전승일이 역사성, 상징성, 대중성, 현재성 등의 객관적 기준에 가

1) 『東徒問辯』과 『東學史』에는 황토현이 아닌 백산에서 접전한 것으로 나오며 관군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상일기』에는 고부 두승산에서 접전하였으며 관군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가하면 『甲午略歷』에서는 백산에서 접전하였으나 농민군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나오며, 『兩湖招討錄』과 『전봉준실기』에는 황토현에서 접전한 것으로 나오나 농민군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나온다.

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 1. 황토현전투 전개 과정

### 1) 백산 기포 이전 동학농민군의 동향

전봉준, 서장옥 등 사회변혁 세력은 최소한 1892년 삼례집회 때부터 강한 혁명의 의지를 지녔으며,<sup>2)</sup> 1893년에 있었던 사발통문거사계획<sup>3)</sup> 이전에 봉기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를 놓고 의견이 달라 전봉준은 손화중, 김개남이 아닌 조병갑의 탐학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고부농민들과 함께 1894년 정월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후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를 이끌던 1894년 2월 20일경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쫓기를 촉구하였다.<sup>4)</sup> 한편 전봉준과는 달리 혁명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한 고부농민들의<sup>5)</sup> 해산으로 말미암아 전봉준은 불가피하게 茂長으로 달려가 손화중을 설득하여 고창 林川에서 일어났으며, 앞서 보낸 격문에 의해 무장 및 영광 일대에서 모여든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군 또한 茂長 구수 마을서 집결한 후 약속된 장소인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태인과 부안 등지에서도<sup>6)</sup> 고창 林川과 茂長 九水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장소에

2) 천도교 남원교구장으로 있던 崔炳鉉이 1924년에 저술한 『宗理院史附東學史』를 보면 “소삼십삼년 壬辰秋(1892)에 대선사신원차로 各道敎人이 전주 삼례역에 집회할 時에 本郡(남원)道人 數百이 往奏하여 義訟할새 官리의 압박 위협으로써 訴狀을 告로할 人이 屢서서 疑訝惶怨中에 左道에 柳泰洪 右道에 前봉준씨가 지인 출두하여 官廳부에 訴狀을 提呈則 觀察使가 營將 金始豐을 命하여 出兵散會하였고 또 소삼십삼년 癸巳(1893) 정월에 前봉준의 文筆로 倡義文을 著作하여 各郡衙門에 게시할새”라고 밝혔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東學黨 騷亂原因 調査結果報告書 送付의 件(1894년 양력 5월 13일 일본군 19대대장 南小四郎의 보고서), 國史編纂委員會 번역본, 조경달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역사연구』 제2호, 거름, 1993, 24쪽에서 재인용하였다. 또 이러한 사실은 金邦善, 「林下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5, 여강출판사, 1994, 22쪽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全羅道에서는 徐長玉을 首로하고 忠淸道에서는 崔태후를 首로 하는데 이들은 모두 濟愚의 弟子들이다.”라고 하여 이의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 1893년 11월 전봉준이 정읍의 손여옥, 태인의 최경선 등 농민대표 20인과 함께 古阜 西部面 竹山里 宋斗浩 家에서 봉기의 거사계획을 수립한 사건으로, 이때 20인의 주모자 중에서 손화중, 김개남의 이름은 빠져있다.

4) 앞서 얘기한 李復榮의 『南遊隨錄』 갑오 2월 20일 참조

5) 崔玄植 著, 『갑오동학혁명사』, 신이출판사, 1994, 45쪽을 보면 “전봉준은 漕倉이 있는 咸悅로 진격하려 했으나, 古阜 고을을 벗어나는 越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異議가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6)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하면

“3월20일 이후 고부에서 시작하여 태인, 흥덕, 고창, 금구, 부안, 김제, 무장을 차례로 침범하였는데, 이곳을 지키던 수령들은 모두 달아났고 아전과 군교들도 뒤따라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적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고을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짚신을 요구할 뿐 부녀자나 재물을 약탈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적의 기세가 점점 커졌다. 금산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2일 동학

집결하여 백산으로 모여 들었으며<sup>7)</sup>, 드디어 백산에서는 고창, 무장, 흥덕, 부안, 정읍, 태인, 금구, 김제, 전주, 영광, 구례, 곡성 등지에서 모여든 동학교도와 민중들로 군사대오를 형성하였고 “호남창의대장소”란 이름의 지휘본부를 두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남”이라는 이름이다. 고부나 무장, 태인, 금산 등 어느 한 지역의 농민들의 봉기가 아닌 호남 일대의 농민들이 모여 衆議로 전봉준을 총대장(總大將)으로, 김개남·손화중을 총관령(總管領)으로, 김덕명·오시영을 총참모(總參謀)로, 최경선을 영솔장(領率將)으로, 송희옥·정백현을 비서로 선출하는 등 그 지휘체계를 갖추었으며, 본격적인 군사대오를 구성하고 또 그 봉기 목적을 담은 격문<sup>8)</sup>을 발표함으로써 봉기의 뜻을 분명히 하고 외세와 더불어 횡포한 양반과 부호, 방백, 수령 등 관료 對 민중, 小吏로 彼我구분을 분명히 하여 선언하였다. 그리고 4대 名義<sup>9)</sup>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 2) 황토현전투 이전의 동향

1894년 4월 1일 전주를 향해 진격하던 동학농민군이 태인 東軒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內衙로 들어와서 창을 휘두르고 꾸짖으며 兵器를 탈취해 가고 감금되어 있던 죄수들을 방송하는 한편,

무리 수천 명이 짧은 몽둥이를 들고 흰 두건을 머리에 쓰고서 군에 모여들어 구실아치들의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23일 동학무리 3천여 명이 어떤 지는 창, 칼을 잡고, 어떤 지는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밀고 들어와 향교와 각 관아 건물에 분산하여 주둔하였다고 한다. 흥덕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 3천여 명이 고창으로부터 흥덕으로 옮겨와 주둔하고 있는데, 장차 부안으로 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구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들이 이달 25일 저들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이 고을 원평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하였다. 같은 날 미사(하오 1시~3시 사이)에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이 이 고을 두지면에 진을 치고 화약고를 불태웠다고 하였다. 26일 술시(하오 7시~9시 사이)에 태인현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이 고부의 백산, 예동으로부터 이 고을 용산 화호의 신덕정으로 옮겨와 주둔하면서 총을 쏘아대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 대단하여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 7) 무장기포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무장기포설을 주장한 분들의 그 근거로 제시한 사료들 중 『石南歷史』에서는 “4월 초이일에 동학군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聚衆하와”라 하였고, 『林下遺稿』에서는 “명숙이 화중에게 가 동학배 오류친 명을 불러 모아 茂長 仁川으로부터 출발하여”라고 하였으며 『甲午事記』에서는 “古阜 民擄魁首 全明叔이가 一境 民人을 이끌고 白山에 머문지 수개월 지나 井邑 손화중과 더불어 東徒 數千을 모아 仁川 江으로부터...”라고 한 점을 들어 『隨錄』에 나오는 무장 堂山里(구수마을)와 동일 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사료만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발생한 오류라 볼 수 있다. 앞에 나오는 ‘茂長’이라는 지명만을 우선시하여 생각한 나머지 뒤에 나오는 ‘林內 안 산골 속’이나 ‘仁川’ 또는 ‘仁川江’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동음치 구수마을로 생각한 탓에 생긴 오류일 것이다. 『甲午事記』에서 언급된 ‘仁川江’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 해도 아래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인천강과 당산리(동음치 구수마을)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다. 무장기포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동음치 구수마을에서 아산면 반암리 강정마을까지는 무려 26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8) 백산격문 중에서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는(安民) 국가를 반석 위에 두는 데 있다(輔國).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反封建, 除暴救民),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反外勢, 斥倭洋倡義)”
- 9) 정교, 「대한계년사」, 『사료대계』 4, 363쪽에 의하면 “夏四月 湖南東徒起 時全羅道古阜郡守趙秉甲 剝割尤甚 民不勝怨恨 結黨爲擾 命以長興府使李容泰爲按察使 使之查覈 容泰玩愒時日 又欲乘勢 攘奪民財 反滋攷騷 於是 鄉民推前鹿島(屬興陽)萬戶全瑋準爲魁 遂於三月二十五日 與東學徒合衆至五六萬 首蒙白巾 手執黃旗 揭以四個名義 一曰不殺人不殺物 二曰忠孝雙全濟世安民 三曰遂滅倭夷燈清聖道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공금과 문서들을 몰수하여 오전 10시경에 원평으로 진격하였다. 이날 정오경 원평에 도착한 동학농민군은 천변(川邊)에 설진하고 숙영하였다<sup>10)</sup>.

4월 3일 금구까지 진격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감염 포군 1만여 명이 동학농민군을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sup>11)</sup> 오후 4시 금구에서 후퇴하여 오후 6시경 태인으로 와서 인곡, 북촌, 용산 등지에서 숙영하였다.<sup>12)</sup>

한편 백산에 모였던 일부 동학농민군이 부안으로 이동하여 부안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하동면(下東面) 분토동(分土洞)에 주둔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의 수는 500여 명이었으며, 죽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붉은 깃발에는 ‘보국안민’이라고 쓰여 있었고, 작은 깃발에는 부안·고부·영광·무장·홍덕·고창 등의 읍호(邑號)가 쓰여 있었다. 또 이들 가운데 200여 명이 관아로 쳐들어가 감염으로 보내기 위해 차출하여 장창에 대기시켜 놓았던 포군들을 각안기업(各安其業)하라며 모두 해산시켰다.<sup>13)</sup>

다음 날인 4월 2일 아침 부안 분토동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이 부안공형에게 사통을 보내 장시(場市)에서 분전수세(分錢收稅)하는 일을 금지할 것 등 4개조의 폐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부안읍에 쌓아둔 전곡 가운데 쌀 10석과 돈 200냥을 즉시 보낼 것을 지시하고, 읍내 신재명(辛在明)의 집에 무치(貿置)해 두었던 쌀 120석을 집유(執留)하여 다른 데로 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공형들에게는 지목전(指目錢)이라는 명목으로 4,000냥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였다. 이들은 4월 2일 저녁 6시경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총을 쏘며 부안현 서도면(西道面) 부흥역(扶興驛)으로 옮겨 주둔하였다.<sup>14)</sup>

4월 4일 태인의 인곡, 북촌, 용산지역에서 숙영한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는 부안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태인에 계속 남아 있었다. 부안으로 이동한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은 4일 12시경에는 부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4월 1일 무렵부터 부안에 모여 있던 500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상소산(上蘇山)에 진을 쳤다.<sup>15)</sup> 이에 앞서 3일에는 부안의 동학농민군은 동헌을 공격하여 현감을 구금하고 공형을 결박한 다음, 군기를 탈취하였다.<sup>16)</sup>

4월 4일 부안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제중의소(濟衆義所)라는 명의로 법성포 이항에게 민폐의 근본은 구실아치의 부정에 있고, 구실아치의 부정 원인은 탐관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탐관이 범하게 된 것은 집권자의 탐람(貪婪)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9개조의 민막(民瘼)이 포함된 통문을 보냈다.<sup>17)</sup>

10) 「梧下記聞」, 『叢書』 1, 58쪽; 「隨錄」, 『叢書』 5, 165쪽; 「隨錄」, 『叢書』 5, 180~182쪽.

11)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叢書』 18, 431쪽.

12) 「梧下記聞」, 『叢書』 1, 59쪽; 「隨錄」, 『叢書』 5, 166쪽; 「隨錄」, 『叢書』 5, 184~185쪽.

13) 「梧下記聞」, 『叢書』 1, 59쪽; 「隨錄」, 『叢書』 5, 167쪽; 「隨錄」, 『叢書』 5, 182~183쪽.

14) 「隨錄」, 『叢書』 5, 167~168쪽.

15) 「梧下記聞」, 『叢書』 1, 60쪽.

16) 「隨錄」, 『叢書』 5, 170쪽; 「隨錄」, 『叢書』 5, 186쪽; 「東匪討錄」, 『叢書』 6, 160쪽.

또 이날 새벽 고산 관아문 밖 기둥에 “본도대장 서(本道大將 徐)”의 명의로 “장차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5일 오후 4시경 고산을 지날 터이니 병사 한 사람당 쥘신 1작과 돈 1냥씩을 준비해 두라.”는 방문이 붙었다.<sup>18)</sup>

4월 5일 부안의 동학농민군들이 아침에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쳤으며, 정오 무렵 관아에서 부안 성황산(城隍山)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정읍에서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올라와 부안의 동학농민군 대열에 합세하였다.<sup>19)</sup>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전라감영에서는 4월 3일 김제, 부안, 흥덕, 고창, 정읍, 장성, 태인 등 7개 읍에 동학농민군들이 후퇴할 때 뒤따라가며 섬멸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sup>20)</sup> 중앙정부는 홍계훈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장위영(壯衛營) 병대와 통위영(統衛營) 병대 그리고 서영(西營)의 평양병을 이끌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sup>21)</sup>

이에 홍계훈은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이두항(李斗瓚)과 교장(教長) 이문구(李文九)·이명구(李明九)·양성록(楊聖祿)·최흥정(崔興禎)과 2개 부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미시(未時, 오후 1~3시)경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대관인 오달영(吳達泳)·오원영(吳元泳)·원세록(元世祿)과 교장인 윤희영(尹喜泳)·추성엽(秋聖燁)·김대유(金大有)·한응연(韓應淵)·김진풍(金振豐)·홍명석(洪明錫)이 3개 부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유시(酉時, 오후 5~7시) 경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sup>22)</sup>

전라감사 김문현도 태인, 김제, 부안, 고부 등 4개 읍으로 통하는 길을 모두 차단하여 동학농민군들의 이동을 막도록 하였으며, 감영의 중군(中軍) 병대를 이끌고 태인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정오 무렵 금구 원평에서 113명의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체포되었고, 여산에서도 1명, 전주 부근 마을에서 2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동학농민군은 수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양민이었다.<sup>23)</sup>

부안에 있던 동학농민군은 4월 6일 아침 8시경부터 부안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여 고부의 도교산(道橋山)으로 향하였고, 태인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들도 4월 6일 밤 8시경에는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였으며, 감영에서는 병정과 별초군(別抄軍) 보부상(裸負商)을 도교산으로 파견하였다.<sup>24)</sup>

태인과 부안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시각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에는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쪽; 『東匪討錄』, 『叢書』 16, 176~177쪽.

18) 『隨錄』, 『叢書』 5, 185~186쪽; 『東匪討錄』, 『叢書』 6, 160쪽.

19) 『隨錄』, 『叢書』 5, 186쪽.

20) 『梧下記聞』, 『叢書』 1, 60쪽.

21) 『兩湖招討騰錄』, 『叢書』 6, 3쪽; 『兩湖電記』, 『叢書』 6, 85쪽; 『日省錄』

22) 『兩湖招討騰錄』, 『叢書』 6, 3쪽; 『兩湖電記』, 『叢書』 6, 85쪽.

23) 『梧下記聞』, 『叢書』 1, 60쪽; 『隨錄』, 『叢書』 5, 18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1쪽.

24) 『隨錄』, 『叢書』 5, 173~174쪽

4월 7일에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5)</sup> 그러나 4월 7일 새벽에 도교산 황토현에서 감영군(監營軍)을 격파한 동학농민군은 곧장 정읍으로 향하여 오후 2시경에는 정읍 연지원(蓮池院)과 모천(茅川) 강변에 둔踞해 있었고,<sup>26)</sup> 그 날 밤 8시에는 정읍 관아를 공격하고 있었다.<sup>27)</sup>

따라서 『수록(隨錄)』과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에 나오는 태인현감 홍면주(洪冕周)의 첩정(牒呈) 내용 가운데 태인의 인곡, 북촌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시각인 “당일 술시(戌時)”는 4월 6일 밤 8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8)</sup>

이때는 이미 고부 도교산 옆에 있는 황토현에서는 불안으로부터 이동한 동학농민군과 영군 간의 전투가 시작된 다음이므로 태인에 있던 동학농민군도 이 소식을 접하고 합세하기 위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8일 고부 군수 박원명이 보고한 첩정 가운데 태안과 부안에 둔踞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였다는 시각인 “작일 오시(午時)” 역시 4월 6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9)</sup>

### 3) 황토현전투 상황

황토현전투 기록 사료 중 「영상일기」<sup>30)</sup>에는 전투장소를 고부 두승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관군이 먼저 기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석남역사』<sup>31)</sup>에는 동학군이 천태산을 넘어 황토재에 진을 쳤으며 관군들은 검사봉(劍死峯)에

25) 『隨錄』, 『叢書』 5, 171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쪽.

26) 『隨錄』, 『叢書』 5, 172쪽; 『隨錄』, 『叢書』 5, 175쪽.

27) 『隨錄』, 『叢書』 5, 175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7쪽.

28) 『隨錄』, 『叢書』 5, 171쪽; 『兩湖招討謄錄』, 『叢書』 6, 6쪽.

29) 『隨錄』, 『叢書』 5, 171쪽.

30)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초9일 본도의 동적들이 고부 두승산에 모였다. 전라감사가 비장 이모(이경호)를 보내, 군사 수백 명과 열읍의 속오군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산 아래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는데 밤에 적이 세 산봉우리에 불을 피워 경계하였다. 얼마 뒤에 적들이 두 봉우리의 불을 끄고 중간 봉우리 하나에서만 불을 피워 남겨 두었다. 관군이 마침내 적이 잠을 잔다고 여겨 한밤중에 군사를 출동시켜 두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지만 사방이 고요할 뿐이었다.

그런데 적병이 두 봉우리 아래에서 나와 관군의 후미를 끊고 중간 봉우리의 적들이 관군의 앞부분을 공격하였다. 전주 관군들이 마침내 그 계략에 빠져 죽은 자가 산을 뒤덮을 정도였다. 이비장은 죽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 되돌아왔다.

우리 이웃마을 사람 중에 속오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자가 8명이었다. 적에게 죽은 자는 1명이고 살아 돌아온 자는 7명인데 모두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그 전투의 전말을 위와 같이 말하였다. 뒤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말하기를 “쌍인 시신 속에서 적을 피해 돌아왔다”고 하였다.

당시 패전소식이 경성에 알려지자 경성이 크게 놀라고 조정이 전 청주목사 홍재회를 상장(上將)으로 삼고 청나라 장수 陳·王·穆 3인을 부장으로 삼아 수천 명을 거느리고 가게 했다. 청나라 장수들은 소속 부대를 거느리고 서장에 배를 띄워서 내려왔다.”

31)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월 초 2일에 동학군이 무장 임내안 산골 속에서 무리를 모으는 무장·고창·고부의 3~4개 군을 합력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예동으로 행진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 전주 병정 몇 소대가 負商 수만 명을 이끌고 우리 마을에 당도할 때 마을 사람들은 食水를 준비하였

진을 친 후 마침내 4월 6일 새벽 황토재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자 필자인 박문규와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갈대밭으로 피난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4월 7일 새벽 전투상황을 6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회고록이라는 특성상 날짜에 대한 혼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하유고』<sup>32)</sup>에서는 전라감영군이 백산에 이르자 머물러 진을 치고 있던 동학군이 달아나다 고부의 황토현에서 감영군과 만났으며 4월 7일 새벽에 전투가 벌어져 관군이 패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갑오약력』<sup>33)</sup>에서는 감영군이 백산에 진을 쳤으며 동학군이 먼저 공격하여 감영군과 보부상들이 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동도문변』<sup>34)</sup>에는 4월 초 7일 새벽에 백산에 주둔하고

다. 主戶를 부르는 군령이 엄숙하여 내 부친께서는 대장소에 들어서니 백미 3석으로 밥을 지으려는 영이 내렸다. 밥과 된장통을 마련할 때 동학군이 천태산을 넘어가니 병정들이 그 소식을 알고 바로 뒤쫓았다.

동학군이 황토재로 올라가니 병정들은 쫓아가서 뒷 봉우리로 올라갔다. 초엿새 날 새벽이 되자 총소리가 콩 볶듯이 요란하여 나는 아버님과 마을 앞 벌판으로 피난하였다. 지금은 그곳이 옥토지만 신작로 옆에서부터는 대부분이 갈대밭이었다. 4월 초 5일 밤중이었지만은 나와 아버님은 물론 우리 마을의 남녀가 다 갈대밭에 숨었으며 雨霏 도로이로 엮은 배 위가 묶여서 폭석거렸다.

초 6일 새벽부터 날이 새면서 소식을 들으니 전주 병정들이 패했다고 하였다. 만약 병정들이 이겼다면 고부는 도륙되었을 것이다. 천운이 망극하여 병정들은 검사봉(劍死峯)에 진을 쳤다가 패진했다 한다. 그 후로 동도가 크게 일어나서 면면촌촌에서 전도가 바쁘고 입도인이 발광하였다. 그들은 술과 안주를 먹고 장을 보았다. 巨沃한 치성으로 마을 안에 모여앉아 13자 주문을 외기에 정신없었다. 그 13자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 강령문은 ‘지기금지 원위대강’이다. 이 주문을 심신이 약한 사람이 많이 외면 강령한다 했으며, 방에 낮아 뛰기 시작하면 목걸을 들고 춤을 춘다.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다. 본래 동학의 교주는 경상도 최학자로 오만년무극대도천서를 옥제에게서 받아 포덕천하한다고 했으니, 그의 휘는 제우 호는 수운선생이다. 나는 갑오년 삼동에 말뚝에서 『시전』을 읽었고, 을미년 삼동에 국정동 이진사 앞에서 『서전』을 읽었다.”

32)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4월 초4일

감영군이 부안으로 들어가니 감사 김문현이 이곤양을 영관으로 삼았는데, 곤양은 차함이다. 감영의 병대 300명과 열읍의 한정·부상·백정 등 1만여 명을 이끌고 뒤쫓아 백산에 이르자 머물러 진을 치고 있던 동학의 무리들이 달아나다 고부의 황토치에서 영군과 만났다.

초 7일, 새벽에 동학군이 이곤양의 영군을 패배시키고 죽인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군기를 모두 빼앗고 곧장 전주부로 향했지만 한성의 힘만으로는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급히 전보를 보내 조정에 알리자 흥제회를 초토사로 임명하였다. 흥계훈이 경군 1,500명을 이끌고 전주에 도착하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던 동학도가 영평·무안·함평으로 달아났지만 나주에서는 매우 견고하게 성을 지키고 있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초토사가 뒤이어 영평읍에 도착해서 경군 30명을 보내 동학의 거처를 정탐하게 하였다. 동학의 전군과 장성 화룡사에서 만나 경군이 대포를 쏘아 수 백 명의 동학들을 죽이고 경군은 7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경군이 본진으로 돌아오자 동학도는 장성을 경유하여 다시 전주로 향하였다.”

33)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진봉준은 동학에 들어가 동학도인이라 칭하고 동학의 거괴인 금구의 김덕명, 무장의 손화중, 태인의 김개담과 관계를 맺고, 각기 무리를 이끌고 합하여 큰 세력을 이룬 뒤 고부에 주둔하였다. 전라관찰사 김문현이 관리를 보내 효유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에 무남영, 병사 300명을 파견하였는데, 곤양 이근창과 초관 이재한·유성후 등이 거느렸다. 보부상 도반수 송봉호가 보부상 수천 명을 거느리고 군대를 따랐는데, 동도는 충분히 상대가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장수는 지략이 없고 군대는 기강이 없어 한갓 적을 가버이 여기는 마음만 있었다. 관군은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주민들을 약탈하였다. 관군은 고부에 도착해서 백산 꼭대기에 진을 쳤다. 날이 저물어 바야흐로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 군대는 항오를 잃어 다만 배를 채울 생각만 하고 있었다. 동도가 기회를 틈타 별안간 습격하여 죽이자, 관군과 보부상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너졌으며 서로 짓밟아 죽은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영관인 곤양 이근창이 죽고 나머지는 각자 달아났다. 이때부터 동도의 기세가 더욱 커져 더 이상 평정할 계책이 없자, 전라관찰사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조정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걱정을 하면서 선전관 이수를 보내 입으로 효유하도록 하였지만, 금구원 들뜬에 이르러 피살되었다.”

34)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산패적변(白山敗績變)

문: 백산의 패배는 별장 이경호가 군사 계획을 실패한 때문이니, 南匪가 청결한 책임이 어찌 원수에게 있지 않겠습

있던 동학군들을 감영군이 서로 공을 다투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오지영의 『동학사』<sup>35)</sup>에는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 올라가 陳을 쳤으며 뒤따른 관군은 인근 상봉(上峰)에 올라가 陳을 쳤고 4월 7일 새벽 무장장내(茂長掌內)의 부상(負商)들로 가장한 동학농민군들을 선발로 하여 관군이 기습공격을 감행했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봉선의 『전봉준 실기』<sup>36)</sup>에는 동학군이 황토현으로 유인하여 접전이 벌어지자 한 부대를 관군의 후방으로 투입시켜 전후로 공격하여 승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료를 종합해 봤을 때 관군 측의 동향은 관측 자료인 『양호초토등록』이나 최영년의 『동도문변』 등의 사료를, 동학농민군의 동향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전해들은 박문규의 『석남역사』의 기록과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하면서 동료에게 직접 듣거나 확인한 내용을 기술한 오지영의 『동학사』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재구성해 볼 수 있

니까?

답: 4월 초 3일에 이경호는 백산의 아래 십 리쯤 되는 곳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감사가 군사마 최영년에게 가서 진을 친 곳을 살펴보게 하였다. 군사마가 이경호에게 묻기를 “저들은 높은 봉우리에 기대고 있고 우리 진지는 평지이다. 비도가 만약 거꾸로 세워 놓은 항아리 속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기세로 내려온다면 장차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경호가 말하기를 “마속은 높은 봉우리에 기대었다가 패하였고 왕평은 평지에 진을 쳐서 온전함을 얻었다. 이 또한 하나의 증거이다. 기밀에 이르러서는 오늘 반드시 누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최영년은 마음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돌아와 보고 하니, 감사도 그것을 근심하였다. 이때 전라 중군 김달관과 초관 이재섭이 병사 수천을 거느리고 좌익이 되어 십 리쯤 떨어진 곳에 매복하고 있었다. 초관 유영호는 보부상 부대 천여 명을 거느리고 백산 뒤쪽 30리에 매복해 있었다. 김달관과 이재섭이 공을 세우고자 함께 도모하여 호령을 듣지 않고 깃발을 휘두르며 앞을 다투어 나가 위로 올라다보며 산 위를 공격하였지만 형세가 서로 대적할 수 없어서 크게 무너져 도망가고 흩어졌다. 유영호의 부하들은 깜깜한 밤에 도망가고 흩어져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적도의 기세가 크게 올라 더욱 빠르게 돌격하였다. 이경호는 일이 잘못된 것을 보고 휘하의 병사로 산에 올라가 한번 죽도록 싸우고자 하였다. 이때 향관 김명수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군량미가 단절되었다. 무남병 700인과 토병 560인이 여러 날 먹지를 못하여 얼굴에는 사람의 기색이 없었다. 허물며 연일 비가 내려서 굶주림과 추위가 절박하게 이르렀다. 4월 초 7일 새벽에 이경호가 칼을 빼어 한번 소리를 치니 군사들의 사기가 비로소 떨쳤다. 곧바로 백산으로 올라가니 화살과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다. 앞선 사람은 시체로 눕고 뒤따르는 사람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좌우를 돌아보니 서기 유상문과 뒤를 따르던 김암희 두 사람 뿐이었다. 이경호는 손수 일곱의 적도를 베면서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으나 탄환을 맞고 죽었다. 유서기도 그 옆에서 죽었는데 김암희가 시체를 업고 도망쳤다. 관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는 절개가 어찌 장하지 않겠는가. 다만 큰일을 잘못되게 한 것은 두세 사람에게 있으니 칼과 도끼로 처단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한번 백산에서 패하고부터 비적의 기세는 사납게 퍼졌고 관군은 떨치지 못하였다.”

35) 『東學史』, 오지영, 대평문화사, 127~130쪽, “수일이 지나 태인 화호 나룻가에 다달아 진을 치고 亂砲를 發하였다. 무서운 양총소리는 천지가 震動하고 총알은 평평 날아 五里나 거의 되는 白山 꼭대기를 훌훌 넘어간다. (중략) 兩陣이 서로 應砲하고 싸우다가 돌연 동학군이 거의 패하여 西南兩路로 나누어 달아났다. 半數는 西쪽으로 부안읍 小路를 향하여 가고, 半數는 고부읍 大路로 향하여 간다. 부안으로 가는 길은 들판 險路요, 고부로 가는 길은 平地大路라, 소수인 관군은 勢를 나누어 별안간 兩方으로 쫓을 수는 없고 (중략) 동학군은 벌써 황토현 중봉에 올라가 結진을 하고 있다. 동학군을 따르던 官兵들은 다만 바라볼 뿐이요, 감히 그 산 밑에 가까이 가지 못할 줄을 알았다. 할 수 없이 멀리 그 산을 돌아 그 산과 거리가 稍遠한 上峰에 올라가 陳을 쳤었다.

이때 관병의 후방으로 수천 명의 負商軍은 순창, 담양 등지로부터 들어와 관병과 한가지로 그 산상봉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일을 미리 알고 있던 동학군 진중에서는 壯健하고 용감한 자 수십 인을 뽑아 負商軍의 모양을 가장하고 순창담양부상군의 뒤를 따랐다. 假裝負商은 말하되 우리는 茂長掌內의 負商들이라 하였다. (중략)

36) 崔玄植, 『갑오동학혁명사』, 산이출판사, 408쪽. “완군이 백산지경에 당하니 봉준이 그 약함을 보이려고 부안에 퇴거함에 완군이 추격하였다. 봉준이 또한 佯敗하여 이평면 황토현에 留陣하였다. 완군이 추격함으로 봉준군도 이에 응전하여 익일 새벽이 되도록 승부를 미결터니 봉준이 가만이 一枝軍을 완군의 후방에 내어 전후로 공격하니 완군이 대패하여 積屍如山하고 流血成川하였다. 東軍이 乘勝長驅하여 완군 死者 수천이요, 餘軍은 傷臂折脚으로 사방에 散走하였다”

리라 생각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4월 6일 정오경에 태인과 부안의 동학농민군들이 도교산으로 집결하자 백산으로 출동했던 전라감영군도 그 뒤를 추격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맞은편에 위치한 「사시봉」에 진을 치자 뒤를 쫓던 관군은 6일 해질 무렵 황토현에 이르러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다.

동학농민군 측은 이날 밤, 관군 측으로부터 야습해 올 것을 예측하여 병력을 나누어 주위 요처에 잠복시켜 놓고 본진을 비워 두었다. 예상대로 관군과 보부상 부대는 어둠을 틈타 동학군 진을 습격해 왔다. 이때 관군 측에서는 전라중군 김달관과 초관 이재섭이 공을 세우고자 함께 도모하여 호령을 듣지 않고 깃발을 휘두르며 앞을 다투어 나가 공격하였지만 매복했던 동학군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관군들은 지리에 어두워 지척을 분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본진으로 도망쳤으나 그들 또한 전날 백산에서 부안으로 이동했던 동학농민군의 일부 부대가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여 전멸을 시키다시피 하였다. 이어 동학농민군들은 그 여세를 모아 관군의 황토현 본진을 급습하였다.

우영관 이경호는 병사를 이끌고 혼자서 진을 지켜 가슴에 총을 맞고 얼굴에 창을 찔려 사망하였으며 서기 이은승과 담양의 수성별장 국인묵도 함께 사망하였다. 태인의 전 감역인 유병직은 이미 행부보상의 반수였는데, 여러 상인들을 통솔하여 스스로 영관이 된 후 군대의 뒷전에 있다가 창과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부상 도반수인 송병호 등 보부상들은 변변찮은 무기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였다. 탄약 수송 임무를 담당한 신영대관 이재환과 유판근은 도망을 쳤고 교장 백찬경 과 육용규 등도 도망하여 관군과 보부상 연합군은 크게 참패하였다.

한편 칠보의 고현내동에서는 유생 김기술을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태인현감 홍면주를 만나 무기를 제공받아 황토현으로 출전하였으나 새벽녘에 동학농민군의 기습을 받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사발통문 서명자 20명 중 한 분인 송주성의 차남 송재섭이 1954년에 쓴 것으로 전해지는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에 의해 전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투 직전 관군들은 산 아래 촌락에 산거(散去)하여 부녀를 능욕하며 재물을 약탈하기에 매우 분주하였으며 황토현 아래 우덕리 백성들을 강제 동원시켜 약탈한 물품을 운반하며 火木을 운반하여 밤이 됨에 불을 피우고 추위를 막으며 약취한 물품을 나누는데 정신이 빠지고 있었다.

동학농민군 측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화승총은 녹이 나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 많으며 화약은 습기가 차서 대부분 사용치 못하게 되자 동학교인의 가정에 지시하여 부녀와 이동까지 쉬지 않고 탄약제조에 주력하였다. 남자들은 전부 황토현 전장에 출동하고 부녀들은 탄약을 머리에 이고지고 이십 리 戰地로 보급해야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밤 3경에 이르러 본진에서 포성이 일어나니 후방의 복병도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앞뒤에서 공격을 당한 관군은 크게 패하여 전사자는 산같이 쌓이고 피가 강처럼 흘렀으며 동학농

민군은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었다. 그 후에 관군의 시체를 이장할 시에 검찰한 이의 말을 들으면 여자의 시체가 약 반수라 하니 관군이 행군연로에 촌가에 들어가 처녀와 부녀를 약취하여 남장 종군케 한 여자의 시체가 분명하다. 패장 이재한은 적재한 군수품 무기 군량 등을 유기하고 잔군 약간을 거느리고 도주하였다.

## 2. 황토현전투의 성격 및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토현전투는 관군과 보부상 그리고 유생으로 구성된 민보군의 연합세력과 동학농민군과 인근 백성들의 계급적, 의식적 투쟁이 되었다. 혁명의 요인 중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의 성장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야말로 지상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의 자각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러한 혁명적 상황의 인식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며, 자신이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둘째로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여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오히려 사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래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16, 7세기의 봉건지주와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시민의식이었으며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역사적 주체성의 확립이다.

리처드 노이하우스는 이것을 혁명적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의 분위기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이기도 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인가에 눈이 뜨이게 되고 더 이상 이 상황이 현재 상태대로 계속될 수 없다는 감정이라고 했다.<sup>37)</sup>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낡은 틀을 뒤바꾸는 혁명은, 총칼과 의식만 갖는다고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천시(天時)에 부합되어야 하고,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행동으로 실천될 때 혁명의 이상은 역사 속에 현실화된다.

‘현재 상태대로 계속될 수 없다’는 감정이 행동으로 폭발한 황토현전투는 동학농민군과 전제왕권의 상징인 관군이 최초로 물리적으로 격돌했다는 상징의 의미가 크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학농민군들의 이상과 꿈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프랑스대혁명의 경우 1789년부터 10년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과정을 거쳤다. 삼부회의 개최, 국민회의 결성, 테니스코트 선언, 7·11 봉기, 7·14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인권

37) 피터 버거, 리처드 노이하우스, 장석만, 『운동과 혁명』, 도서출판 한빛, 1987, 135쪽.

선언, 공화정 선포, 루이 16세의 처형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으나, 혁명 기념일은 첫 전투에 혁명군이 정부군을 격파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인 7월 14일로 정했다.

이는 압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격파한 상징적 의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실제로 물리적 충돌을 통해 전제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린 결과 민중들의 자의식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민중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오지영은 “古阜民亂이 一變하여 全羅一道의 大兵으로 화하고 漸漸 全鮮적으로 擴大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黃土峙 싸움에 官兵이 大敗한 후 四方으로 일어나는 風說은 더욱 더 宏壯하여 갔기 때문이다. 즉 朝鮮은 전봉준의 손에 달렸고 세상은 동학군의 天地가 된다고 떠들어댔다.”<sup>38)</sup> 라고 하여 황토현전투의 결과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동학 측 사료인 「김낙봉이력」에는 “고부군의 황토현에 이르렀는데 날은 저물고 3면으로 관군이 급하게 추격하였다. 그래서 산 위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동지 2, 3명과 함께 그날 밤에 몸을 피해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니 형제가 새로운 얼굴로 서로 마주보는 것 같았다. 그 후에 난리가 더욱 심하여 녹림의 무리가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라고 하여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표현하여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황토현전투로 승기가 오른 동학농민군들은 각 읍을 순력하면서 세를 과시하며 세를 불려나가 마침내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장악해 나갔다. 황토현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이날 바로 정읍 연지원으로 나와 4월 7일 해질 무렵에 정읍현을 점령하여 간혀 있는 죄수 6명을 풀어 주었으며, 군기고를 부수어 많은 무기를 빼앗아갔다. 또한 공형의 집과 도사령의 집 살림을 모조리 부수고 보부상이 모이는 집도 불을 지르고는 고부군 삼거리로 향하였다.

4월 8일 11시경에 곧바로 흥덕현 관아로 들이닥쳐 군기고를 부수고 탄약과 창·칼·조총 등을 아무 어려움 없이 탈취하여 동일 12시경에 곧바로 고창지역으로 향하였다. 4월 8일 해질 무렵에 동학농민군은 고창관아에 들어와 먼저 옥문을 부수고 간혀 있는 동학교인 7명을 방면 하였으며, 또한 관아 아래에 있는 은대정의 집에 이르러 살림을 모두 부수고 이어 불을 질렀다. 이후 무기를 탈취하고 여러 문서를 거두고는 동헌과 각 관용 건물을 부수고 4월 9일 오시경에 다시 무장읍으로 향하였다.<sup>39)</sup>

한편 4월 9일 충청감사 조병호(趙秉鎬)는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어제 밤 회덕현에 들어와 무기고를 부수고 군기를 가지고 진잠(鎭岑)으로 향하였다는 급보를 보내는데 이로 미루어 황토현전투의 승리는 호남 일대는 물론 충청 일대의 농민군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본격적 행동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충청감사 조병호가 조정에 전보(電報)로, 충청도의 동학농민군들이 진잠(鎭岑), 연산(連山),

38) 오지영, 『東學史』, 대광문화사, 130쪽.

39) 「영호초토등록」, 『국역총서』 1, 110~111쪽.



옥천 등지에 각각 5~6천 명씩 무리를 모아 주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공주 利仁驛에 負商 4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학농민군들이 부상만 보면 죽여서 원한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40)</sup>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는 “扶安 근처에 있는 13읍의 수령들은 모두 監營으로 도피하고, 군기와 남은 곡식은 모두 동학도들에게 약탈당했다.”고 하여 황토현전투 이후 전라·충청 일대는 무방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sup>41)</sup>

전라감사 김문현도 軍器를 잃은 곳이 10여 곳이고 수령을 쫓아낸 곳이 13읍, 수령을 피살한 곳이 4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정부 측 기록에는 “4월 6일 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京軍 700여 명이 4월 6일 오후 4시경 군산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임피로 이동하여 숙영하게 되는데 경군은 도착하자마자 황토현전투에서 감영병의 패배 소식을 접하고 크게 위축되었다<sup>42)</sup>.”라고 하였다. 또 “이 일전(필자 : 황토현전투)은 동학당의 기세를 더욱 올리게 하여 크게 창궐하고 위세를 떨치게 하는 꼴이 되었다. 이 때문에 全州 일대는 민심이 동요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sup>43)</sup> 이렇듯 황토현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크게 올랐으며 이 소식을 들은 각 지의 농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남진하는 동학농민군 대열에 속속들이 모여들었다.<sup>44)</sup> 반면에 전라·충청 일대의 지방권력은 붕괴되었으며<sup>45)</sup> 중앙에서 파견된 홍계훈의 경군마저도 사기가 떨어져 감히 동학농민군과 싸우려 하지 못하였다.<sup>46)</sup>

4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쪽.

4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8쪽.

42) 『兩湖電記』, 『叢書』 6, 93쪽.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3) 5월 18일 全羅道 全州에서 歸京한 者의 直話.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東學黨에 관한 諸報告.

本件에 대하여 금일 오전에 접수된 報告는 다음과 같음.

1. 陰 4월 初 9일 (陽 5월 13일) 全羅監司의 電報.

즉시 玉果 公兄의 狀啓를 받아 보니, 東學徒 수천명이 官府로 들어와 本縣監을 묶어 놓혀 놓고 軍器와 官穀을 모두 탈취하여 井邑으로 갔는데 이 일은 너무도 놀랍고 기습적입니다.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 全羅·忠清兩道民亂의 件. 發第13號.

지난 날 이래 全羅道 및 忠清道에서 봉기한 난민은 그 후 차차 세력이 치열해져서 지방 병정만으로는 진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더 심하게 창궐하여 관리를 몰아내고 성읍을 전멸시키는 등 알잡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본관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난민이 점거했거나 또는 횡행했던 시읍은 전라도에서는 古阜·泰仁·扶安·金溝·井邑·高敞·茂長·羅州·咸平·務安·靈光 등의 각 읍, 충청도에서는 懷德·鎮岑·靑山·報恩·沃川·文義 등의 각 읍이었던 바, 전라·충청 양 도의 거의 3분의 1에 걸쳐 있어 이 나라로서는 실로 용이하지 않은 변란입니다.

1894년 5월 23일

臨時代理公使 杉村濬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6) 『兩湖電記』, 『叢書』 1, 193쪽 “또 들으니 완영의 우영관 이경호가 화살과 돌을 피하지 않고 저들에게 돌격하여 몇 십 명을 찢러 죽이고 끝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전라감사가 초상을 준비를 갖추어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그의 높은 절의는 대중을 감격시켰습니다.”라고 하였다.

내서에서 비밀리 전보가 왔는데 이르기를, “경군이 가진 무기는 비록 정교하지만 모두 저자거리에서 놀던 사람으로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였고 먼 길의 행군에 지쳤는데, 전라 감영군이 먼저 패배한 것을 보고 힘이 약해지고 놀라 겁을 먹었다. 저 적들은 밤에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고 그 요해처를 이는데, 경군은 도로에 익숙하지 못하여 어둔 밤에 저들의 책략에 말려들어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조정에서도 전라감사에게 명하기를 “일전에 완군이 패배한 뒤에 경군이 겁을 먹었다고 하니, 1개 부대를 파견하여 태인·정읍 2개 고을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게 하라. 혹 비류들의 계책에 넘어가 불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 적을 가볍게 보지 말고, 또한 군사를 나누어 파견 하지도 말라. 비류 호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으나, 아직 토벌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의 난민은 충분히 조심성 있게 다룰 것이요, 절대로 적을 가볍게 보지 말라.”<sup>47)</sup>고 할 정도로 동학 농민군의 황토현 대승이 미치는 영향은 조정과 동학농민군 측 뿐만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그 반향이 커서 놀라는 것은 물론 향후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 3. 황토현전승일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동학농민혁명은 최근 활발한 연구 활동의 성과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규명되고 해석되고 있으나, 연구 역사가 일천하고, 여러 문헌 자료들의 기술 내용이 불일치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연구자가 어떤 자료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진실의 해석과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요구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 아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11일(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토론회 때 김양식 선생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제정 기준을 역사성, 상징성, 대중성, 현재성 등으로 나누어 주요 사건에 대한 가중치를 주어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객관적 방안을 내었다. 객관적 평가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3차례 더 기념일 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으나 이러한 기준에 따른 논의는 간과되고 그 기준 중 매번 역사성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다 보니 논의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논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른바 역사성 하나만 가지고 논하기로 하자면 고부농민봉기, 무장봉기, 백산기포, 황토현전투, 황룡촌전투, 전주성 점령, 삼례봉기, 우금티전투 등 무엇 하나 중요치 않은 사건이 없으며 제각각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논의의 중심이 매우 협소하게 진행

삼가 적정을 정담하여 심란한 걱정이 없게 하라. 순찰하는 부대를 나누어 보내면 우리 군사의 성세를 크게 손상시키게 된다. 어찌하여 우리의 군사는 적고, 적이 많은 것을 생각하여 참작하면서 위세로 적을 물리치지 못하는가? 부대를 나누는 일을 하니 말라.”고 하였다.

또 비밀리 진보하기를,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상대할 때 자세히 형편을 헤아리고 또 적의 많고 적음을 살펴 기회에 따라 힘을 헤아려 도모할 것이요, 미약한 군사로 적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47) 「兩湖電記」, 『叢書』 1, 194~195쪽.

이 되어 최초의 봉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만 국한되어 왔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봉기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념일 제정에서 최초 봉기일만이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념일 제정의 기준과 원칙으로 역사성, 현실성, 상징성, 대중성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필자는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간 필자는 무장봉기설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다. 기념일 제정 문제에 앞서 학술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지역이주의로 몰아붙이거나 묵살하지 말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라 생각하며 향후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1) 최근 학계의 동향과 무장봉기설에 대한 문제 제기

1980년 이전에는 백산봉기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1차 봉기의 시점으로 하는데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5년 『한국학보 1985 여름호』에서 “동학농민혁명의 1차 농민전쟁”에서 전봉준 판결문을 들어 신용하 교수가 무장봉기설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뒤 역사학회 월례발표회(1992. 3. 14)에서 『수록』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주장한 노용필 교수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역시 무장봉기설을 주장한 정창렬 교수가 있다.

이 외 이이화, 배항섭 등 많은 학자들이 무장봉기설을 주장하거나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근거 사료로 『隨錄』, 『梧下奇聞』, 『聚語』, 『全羅道古阜民擾日記』, 『南遊隨錄』, 『林下遺稿』, 『全琫準供招』, 『全琫準 判決文』등을 들어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점을 바로 茂長봉기로부터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茂長봉기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위의 사료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로서 무장봉기설의 논거를 분석해본 결과 무장봉기설은 무리한 주장이며<sup>48)</sup> 현재 고

48) 무장봉기설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인걸 교수와 최현식 선생과 표영삼 천도교 상주선도사를 들 수 있는데, 김인걸 교수는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 4에서, 최현식 선생은 『갑오동학혁명사』에서, 표영삼 선도사는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이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무장기포설을 부정하였습니다.

김인걸 교수는 “전봉준은 고부접주의 이름으로 고부를 들어 기포했던 것이다. 뒤에 언급하듯이 무장에는 3월 16일부터 각지의 ‘동학’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는데, 동학도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기포’의 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장기포’에 의해 본격적인 농민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설명은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중략) 즉, 1차 봉기는 단지 무장에 집결한 전봉준 중심의 3,000여 주력군만이 주체가 아니라 호서의 동학조직 등이 연계된 연합군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홍계훈이 ‘양호초토사’로 파견되었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창 내에서만도 봉기지가 2곳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이 최초 봉기지라는 주장에 논리적 모순을 지니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료들을 분석해 보면 고창에는 공음면 구수마을과 더불어서 현 아산면 흥강마을에서도 따로 봉기를 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나아가 오히려 구수마을은 봉기지라기보다는 집결지 정도의 의미를 지니며, 봉기지는 흥강마을로 봐야할 것 같다. 그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무장봉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隨錄』의 무장현감 조명호의 보고 내용을 보면

금(3월) 16일 본 현 동음치면 당산리에 어떤 수상한 무리들 수천 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그 종적이 이상하며 여러 가지 풍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영리한 이속 포교들을 비밀히 보내 수탐한 즉 ① 이들은 이 고을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가 다른 고을 사람들로 이 마을 민가에 모인 동학도라 일컫는다 합니다.

처음에는 1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6일에서 18일에 이르는 동안 수일 새 혹은 밤에 혹은 낮에 사방에서 몰려든 것이 1천여 명이나 되어 모두 당산마을 앞뜰에 모여 있습니다. ②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영광 법성 두 고을의 접경지대입니다.

그들 몇 백 명은 법성 진랑면 용현리에 있는 대밭에 가서 대를 베어 죽창을 만들고 혹 각 마을의 민가에 보내 조총, 썰이, 낫, 가래, 따위를 빼앗아 갔으며 그들은 소위 동학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과거에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을 일일이 잡아다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웃 마을 석교촌에 사는 안덕필의 집을 습격하여 다른 사람이 맡겨 놓은 백미 60여 석

---

또 최현식 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무장기포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봉준의 판결문은 전봉준의 개인적인 조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로 규정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즉 갑오동학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전봉준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東徒大將으로 추대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필자 불명의 『수록』의 기록은 무장현감이 동학도의 집결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무렵 동학농민군의 집결지는 부안, 고부, 태인 등지에도 있었다. 따라서 무장의 집결은 전체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전봉준의 공초 275개 문항 가운데 “고부기포”란 표현은 있으나(1차 공초 2회) 무장기포라는 표현은 없다. 셋째, 백산에서 각 지역의 농민군들이 모여 비로소 동학농민군으로서의 대오를 결성했으니 이곳을 기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학농민군의 진압에 나선 관군이 고부로 출동했다는 점이다. 만일 기포지가 무장이었다면 관군이 무장으로 출동했을 것이다. 다섯째, 전봉준은 왜 무장에 머물렀던가. 원래 전봉준은 접주일 뿐 포(包)를 거느리지 못했다. 공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학의 교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無東學行教之事 1차 공초) 접주로서의 조직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손화중포를 거느리기 위해서였다. 당시 손화중포는 도내에서 가장 거포(巨包)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표용삼 선도사는 다음과 같이 무장기포설을 부정하고 있다.

“『금산피화록(錦山被禍錄)』에는 3월 초에 금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기포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금산군지(錦山郡誌)』에는 “3월 8일에 무장한 동학군이 제원역에 회합하여 이아면(李也勉)을 선봉장으로 5천여 명이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대거 금산읍에 들어와 관아를 습격하여 문서와 각종 기물을 불사르고 서리(胥吏)들의 가옥을 파괴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하기문』을 보면 “금산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2일 동학무리 수천 명이 짧은 몽둥이를 들고 흰 두건을 머리에 쓰고서 군에 모여들어 구실아치들의 집을 불살랐다.”고 하였다. (중략) 지금까지 최초의 기포일은 3월 18일에 전봉준과 손화중이 당산(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당산)에서 기포한 날짜를 치지만(김개남도 지금실에서 3월 18일에 기포하였다 함) 금산에서 기포한 날짜는 이보다 10일 내지 6일이나 빨랐다. 따라서 최초의 기포지는 고창 당산(무장기포지)가 아니라 금산 제원역(濟原驛)과 진산 방축리라 할 수 있다.”

을 빼앗고 그 집을 부셨으며, 같은 마을 송경수의 집 살림을 역시 때려 부셨다. 이 때문에 인접한 각 면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해괴하나 양민과 어울려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향리와 향노를 보내어 이치로 설득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문을 보내 해산을 도모했으나, 그들의 기세가 당장 수천 명에 이른 지경이어서 우리 고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으며 ③그들의 말로는 일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보내온 통지에도 역시 불일간 이 고을을 떠나겠다고 하오나, 매우 수상한 무리들인 지라 그 참뜻을 칙량할 길이 없는 고로 다시 이속으로 하여금 은밀히 염탐한즉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고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이니 어느 곳을 향할지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아낸 바가 이와 같으므로 우선 확인된 정보를 위와 같이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 堂山里에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동학도 1000여명이 모여 들었는데 거의가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또 이들이 民家에서 조총과 농기구, 곡식 등을 거두어 갔다는 동정 등을 정탐한 상황보고로서 그 내용 어디에도 무장봉기설의 근거가 될 만한 대목이 없다. 오히려 여기서 추정해 복 수 있는 것은 ①모인 농민들 거의가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②장소가 영광과 법성 두 고을의 접경지대이며, ③농민군이 통지해온 바로는 불일 간 다른 지역(고부 백산인 듯)으로 옮겨간다고 한 점 등에서 무장은 잠시 머무는 중간 집결지의 성격을 띠며, 영광이나 법성 등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사전 기포가 약속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경유지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 『林下遺稿』의

甲午九月日濟行日記 상왕 31년 갑오 정월 어느날 민란이 전라도 고부군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군수 조병갑의 貪虐無厭한 勒徵科外의斂...〈중략〉... 衆民이 해산하는 고로 전명숙은 일이 성사되지 못함을 알고 砲軍 오십 명을 이끌고 무장동학인 손화중에게로 가...〈중략〉...명숙이 화중에게 동학배 오륙천 명을 불러 모아 茂長 人川로부터 출발하여 오는데 보국안민창의 6자의 기치...

위의 기록 역시 전봉준 개인의 행적일 뿐 무장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지라는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甲午事記』<sup>49)</sup>와 『석남역사』<sup>50)</sup>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沔陽行遺日記』 4월 초 4일자 기록을 보면 “듣자하니 호남 무장 고창 등지에서 동학 수

49) “古阜民擾魁首 全明叔이가 一境 民人을 이끌고 白山에 머문 지 수개월 지나 井邑 손화중과 더불어 東徒 數千을 모아 仁川江으로부터...”

50) 박문규의 앞의 글, “四月初 三日이 大禮日이다. 人心이 搖動하고 流言이 匈匈하던니 初二日에 東學軍이 茂長 林內안 山골 속에서 聚衆하화 茂長 高敞 古阜 三四郡을 함성하여 軍器를 奪取해가지고 말목 禮洞으로 행진을 하와 백산으로 移陳을 하고 있다”

천 명이 기치를 세우고 총소리를 내며 인가를 부수었다. 모두 큰 무리로 평범한 날 처하기를 혐오함이 있다. 양호 동학의 기운이 날로 거세져 가히 염려스럽다.”<sup>51)</sup>라고 하였고, 『奎羅道古阜民擾日記』의 “그런데 급보가 하늘에서 날아 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 날 興德里의 장꾼이 돌아와서 이르기, 동학군 수만 명이 茂長의 屈峙를 넘어서 沙浦를 지났다고 한다. 다음 날은 高敞에 모여 점차 서쪽에서 올라와, 일부 군대는 井邑에서 古阜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沙浦를 지나 菴浦로 왔다”란 기록 역시 농민군의 동향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무장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지로 볼 특별한 내용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이 사료들을 통해서 무장기포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간 무장기포설을 주장한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료들 중 『石南歷史』에서는 “4월 초이일에 동학군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聚衆하와”라 하였고, 『林下遺稿』에서는 “명숙이 화중에게 가 동학배 오류천명을 불러 모아 茂長 人川로부터 출발하여” 라고 하였으며 『甲午事記』에서는 “古阜民擾魁首 全明叔이가 一境 民人을 이끌고 白山에 머문지 수개월 지나 井邑 손화중과 더불어 東徒 數千을 모아 仁川江으로부터...”라고 한 점을 들어 『隨錄』에 나오는 무장 堂山里(구수마을)와 혼동하여 동일 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사료만 가지고 살펴봄으로서 발생한 오류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에 나오는 ‘茂長’이라는 지명만을 우선시하여 생각한 나머지 뒤에 나오는 ‘林內 안 산골 속’이나 ‘人川’ 또는 ‘仁川江’은 도외시한 탓에 생긴 오류라 판단된다. 실제 인천강과 당산리(동음치 구수마을)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무장은 고창군의 일부로 인식되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발발 당시에는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으로 각각 독립된 고을이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부군통폐합령(府郡統廢合令)으로 고창군으로 통합되었다. 『고창군지』 65쪽에 의하면 “1895년 이후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에 의거 고창 산내면(山內面) 인천리(仁川里)”, 같은 책 67쪽에는 “무장 동음치면 구수리(九水里)”로 완전히 다른 고을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石南歷史』에서 언급한 茂長 林內와 『林下遺稿』에서 말하는 茂長 人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1895년 이후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에 의거한 “고창 산내면(山內面) 인천리(仁川里)”는 현재의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흥강(興江)마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흥강은 아산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강정마을은 무장 강정이라 칭하고 바로 냇물 건너편에 있는 강정마을을 흥덕강정이라 전해지며, 흥강이라고도 부른다.

1914년 이후 대아(大雅)와 산내(山內)면을 합하여 아산면으로 합해졌으며 『고창군지』 72쪽과 74쪽에 의하면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51) “聞湖南茂長 高敞等地 東學數千名 建旗鳴砲 打破人家 皆渠輩之平日有嫌處也 兩湖東氛日熾 可憂也

아산면 반암리(盤岩里) 임천(林川) 산내면에 있던 인천리(仁川里)가 아산면 임천리(林川里)로, 무장현 동음치면은 공음면 두암리<sup>52)</sup>로 되어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같은 책 87쪽에는 “『한국 지명총람』, 『전북전래지명총람』에 의거 아산면 반암리 : 分 : 반암(盤岩), 마명(馬鳴), 탑정(塔亭), 호암(壺岩), 강정(江亭) 自 : 반암, 강정, 무장강정, 흥덕강정 : 임천(林川)”으로 나온다.

따라서 『石南歷史』에서 언급한 茂長 林內와 『林下遺稿』에서 말하는 茂長 人川은 林川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료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무장 동음치면 구수마을과 더불어서 고창 산내면 인천리(현 아산면 흥강)에서도 따로 봉기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시 동학농민군은 고창현과 무장현 등 최소한 2곳에서 봉기한 것이 된다.

그리고 『甲午事記』에서 말하는 仁川江은 또한 林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인천강이 존재함으로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강은 고창천과 무장천이 합류되는 지점부터를 말한다. 운곡천, 두월천, 사신천, 용산천, 선운천의 물이 합류되어 인천강을 만들고, 인천강과 곰소만이 인접한 곳을 장수강(장강)이라 하였다. 인천강은 섬진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과 함께 전라북도 5대 강의 하나이며, 발원지가 고창군의 유일한 물줄기인 요충지다.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칠성마을 수량동의 명매기골에서 발원하고 고창의 경수산과 소요산 사이를 거쳐 줄포만으로 흐르는데 강의 길이는 31km에 이른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무장의 농민군 집결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전라·충청도 일대 여러 고을에서 백산으로 모이기 위한 중간 집결지 내지는 출정지 중 일부로 보인다. 이때 태인과 부안 등지에서도<sup>52)</sup> 고창 林川과 茂長 九水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장소에 집결하여 백산으로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가 모인 고부(백산)의 집결을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지로 보아야 한다고 봐야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2)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하면

“3월 20일 이후 고부에서 시작하여 태인, 흥덕, 고창, 금구, 부안, 김제, 무장을 차례로 침범하였는데, 이곳을 지키던 수령들은 모두 달아났고 아전과 군교들도 뒤따라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적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고을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쉼을 요구할 뿐 부녀자나 재물을 약탈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적의 기세가 점점 커졌다. 금산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2일 동학무리 수천 명이 짧은 몽둥이를 들고 흰 두건을 머리에 쓰고서 군에 모여들어 구실아치들의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23일 동학무리 3천여 명이 어떤 지는 창칼을 잡고, 어떤 지는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밀고 들어와 향교와 각 관아 건물에 분산하여 주둔하였다고 한다. 흥덕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 3천여 명이 고창으로부터 흥덕으로 옮겨와 주둔하고 있는데, 장차 부안으로 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구현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무리들이 이달 25일 저들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이 고을 원평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하였다. 같은 날 미사(하오 1시~3시 사이)에 고부군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이 이고 을 두지면에 진을 치고 화약고를 불태웠다고 하였다. 26일 술시(하오 7시~9시 사이)에 태인현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이 고부의 백산, 예동으로부터 이 고을 용산 화호의 신덕정으로 옮겨와 주둔하면서 총을 쏘아대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 대단하여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 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황토현 전승일

동학농민군 국가기념일 제정의 기준과 원칙으로 역사성, 현실성, 상징성, 대중성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성을 말하고자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이전 단계의 농민항쟁과 성격이 달랐다. 우선 한 고을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형태로 일어난 민란과는 달리 보다 치밀한 계획과 조직으로 전개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민중항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의 사전 계획과 준비 등의 요소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반 대중이 용기를 내어 항쟁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포고문이나 격문보다도 황토현전투의 승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이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이토록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가? 고부농민봉기 이후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맞붙은 최초의 전투이자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황토현전투야말로 역사성 면에서 살펴보면 혁명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상징성 면에서 보면 황토현 대승이야말로 폭압의 상징인 정부군을 동학농민군이 육탄으로 막아낸 장거이며 황토가 상징하는 농토를 지켜냈다는 상징적 의미 또한 매우 크다. 현재 황토현은 높이 35.5 m의 낮은 언덕으로 정읍시 이평면 남쪽 덕천면으로 가는 705번 국도에 있다.

황토현에서 '황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런 진흙을 말하며 '현(峴)'은 한자어로 낮은 고개나 구릉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재'라고 한다. 그래서 '황토현'은 문자 그대로 황토로 이루어진 언덕이란 뜻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황토현'하면 이곳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황토현 대승의 성격은 전봉준의 동도대장 깃발 아래 각 지역 연합부대가 하나가 되어 직접 격돌하여 최초로 승리를 쟁취했다는 면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커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됐던 프랑스대혁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그들의 주장과 이상을 행동으로 옮긴 날 (Acting day)에 큰 의미를 둔 다른 외국의 사례는 많다. 멕시코혁명은 1910년 10월 6일 혁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1910년 11월 20일(혁명기념일) 18시에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시작했다. 쿠바혁명은 1953년 7월 26일(혁명기념일) 몬카다 요새 병영을 공격하면서 1959년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할 때까지의 6년간 싸움이 시작됐다.

중국의 신해혁명은 1911년 10월 10일(혁명기념일) 우창 신군에 의한 호광총독아문(湖廣總督衙門) 점령을 시작으로 발발했다. 러시아혁명은 1917년 11월 6일(혁명기념일)에 봉기(공격)가 시작되어 혁명군은 거의 무혈로 수도의 중요 거점들을 점령했다.

현실성 면에서 보면 황토현은 1963년 10월 3일 전국 최초 동학 관련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을 건립한 곳이다. 이후 현재까지 정읍 황토현은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 정부는 황토현 전승지에 1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교육관을 건립<sup>53)</sup>하였고 최근에 들어 동학관련사업을 총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본부를 둔 것이다.

그리고 정읍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무관심할 때인 1968년부터 40여 년 동안 매년 황토현 전승일에 맞춰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치루어 음으로써 현재 실질적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지도 또한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중혁명이었던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국민의 머릿속에 친숙하게 각인된 날로 지정되어야 대표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 예로 87년도 6·10 민주항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6·10 민주항쟁은 그해 1월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고, 4월 13일 호헌조치가 뒤따랐으며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사망했고, 마침내 6월 10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 후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4천 명이 체포되고 시위자들이 명동성당으로 진입하였다. 6월 26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1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6·29 선언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위에서 열거한 날짜 중 6월 10일이 선택된 이유는 6월 10일에 그동안 지속됐던 저항 행동이 승부를 보지 않고는 접을 수 없다는 것을 민중이 집단적으로 인지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즉, ‘끝을 보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환점’을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또한 ‘끝을 보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동학농민군이 자신들의 주장을 최초로 행동으로 옮긴 황토현 전승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53) 5공화국 때 1983년 12월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황토현 동남쪽 기슭에는 황토현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4년 5월에 23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의 전시관과 교육관을 개관 완료한 상태이다.



##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

- 고부기포 · 무장기포 · 백산대회를 중심으로 -



#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

- 고부기포 · 무장기포 · 백산대회를 중심으로 -

성 주 현 | 경기대학교

- 
1. 머리말
  2. 고부기포 격문과 사발통문
  3. 무장기포와 포고문
  4. 백산대회와 격문
  5. 맺음말
-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도 벌써 117년이 지났다. 이 117년이 지나는 동안 역사, 문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칭에서부터 비롯하여 참여 주체, 사상적 배경, 기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금년 들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 역시 관점의 차이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점의 차이는 동학농민혁명 양태가 그만큼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위안을 가져보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은 크게 네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고부기포 단계이다. 이 시기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군이 고부에서 기포하여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백산에 주둔하였다가 이용태의 탄압으로 전봉준이 지도부를 이끌고 무장으로 잠시 피신하였던 과정이다. 제2기는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이후 황토현전투와 황룡촌전투를 거쳐 전주성을 점령하였던 과정이다. 이 기간 동안 동학군은 관군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여 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던 시기였다. 제3기는 전주성 점령 이후 정부와 화약을 맺고 호남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 동학군의 민정을 실시하였던 과정이다. 제4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함에 따라 청산과 삼례에서 재기포하였지만 조일연합군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무수한 격문과 통문이 반포되었다. 이 격문과 통문은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이념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1기와 제2기의 초에 해당하는 격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동학농민혁명의 격문은 고부기포의 사발통문과 격문, 무장기포의 포고문, 백산대회의 격문과 4대 명의가 있다. 이들 격문들은 동학농민혁명이 당위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격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기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고부기포 격문과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는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비롯되었다.<sup>1)</sup> 고부기포의 원인은 고부 군수 조병갑과 전운사 조필영의 동학교인파 농민에 대한 수탈이었다.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고부의 동진강 상류에 만석보를 새로 수축하면서 농민들을 무상으로 동원할 때는 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추수기에는 수세로 7백여 석을 착복하였다. 둘째, 진황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면세한다고 약속해 놓고 개간 후에는 추수기에 지세를 부과하였다. 셋째는 富民들에게는 불효, 음행 등 죄목을 씌워 2만여 냥을 억탈하였다. 넷째는 대동미를 징수할 때 1결당 정미 16두를 징수한 다음 이를 정부에 납부할 때는 값싼 하등미로 바꾸어 그

1)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고부기포와 동학농민혁명을 분리해 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고부민란'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고부기포와 동학농민혁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 '고부기포'라고 명명한 것은 고부기포의 핵심적인 주체세력이 동학 조직인 포를 통해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차액을 착복하였다.<sup>2)</sup>

이외에도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은 “허다하여 기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 또한 전운사 조필영은 세미의 이중 징수 및 운송 비용, 운송선박 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탈을 자행하였다.<sup>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학교인에 대한 수탈이 극심하였다. 고부의 동학교인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포획이 자심하여 도인이 건디지 못하게 하므로”<sup>4)</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과 수탈이 일반 농민보다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집주 전봉준을 장두로 추대하여 조병갑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탈과 탄압은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全琫準은 宋斗浩, 宋大和와 더불어 趙秉甲을 징치하기 위해 기병을 할 것을 도모하였다. 이어서 기병하는 이유를 宋柱晟으로 하여금 해월 최시형이 있는 도소에 알렸다. 이와 동시에 태인의 崔景善, 금구의 金德明, 남원의 金開男, 무장의 孫和仲, 부안의 金洛喆 등 각 지역 동학 집에 檄文을 띄웠다. 뿐만 아니라 통문을 작성하여 각면과 각리에 포고하였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폭발하였다.<sup>5)</sup>

그렇다면 격문의 내용을 무엇일까. 격문은 간신의 날뛰는 모습, 민심이 이탈된 것, 官紀의 문란, 행정의 부패, 민생의 도탄 중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之爲臣은 不思報國하고 도적늑위하며 掩蔽聰明하고 加意도容이라. 총간지목을 謂之妖言하고 正直之人을 위之比도하여 內無포圍지제하고 外多확民之官이라.

人民之心은 日益유變하여 入無학생之業하고 出無保子之策이라. 학政이 日사에 怨聲이 相續이로다.

自公卿以下로 以至方伯守令에 不念國家之危殆하고 도절비기윤家之計와 進選之門은 視作生화之路요 응試之場은 擧作交역之市라.

許多화뢰가 不納王庫하고 反充사장이라. 國有累積之債라도 不念國報요 교사음이가 無所위기라. 八路魚肉에 萬民도탄이라.

民爲國本이니 削則國殘이라. 吾道은 유초야유민이나 食君之士하고 服君之義하며 不可坐視 國家

2) 「전봉준공초」(初招問目), 『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151쪽.

3)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102~103쪽.

4) 송재섭,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 83호, 언문부 16~17면.

5)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자료는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되었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별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2001, 지식산업사)라는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지는 進齋 宋在燮(1889~1955) 씨가 단기 4287년(1954)에 펜으로 쓴 필사본인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저술연기가 쓰여져 있다. 필자는 이를 朴英宰 교수를 통해 朴明道 선생(父 朴來源, 祖父 朴寅浩) 댁에 소장되어 있는 원고본의 복사본을 기증받아 보고 있다. 앞뒤가 많이 훼손되었으나 이 檄文과 通文이 1인여진 부분은 온전하다.”

之危亡이라. 以報公 補國安民으로 爲死生之誓라.<sup>6)</sup>

이 격문은 1893년 仲冬 하순에 전봉준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격문의 주요 내용은 간신과 탐관오리의 학정과 도탄에 빠진 民 그리고 보국안민을 맹세하고 있다. 즉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부기포의 첫 단계를 알려주는 격문의 주요 내용은 만민권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전봉준은 고부기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通文을 작성하여 각리 집장에게 포고하였다.<sup>7)</sup>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右文爲通諭事는 無他라. 大廈將傾에 此將奈何오. 坐而待之可乎아. 扶而求之可乎아. 奈若何오. 當此時期하야 海內同胞의 總力으로 以하야 撐而擊之코저하와 血淚를 灑하며 滿天下 同胞에게 衷心으로서 訴하노라.

吾儕飲恨忍痛이 已爲歲積에 悲塞哽咽함은 必無贅論이어나와 今不可忍일새. 茲敢烽火를 舉하야 其衷痛切迫之情를 天下에 大告하는 同時에 義旗를 揮하야 蒼生을 濁浪之中에서 救濟하고 鼓를 鳴하야써 滿朝의 奸臣賊子를 驅除하며 貪官汚吏를 擊懲하고 進하야써 倭를 逐하고 洋을 斥하야 國家를 萬年盤石의 上에 確立코자 하오니 惟我道人是 勿論이요. 一般同胞兄弟도 本年 11月 20日를 期하야 古阜 馬項市로 無漏內應하라. 若-不應者-有하면 梟首하리라.

癸巳 仲冬 月 日

全琿準 宋斗浩 鄭鍾赫 宋大和 金道三 宋柱玉 宋柱晟 黃洪模 黃贊五 宋仁浩 崔興烈 李成夏 崔景善 金應七 黃彩五<sup>8)</sup>

各里 里執綱 座下<sup>9)</sup>

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봉화를 들어 그동안 애통하고 질박한 사정을 천하에 알리

- 6)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격문에 대해 김용섭은 그후 계속 보완되고 다듬어져서 다달 후인 갑오년 정월에는 고부민란 시에 창의문으로 완성되며, 그후 무장봉기 시에는 한문으로 작성된다고 하였다(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194쪽, 각주 108).
- 7) 당시 전봉준 등 동학교인이 고부기포를 준비하면서 통문을 포고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東學推考』이다. 이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에 살았던 유생 柳鳴川이 필사해 남긴 것으로 고부기포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박맹수,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관련 신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2,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5 참조).
- 8) 이 통문에 서명한 인물은 모두 15명이다. 한편 1968년에 공개된 사발통문에는 전봉준 등 20명이 서명하였는데, 5명의 차이가 있다. 이 통문에 참여한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동학혁명 이후 동학군의 활동과 동향」,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을 참조할 것.
- 9)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사발통문에 대해서는 조광환, 「사발통문에 대한 재고찰」, 『동학농민혁명 신 발굴자료 학술대회 논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2006을 참조할 것.



고, 둘째는 의로운 깃발을 들어 창생을 구하고, 셋째는 북을 울려 조정의 간신과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넷째는 척왜척양으로 국가를 튼튼히 하고, 다섯째는 동학교인뿐만 아니라 일반형제동포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1893년 11월 20일까지 마항시 즉 말목장터에서 기포할 것을 포고하였다. 이 통문에는 그동안 동학교단에서 1893년부터 전개하였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척양 의운동에서 주장하였던 것이 집약되었다.

따라서 이 통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반봉건적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반외세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반봉건적이며 반외세적 성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봉준은 격문과 통문을 돌려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자 곳곳에서 민중들이 모여 “낮네 낮서 난리가 낮서. 참말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남아나겠나” 하면서 여론도 기포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의 선후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두호<sup>10)</sup>의 집에 都所를 설치하였다. 都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부기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본부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소에서 연일 모여 기포 이후 전개할 선후책으로 다음의 4개 조항을 정하였다.

-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에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魚한 吏屬을 擊懲할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向할 事<sup>11)</sup>

나아가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를 이끌어 갈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 一. 一狀頭에 全琿準
- 一. 二狀頭에 鄭鍾赫
- 一. 三狀頭에 金道三
- 一. 參謀에 宋大和
- 一. 中軍에 黃洪模
- 一. 火砲將에 金應七<sup>12)</sup>

10) 송재섭은 송두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송두호는 一郡에 명망이 높은 사람이요,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그의 장자 송대화와 함께 대접주의 책임으로 있음으로 일군 내에 토호 양반배가 거사할 시에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가 됨을 제지하고 道衆을 동원시키는 역할에 적의한 인물이었다”(송재섭, 『실기』, 48쪽).

11)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4개 조항은 기존의 사발통문에 있는 4개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一. 郡守에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魚한 吏屬을 擊懲할 事, 一.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向할 事.

12)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통문에 서명하였던 인물 즉 전봉준, 정중혁, 김도삼, 송대화, 황홍모, 김응칠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를 전개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동학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도 동원하고, 격문과 통문을 마련하고 기포 이후 행동 절차, 그리고 지휘본부와 지도부를 조직하였다. 이는 단순한 고부라는 지역적 민란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혁명을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 3. 무장기포와 포고문

고부기포 이후 백산에 유전하였던 동학군은 이용태의 동학교인에 대한 집요한 탄압으로 일시 해산하고 전봉준 등 지도부 무장으로 이동하였다. 전봉준이 무장으로 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고부접주 전봉준의 연원 관계가 무장대접주 손화중의 관내였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무장대접주로 있는 손화중의 동학세력이 호남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관계에서 무장이 지리적으로 고부와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전봉준과 손화중은 단순한 연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지적 결합관계였던 것이다.<sup>13)</sup> 이에 따라 전봉준은 손화중의 후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장에 머물던 전봉준은 손화중과 고부기포의 상황과 관의 동향, 그리고 이후의 대책 등을 논의한 후 손화중의 집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동학교단은 해월 최시행이 머물고 있던 충청도 보은에 대도소를 두었는데, 전봉준과 손화중이 도소를 설치한 것은 대도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호남지역의 동학조직을 통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손화중은 전봉준의 기포에 대해 시기상조라 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sup>14)</sup> 이는 동학교단과 관계 때문이었다.

손화중은 1892년 공주 신평에 머무를 때 김낙철,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지도자와 함께 해월 최시행을 배알하고 호남 동학교인 간의 '相和'에 대한 강화를 받은 바 있다.<sup>15)</sup> 또한 1892년 11월 삼례교조신원운동은 물론 1893년 2월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도 참가하였다.<sup>16)</sup> 뿐만 아니라 이해 3월 보은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운동에 정읍대접주로 참가하였다.<sup>17)</sup>

13) 신용하,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사』, 143~144쪽.

14)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103쪽.

15) 오지영, 『동학사』, 98~99쪽;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43쪽.

16) 『해월선생문집』, 계사조.

17) 오지영, 『동학사』, 83~84쪽.

이처럼 동학교단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손화중은 전봉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전봉준이 3월 13일 고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일시적으로 해산하고 3월 20일 무장에서 다시 기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간에 손화중이 교단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sup>18)</sup>

이에 따라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대접주들은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은 처벌할 것”<sup>19)</sup>을 기치로 하여,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포의 동학조직을 집결한 후 3월 20일 무장 동음지에서 고부에 이어 포고문을 선포하였다.<sup>20)</sup>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23)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는 인륜 중에서 큰 것인데,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강직하며,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를 한 이후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끝이 없는 복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며, 신통력 있는 명확함과 성스러운 명석함을 지니셨다. 현명하고 어질며 바르고 강직한 신하가 주위에서 명석하도록 도와주면 요순(堯舜)의 교화와 문경(文景)의 통치를 가히 지칭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랄 수가 있다.

지금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흠치며, 전하의 총명을 가려서 아부하고 뜻만 맞추면서 충성스럽게 간언(諫言)을 하는 선비에게는 요망한 말을 한 다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부른다. 안으로는 나라에 보답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아, 백성들의 마음은 날마다 더욱 변하여 가정에 들어가서는 생업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고, 밖에 나와서는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며, 학정이 날마다 심하여 ‘악’ 하는 소리가 서로 계속되고 있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부모와 자식의 윤리, 위와 아래의 분별이 반대로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는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퍼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 심각하다. 정승 이하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살찌우고 가문을 윤택하게 할 계획에만 마음이 간절하고, 인사를 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통로는 재물을 생기게 하는 길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시험 장소는 물건을 교역하는 시장과 같게 되었고, 많은 재물과 뇌물이 왕실 창고에 납부되지 않고 도리어 개인 창고를 채워 나라에는 채무가 쌓였다.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고 멋대로 놀아 두려워하고 거리

18) 이러한 사례는 1871년 이필제의 영해교조신원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필제는 영해를 중심으로 동학교인을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동학교단의 책임자였던 해월 최시형의 승낙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이에 이필제는 해월 최시형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박영관 등을 보내 해월 최시형을 설득, 승낙을 받은 후에야 동학교인을 동원할 수 있었다.

19) 황현, 『오하기문』, 수필; 김종의 역,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2쪽.

20) 박문규, 『석남역사』, 갑오년 4월호; 황현, 『오하기문』 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7쪽.

끼는 것이 없으니, 전국은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들의 탐욕은 참으로 그대로이다. 어찌 백성이 궁핍하고 또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깎이면 나라는 쇠약해지는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저택을 건립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할 방법만을 찾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흠치니, 어찌 그것이 사리이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시골에 남겨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살고 임금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아아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없어, 8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이 의논하여 지금 의로운 깃발을 내걸고 보국안민(輔國安民)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을 맹세하였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놀라운 것에 속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 백성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태평한 세월이 되도록 함께 기원하며, 모두 임금의 교화에 감화된다면 천만다행이다.<sup>21)</sup>

천봉준, 손화중, 김개남 3인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무장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륜의 보편적 인식이다. 포고문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대해서는 군신부자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보편적 윤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당시 유교적 사회로서 당연한 내용이기

21) 무장에서 동학조직이 기포할 때 선포하였던 포고문은 오지영의 『동학사』, 『수록』, 어윤중의 『취어』, 황현의 『오하기문』, 박주대의 『나암수록』, 『Mutel 文書』, 그리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에 각각 실려 있다. 이중 『수록』, 『오하기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의 포고문은 동일한 내용이고, 『동학사』의 '창의문'은 앞의 포고문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그리고 이 포고문은 발표일이 없어 언제 발표되었는지 알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학사』에는 '갑오정월', 『수록』에는 갑오년 3월 27일조 앞에, 『취어』에는 갑오년 4월 11일조에, 『오하기문』에는 3월조에,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1894년 5월 15일(음 4월 11일)자 각지에서 보고된 문서 별지에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이 작성한 『조선폭동실기』('적도의 격문')와 『갑오조선내란시말』('동학당의 선언')에도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발행되었던 일본신문 『時事時報』(5월 25일자), 『大阪朝日新聞』(5월 25일자), 『大阪毎日新聞』(5월 25일자)에도 각각 게재되었다.

대체적으로 이 포고문은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할 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 '포고문'과 『동학사』의 창의문을 비교하기 위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世上에서 사람을 貴타 함은 人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人倫이 가장 큰 者라. 人君이 어질고 臣下가 곧으며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孝道한 後에야 國家가 無疆의 域에 믿어가는 것이다. 同我 聖上은 仁孝慈愛하고 神明聖敎한지라 賢良方正之臣이 있어 그 聰明을 翼贊할지면 堯舜之化와 文景之治를 可히써 바랄지라. 今日에 人臣된者 圖報를 思치 않고 한갓 祿位만 盜賊하여 聰明을 擁蔽할 뿐이라. 忠諫之士를 妖言이라 이르고 正直之人을 匪徒라 하여 안으로는 輔國의 材가 없고 밖으로는 虐民이 많다. 人民의 마음은 날로 變하여 들어서는 樂生의 業이 없고 나가서는 保身의 責이 없다. 虐政이 날로 자라 怨聲이 그치지 아니하여 君臣父子 上下의 分이 무너지고 말았다. 所謂 公卿 以下 方伯守令들은 國家의 危難을 生覺지도 아니하고 다만 肥己潤産에만 盡切하여 詮選의 門을 돈 버리려 볼뿐이며 應試의 場은 賣買하는 저지와 같았다. 許多한 貨賂는 國庫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個人의 私藏을 채우고 만 것이며, 國家에는 積累의 債가 있어도 淸償하기를 生覺지 아니하고 驕慢하고 奢侈하고 淫亂하고 더러운 일만을 忌憚 없이 行하여 八路가 魚肉이 되고 萬民이 塗炭에 들었다. 守宰의 貪虐에 百姓이 어찌 困窮치 아니하라. 百姓은 國家의 根本이라 根本이 衰削하면 國家는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輔國安民의 責을 生覺지 아니하고 다만 제 몸만을 生覺하여 國祿만 없애는 것이 어찌 오늘 일이라. 우리 등이 비록 在野의 遺民이나 君土를 먹고 君衣를 입고 사는 者라. 어찌 차마 國家의 滅亡을 앉아서 보겠느냐. 八域이 同心하고 億兆가 詢議하여 이에 義旗를 들어 輔國安民으로써 死生의 盟誓를 하노니, 今日의 光景에 놀라지 말고 昇平聖化와 함께 들어가 살아보기를 바라노라. 甲午 正月 日 湖南 倡義所 全璿準 孫化中 金開男 等”

도 하지만 충과 효는 유교, 불교, 동학 등 종교적, 사상적 관점을 떠나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탐관오리의 행태이다. 전봉준 등은 당시 관료사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앙의 공경으로부터 지방의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사리사욕에 대한 부패상, 그 부패로 인해 국가가 처한 존망의 위기의식, 과거에 대한 매관매직 등이다. 즉 보국의 인제가 없다고 개탄하였다.

셋째는 민중들의 피폐한 생활이다. 虐民의 관리만 있어 민중들은 삶과 생업을 빼앗기고 몸을 보존할 대책마저 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은 塗炭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보국안민의 대책이다. 양반 관료들은 국가가 존망에 처했음에도 보국안민할 방책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동학군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없어진다면 나라가 망할 수 있으므로 의로운 깃발을 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동학군은 '의로운 창의군'임을 밝히고 있으며 기포의 정당성을 표방하였다.

이로 볼 때 무장포고문은 다분히 유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보국안민'과 '제세안민' 할 것을 표방하였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고부기포의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보다 한 걸음 후퇴한 반봉건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장기포는 외세의 침략 즉 반외세에 대한 인식보다는 부패한 사회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죽음을 맹세한다는 반봉건적 인식이 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기포 포고문에서의 보국안민은 "폭정을 물리쳐 백성을 구원하며,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평안케 한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장기포(서) 제1지령서  
안민안민  
살인 안민안민 제1지령  
각의 임무이해는  
인정하지 않으니 무장  
안민안민

#### 4. 백산대회와 격문

3월 20일경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군은 고부와 흥덕관을 점령한 후 3월 26일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다음과 같이 지휘체계를 개편하였다.

- 대 장 전봉준
- 총관영 손화중 김개남
-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 영술장 최경선
- 비 서 송희옥 정백현

백산총신회  
김개남  
송희옥  
정백현

백산에서 개편된 지휘체계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확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장에서 기포할 당시에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단순한 지휘체계였지만, 백산에서는 보다 분명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전봉준은 최고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립하였고, 그 아래 총관령에 손화중과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과 오시영, 영술장에 최경선, 그리고 전봉준의 비서로 송희옥과 정백현을 각각 두었다. 이는 무장기포 당시 보다 조직이 혁명군으로서의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호남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격문을 각지로 발송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義를 들어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磐石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貪虐한 官리의 머리를 베이고 밖으로는 橫暴한 強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首領의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怨恨이 깊은 耆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時刻으로 일어서라. 萬一 期會를 잃으면 後悔하여도 믿지 못하리라.<sup>22)</sup>

이 격문은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유일한 것이지만, 당시 동학농민군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sup>23)</sup> 즉 동학농민군의 기포가 첫째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둘째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 함을 그 목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처결, 밖으로는 외세의 구축이라는 반봉건적, 반제국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교적 지배질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서 각지에 파송한 격문은 '혁명'임을 선포하는 함축적인 뜻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산으로 호남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집결함에 따라 동학농민군은 새로운 강령과 군율이 필요하였다. 이미 '동학'이라는 종교적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보다 분명히 할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4대 名義'(강령)와 '12조의 紀律'(군율)을 제정하였다. 먼저 4대 명의를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없애지 않는다(不殺人 不殺物).

22) 오지영, 『동학사』, 112쪽.

23) 신용하는 백산대회에서 발표한 격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힘 바 있다.

“이 격문은 뒤의 집강소의 행정개혁 12개조와 함께 농민군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격문이다. 무장기포의 창 의문에서는 봉기가 국왕에 대한 반역이 아님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에 급급하여 봉기의 본뜻을 충분히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유교의 용어를 분식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고부 점령에 성공하고 백산에서 1만 명의 농민군을 편성하는데 성공한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거릴 것이 없이 자유로운 조건 위에서 대담하고 솔직하게 봉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백산의 격문은 농민혁명 선언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155쪽).

- ① 둘째, 충과 효를 함께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忠孝雙全 濟世安民).
- ② 셋째,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 없애고 성스러운 도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
- ③ 넷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驅兵入京 盡滅權貴).<sup>24)</sup>

이 4대 명의를 인륜적 보편의 의미를 담고 있는 生物의 존중과 충효, 그리고 격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셋째 항목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없애지 않는 것은 동학사상의 핵심인 삼경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인본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不殺物'은 해월 최시형의 '物物天事事天'과 '敬天, 敬人, 敬物'의 삼경사상 중 敬物思想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항목의 충과 효는 유교적 윤리로서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고대에서부터 유지되고 있었던 인간의 기본적 덕목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階序의 질서가 필요하였던 성리학적 조선사회에서 보다 강조되었지만 이는 동학에서도 여전히 강조되었던 덕목이었다.<sup>25)</sup> 셋째 항목은 반제국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격문의 '횡폭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을 행동강령으로 나타낸 것으로 일제의 침략주의를 배격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다. 넷째 항목은 반봉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격문에서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라고 한 바와 같이, 중앙 조정의 부패한 권세가와 양반들을 제거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창생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4대 명의를 동학의 생명존중사상과 인간 본연의 윤리, 그리고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을 밝힌 것이었다.

나아가 백산의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역시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12개조의 규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1. 항복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한다(降者愛對).

24) 정교, 『대한계년사』 권2, 1894년 4월조 ; 정교著 조광編, 『대한계년사』 권2, 소명출판, 2004, 24쪽. 그리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의하면, “인명과 물건을 해치지 않고,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하며, 洋人과 倭人을 내쫓아 聖道를 밝히고, 군대를 몰아 경성으로 들어가 권세를 모두 멸한다(均勿傷人物害 忠孝雙全濟世安民 逐滅洋倭澄清聖道 驅兵入京盡滅權貴).”라고 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세력까지 구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쪽 및 335쪽). 이외에도 『內亂實記朝鮮事件』(『총서』 25, 175쪽)에도 게재되어 있다.

25) 특히 해월 최시형은 그의 법설에서 효를 강조하였다. “천지부모를 기리 모서 잊지 아니함을 깊은 데 임한 듯이 하며, 옅은 어름같이 하여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효도로써 지극히 공경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자식된 도리니라. 그 아들딸이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하고 삼갈지어다. (중략) 어려서 먹은 것이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은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이것이 천지의 녹이니라. 사람이 천지의 녹인줄 알면 반드시 식고하는 이치를 알 것이니 어머니의 젖으로 자란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써 봉양할 마음이 나는 것이니라”(『천지부모』, 『천도교정전』, 천도교중앙총부, 1971, 137~141쪽).

2. 곤궁한 사람은 구제한다(困者救濟).
3. 탐학한 관리는 아낸다(貪官逐之).
4. 따르는 사람은 경복한다(順者敬服).
5. 굶주린 사람은 먹여준다(飢者饋之).
6.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없앤다(姦猾息之).
7. 도주하는 사람은 쫓지 않는다(走者勿追).
8. 가난한 사람은 진휼한다(貧者賑恤).
9. 불충한 사람은 제거한다(不忠除之).
10. 거역하는 사람은 효유한다(逆者曉諭).
11. 병든 사람은 약을 준다(病者給藥).
12. 불효하는 사람은 형벌한다(不孝刑之).<sup>26)</sup>

이 12개조 기율은 4대 명의 중에서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었다. 즉 생명존중의 인본주의적 요소와 충효의 사회적 윤리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봉준이 각 부대장에게 당부한 약속과도 같다. 즉 전봉준은 “언제나 적을 대할 때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겠다. 비록 부득이 싸우더라도 절대 인명을 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행군할 때는 절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효제충신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 주위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sup>27)</sup>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20쪽 및 346쪽;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154쪽. 동학농민군의 ‘12개조의 기율(軍율)’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3월 25일설(정교, 『대한계년사』;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54쪽), 둘째 3월말 또는 4월 초설(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40쪽), 셋째 4월 중순설(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상황』, 『동학연구』 11, 한국동학학회, 2002, 49~50쪽) 등이다. 이 기율은 앞서의 『대한계년사』 외에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19~20쪽), 『동비토록』(『동학농민혁명명국역총서』 3, 115~116쪽), 『조선폭동실기』의 「동학당 대장의 호령」에 실려 있다. 그리고 같은 책의 「영광 적영의 군령장과 계군령」에도 실려 있다. 또한 『갑오조선내란시말』(「동학당의 군기」), 『內亂實記朝鮮事件』(「東徒12條의 軍旗」)에도 실려 있다.

이외에도 『東京朝日新聞』(「동학당 대장의 호령」, 6월 3일자), 『萬朝報』(「東徒 12條의 軍旗」, 6월 5일자), 『大阪朝日新聞』(「12條의 軍旗」, 6월 3일자) 등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에도 실려 있다. 배항섭은 ‘12개조의 기율’이 동학농민군의 영광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4월 중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실려 있는 기율은 시간적으로 전후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신문에 소개되고 있는 ‘12조의 기율’은 한 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동일한 기사이다. 그리고 이들 신문의 기사의 전후관계를 보면 일정하지가 않다. 이는 ‘12조의 기율’이 영광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사이며, 편집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편익상 게재한 것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폭동실기』이다. 이 책에는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앞뒤 면에 실려 있는데, 오히려 영광 관련 기사에 실려 있는 ‘戒軍令’은 2개조가 누락되어 10개조만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소개된 기율의 전후 기사를 보면 특히 『동비토록』의 경우 4월 21일조에 함께 실려 있지만, 제목은 ‘정담기로서 독립적인 기사이고 바로 이어 4월 4일에 ‘東徒가 법성포의 아전과 향임에게 보내는 통문’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동비토록』의 내용 역시 일본 신문이나 일본인들이 남긴 것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갑오조선내란시말』이란 책은 동학농민혁명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는데, ‘12조의 기율’은 백산대회에 이어지고 있고, 영광과 관련된 동학농민군의 활동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2조의 기율’은 백산대회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각 지역 동학농민군이 기율로 지켜져 오던 것을 정담하여 기사로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고부기포,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 등 동학농민혁명 초기의 격문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부기포와 관련된 격문은 두 가지였다. 준비 과정에서 발표되었던 격문과 사발통문이 있다. 격문의 주요 내용은 간신과 탐관오리의 학정과 도탄에 빠진 민, 그리고 보국안민을 맹세하고 있다. 즉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부기포의 첫 단계를 알려주는 격문의 주요 내용은 '반봉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 고부기포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발통문은 봉화를 들어 그동안 애통하고 절박한 사정을 천하에 알리고, 의로운 깃발을 들어 창생을 구하고, 복을 울려 조정의 간신과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척왜척양으로 국가를 튼튼히 하고, 동학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동포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1893년 11월 20일까지 마항시 즉 말목장터에서 기포할 것을 포고하였다. 이 통문에는 그동안 동학교단에서 1893년부터 전개하였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운동에서 주장하였던 것이 집약되었다. 따라서 이 통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반봉건적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반외세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반봉건적이며 반외세적 성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연합전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아울러 내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고부기포는 반봉건, 반외세, 그리고 연합전선의 성격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무장기포에서는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포고문의 내용은 인륜의 보편적 인식, 탐관오리의 행태, 민중들의 피폐한 생활, 보국안민의 대책 등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무장기포 포고문은 다분히 유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보국안민'과 '제세안민'할 것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고부기포의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보다 한 걸음 후퇴한 반봉건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장기포는 외세의 침략 즉 반외세에 대한 인식보다는 부패한 사회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죽음을 맹세한다는 반봉건적 인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백산대회의 격문이다. 이 격문은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처결, 밖으로는 외세의 구축이라는 반봉건적, 반제국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교적 지배질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서 각지에 파송한 격문은 '혁명'임을 선포하

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쪽.

는 함축적인 뜻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고부기포는 반봉건·반외세와 연합전선의 성격을, 무장기포는 반봉건적 성격을, 그리고 백산대회는 반봉건·반외세와 연합전선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모지신보(門司新報)을 중심으로 -



##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모지신보(門司新報)을 중심으로 -

강 효 숙 | 원광대학교

- 
1. 들어가는 글
  2. 일본 문헌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3. 제1차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4. 제2차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인식
  5. 맺는 글
- 

### 1. 들어가는 글

1894년부터 1895년에 이르는 동학농민전쟁은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조선 전국에서 동학과 농민을 기본으로 한 조직과 사상을 기본으로 1년 이상의 대내외적인 투쟁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사 혹은 세계사적으로도 새로이 평가받아야 할 충분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일본 측의 초기 연구는, 대체적으로, 특히 제1차 동학농민전쟁은 청일전쟁의 계기 내지 도화선으로서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배경,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청일전쟁이 일본정부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을 통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책략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방법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자칫 일반인들에게 동학농민전쟁이 청일전쟁을 발발시킨 것과 같은 뉘앙스로 전달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조선정부가 창궐하는 농민군의 위세를 다스리지 못하여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자 친진조약과 제물포조약을 근거삼아 재빨리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였다. 일찍부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sup>1)</sup>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일본의 이익선으로<sup>2)</sup> 인식되었던 조선에 대한 욕망이 맞물려 조선 침략을 준비해 왔던 일본에게 있어 조선정부의 청군 요청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6월 5일 곧바로 대본영을 설치하고, 재조 일본영사관 및 거류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6월 15일에는 그 인원이 5,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후 군용전선 가설대 파견을 시작으로 비합적으로 경부간 군용도로를 수리해 가며 주요 지역에 병참부를 설치하고 각 병참부마다 수비대를 두어 병참업무에 충실을 기했다. 그 과정에서 7월 23일에는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여 친일내각을 구성하여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장악하였고, 곧이어 청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던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이후 영국으로부터 청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시베리아철도부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해에 부동향을 구하고자 한 러시아는 결국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에 대해 중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본 발표는 가능한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에 맞추고자 제1차 동학농민전쟁을 중심으로, 먼저 일본 측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특히 한국과 선박 왕래가 깊었던 오사카항(大阪港)과 모지항(門司港) 지역의 신문 기사를 통하여 일본의 지역신문이 동학농민전쟁을 어떻게 전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사카 지역신문으로는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을, 모지지역 신문으로는 『모지신보(門司新報)』를 대상으로 삼았다. 오사카는 일찍부터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은 국내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 신문이기도 하다. 모지항은 시모노세키(下關)항 맞은편에 위치한 항구로 1889년 개항한 이래 수많은 외국 선박이 왕래하였으며 그러한 까닭에 당시 조선에 관한 정보가 다른 곳보다 빨리 전달된 곳 중의 한 곳이다. 국내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지신보 역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모지신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두 신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기사는 편의상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와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와 모지신보사는 인천과 한성의 정보제공자

1) 일본신문인 지지신보(『時事新報』) 1885년 3월 16일자에 실린 사설로 “惡友(야만국)인 조선과 청국과는 사절하고 “서양 근대문명국”인 서구열강에 합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글로 인식하고 있다.

2)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영국의 아시아 진출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부설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1888년 일본을 주권선으로 한 일본의 이익선으로써의 조선을 상징하고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의견서는 이후 일본정부의 조선 및 해외침략의 기초가 되었다.

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1894년 5월 즈음에 이 두 지역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 상인 20여 명이 금산과 군산지역에 들어가 있음이 확인된다.<sup>3)</sup> 두 신문사는 오사카항과 모지항에 출입하는 수십 척에 달하는 여객선의 승객과 군함의 군인, 군속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두 지역이 일본 국내에서는 조선과 가장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조선에 파견되자마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는 특파원 다카기 도시타(高木利太)를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기사화하였다.<sup>4)</sup> 모지신보사는 7월 6일 부산에 체류 중이던 모지신보사원을 제1특파원으로 삼았는데 그의 필명은 萍蓬生이다. 7월 25일 오오타 쓰요시(太田剛)가 새로이 부산에 파견되었고, 청일전쟁이 개전되자 가와다 세이조(川田政三)를 중군기자로 인천에 파견하였다.<sup>5)</sup> 10월 24일경에는 대본영이 설치되어 있는 히로시마(廣島)에 아사히 사쿠라노켄(旭櫻軒) 주인을 출장보냈고, 오기와라 하야노스케(萩原速之助)를 인천에 특파할 예정으로 이미 일본정부의 허락을 받았다.<sup>6)</sup>

이와 같이하여 수집된 정보가 오사카와 모지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형성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이후 일본 지역민들의 對조선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본고가 향후 일본 각 지역신문 등의 자료에 드러나는 동학농민전쟁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는 데 작은 단초로 제공되길 바란다.

참고로 본고의 일지는 자료 관계상 양력으로 표기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 중간에 음력 일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정보 제공일과 기사 게재일을 구분하기 위해 게재일은 '일자'로 표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3) 「東學黨の騷亂(承前)」, 1894. 5. 26, 『大阪毎日新聞』.

4) 「朝鮮特派」, 1894. 6. 9, 『大阪毎日新聞』. 참고로 다카기 도시타(高木利太, 1871~1933). 후젠(豊前) 오이타(大分県) 나카즈(中津) 출신으로 慶応義塾를 졸업한 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에 입사하여 청일전쟁 중군기자로 활동하였다. 같은 시기 닛뽀(日本)신문기자 후쿠모투 에이치(福本誠一)·사쿠라다 분고(櫻田文吾), 호치(報知)신문기자 마에가와(前川九万人)·오소즈카 킨타로(運塚金太郎), 후소(扶桑)신문기자 스즈키(鈴木經動) 등이 히고마루(備後丸)에 승선하여 조선으로 출발하였다. 지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6월 18일(음 5월 15일) 경 농민군이 봉기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일본인 16명도 확인된다.(朝鮮内亂彙報 「新聞記者渡韓」, 『門司新報』, 1894. 6. 17; 「亂地の日本人」, 『大阪毎日新聞』, 1894. 6. 18.)

5) 「門司新報と兩特派員」, 『門司新報』, 1894. 7. 27.

6) 「社告」, 『門司新報』, 1894. 10. 25.

## 2. 일본 문헌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동학농민군(이하 농민군)과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은 이에 대해 표현된 용어를 통하여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1894, 1895년 당시 일본군이 작성한 관련 사료에는 농민군에 대해 “반도(叛徒)·“폭민(暴民)·“난민(亂民)·“비도(匪徒)·“동도(東徒)·“적도(賊徒)·“반민(反民)·“동학비도(東學匪徒)·“난도(亂徒)” 등으로 표현하였고,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는 “동학당민란(東學黨民亂)·“조선사변(朝鮮事變)·“조선국내 변란(朝鮮國內の變亂)·“동학변란(東學變亂)·“동학당의 난(東學黨の亂)·“조선민요(朝鮮民擾)·“비요(匪擾)”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동학군대 그리고 그에 흡수되거나 혹은 동학을 이용한 순수한 농민군이라 평한 사료도 있지만,<sup>7)</sup> 동학농민전쟁 전 시기를 거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조선의 일반인들은 농민군에 대해 “동학꾼(동학クン)”이라 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군대와는 다른 순수한 한국어의 “꾼”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로는 일본 기록에 나타나는 “クン”은 한국 발음으로는 “군” 혹은 “꾼”으로 읽을 수 있는데 만약 일본군이 “동학クン”을 동학의 군대로 이해하였다면 다른 사료와 마찬가지로 “동학군(東學軍)”이라고 명시했을 것이다. 단지 “クン”으로만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이는 군대와는 다른 의미인, 어떤 한 가지 일에 능통한 사람 혹은 그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꾼”으로 이해하고 기술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동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칭한 것이다.<sup>8)</sup>

1896년에 가와사키 시잔(川崎紫山)이 저술한 『日清陸戰史』에는 농민군과 동학농민전쟁을 “난민(亂民)”, “반도(叛徒)”, “동학도(東學徒)”, “동도(東徒)”, “민란”, “동학당의 난”으로 칭하였고, 동학농민전쟁의 목적은 첫째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데 있고, 둘째 서양인과 외국의 교의를 배척하는데 있다고 기술하였다. 농민군은 1893년에 일시 봉기하였다가 국왕의 칙서에 의해 해산하였으나 1894년 3, 4월에 전라도 고부현 부근에서 농민군이 집회하였고, 5월에 이르러 고부, 흥덕, 태인, 영광, 정읍, 부안, 여산, 백산에서 지방관의 탐학에 분개하여 폭관(暴官)과 흑리(酷吏)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봉기하였는데 이것을 지휘하고 조종한 것이 “동학당”이라 하였다. 이 시기 농민군이 원하는 바는 오직 탐관오리를 주살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 있을 뿐이었다고 하였다. 농민군의 기세가 드높아지자 초토사로 파견된 흥계훈은 관군의 힘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려된다고 조선정부에 보고하면서 외국병사를 빌려 진압할 것을 청하였고, 농민군에 의해 전주성이 함락되자 조선정부는 결국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농민군은 놀래어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sup>9)</sup>

7)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千代田 文庫 77』.

8)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302쪽.



일본 육군 장교들이 조직한 일본 개행사(偕行社)에서 1896년에 발행한 잡지 『偕行社記事』에 독일 육군대학교 학생인 중위 쿠녹스키와 플레크돌프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글이 실렸는데, 동학농민전쟁을 조선 남부의 “폭동”, “소란”, “폭거”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동학에 대해서는 조선의 정치·종교적 비밀결사로 인식하였고 외국인을 방축하고 모든 외국 사물을 박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조선정부와 압제적이고 포악한 관리에 대해 분개한 조선 일반인들의 후원을 받아 봉기하였다고 소개하였다.<sup>10)</sup> 게재된 잡지와 글을 작성한 신분이 군인이라는 특징으로 보아 정보 수집처는 조선에 파견된 독일 정보원 내지 특파원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일본 육군성 혹은 일본군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참모본에서 1904년 발행한 『명치 27년 일청전사 제1권』에는 1894년 5월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전쟁을 “동학당비의 난(東學黨匪ノ亂)”이라 칭하였다가 조선정부가 청국에 원병을 요청한 후에는 “변란”, “내란”으로 개칭하였다.<sup>11)</sup> 이 자료에는 농민군의 봉기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직 농민군이 남부지방에서 일어나 그 기세를 진압하지 못한 조선정부가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청국은 일본과의 사이에 체결한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원병 파병을 알렸고 일본은 그에 따라 조선의 자국 공사관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1930년에 발간된 다호바시(田保橋)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는 당시 일본 외무성의 자료를 충실히 사용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다호바시는 동학을 “동학도(東學道)”라 하여 한때는 일본 국내에서도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불량한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종교 단체라고 기술하였다. 또 그는 조선정부가 동학을 허락했다면 조선 특유의 평민 종교로서 평화로이 발달했을 것이나 엄한 계급제도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 동학도의 불만과 동학의 힘을 빌려 개인적인 야심을 드러내려는 자들이 연결되어 “동학당 변란(變亂)”, “동학도도의 소요(東學道徒ノ騷擾)”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sup>12)</sup> 고부봉기 이후에는 호칭이 “동도(東徒)”, “동학당비(東學黨匪)”, “폭동”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다호바시는 전봉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봉준은 체구는 왜소하지만 성격이 강건하고 의지가 강고할 뿐 아니라 용맹하여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적이 없었다. 전봉준은 1895년 고부에서 태어났으며 출신은 소위 이속으로 지방의 지식 계급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사서를 읽어 고급에 정통하였다. 그의 부친은 고부군 관아의 관리로 그 성격이 강건하여 탐학스러운 군수에 분노하여 농민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였다가 체포되어 매를 맞고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 전봉준은 이에 복수할 것과 민중의 괴로움을

9) 川崎紫山, 『日清陸戰史』, 春陽堂, 1896, 25~29쪽.

10) 偕行社, 『偕行社記事 150號』, 1896, 68~69쪽. 개행사는 1877년에 3,000여 명의 일본 육군 장교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후 각 사단 소재지로 확대되었으며 현존하는 단체이다.

11) 日本 參謀本部, 『日清戰史 第1卷』,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5쪽.

12)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原書房, 1930, 44~48쪽.

없애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동학의 교의가 자신의 뜻과 부합함이 적지 않음을 알고 1874년 최시형을 만나 그 교의를 듣고 신도가 되었다고 기술하였다.<sup>13)</sup>

이상의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초기의 몇 가지 일본군 자료와 문헌에서 살펴보았듯이 1894년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그 배경 및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청일전쟁이 일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을 도화선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대외적인 책략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학당의 난(東學黨の亂)”이라 부르다가 1968년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가 그의 저서 『日清戰爭の研究』에서 새로이 “갑오농민전쟁”이란 용어로 소개한 이후 대체적으로 “갑오농민전쟁”이라 칭하고 있다. 나카쓰카 아키라는 참가한 농민들이 모두가 동학의 신도는 아니었고, 정당(政黨) 형식의 “동학당”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갑오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발생한 농민반란에서 시작된 일련의 농민의 대반란, 무장봉기라는 의미로 갑오농민전쟁이라 칭한다고 설명하였다.<sup>14)</sup> 또 “갑오농민전쟁”은 고부민란이 계기가 되었고, 황토현전투에서 농민군이 관군에 승리함으로써 농민전쟁은 전라도에서 충청도, 경상도의 일부로 확대되어 갔고, 결국 장성전투의 승리를 거쳐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술하였다.

재일동포 학자 김규승은 1991년 발간된 그의 저서 『日本の朝鮮侵略と法制史』를 통해 갑오농민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1894년 2월의 고부민란이라 기술하면서 “농민군(農民軍)”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sup>15)</sup> 조정달의 경우는 1998년 발행된 『異端の民衆反亂』에서 고부민란을 갑오농민전쟁의 전단계로 보았으며 이후를 제1차 갑오농민전쟁으로 보고 이 시기는 타도민씨의 특성을 지닌 시기로 구분하였다.<sup>16)</sup> 조정달은 “동학도”, “동학군”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3. 제1차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현재 수집된 자료 상,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이하 오사카마이니치)에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최초의 기사는 4월 29일(음 3월 24일)자에 등장한다. 전라도 고부 이하 7개 읍의 인

13) 같은 글, 『近代日鮮關係の研究』, 61쪽.

14) 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1968, 105쪽. ㄷ

15) 金圭昇, 『日本の朝鮮侵略と法制史』, 社會評論社, 1991(東京), 82쪽.

16)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 1998, 岩波書店, 163~169쪽.

민 수만 명이 봉기하여 백건(白巾)을 머리에 두르고 황기(黃旗)를 펼치며 전운사 조필영(趙弼永)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농민군이 점차 경기도로 나가려 하는 기세여서 전라감영에서 수백 명의 병사를 파견하여 진무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조선정부에서 4월 9일 엄세영(嚴世永)을 선무사로 파견하였다는 내용이다.<sup>17)</sup>

1894년 5월 7일(음 4월 3일) 어느 일본인은 인천에서 조선중앙군 약 600이 창용호에 탑승하여 군산을 향하여 출발한 것을 보았는데, 그는 농민군이 봉기한 곳은 전라도 고부이고, 민씨 일족(원 자료에는 閔黨)과 외세 특히 일본인에 대해 불평을 지닌 일종의 “양이당(攘夷黨)”이 봉기하였고, “양이당”은 병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오합단체로 중앙군에게 진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sup>18)</sup>

1894년 5월 12일 인천 감리아문에 전라도 금산에서 보부상 무리가 농민군을 패배시키고 장위영병의 상륙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되었으며,<sup>19)</sup> 5월 16일에는 인천에서 오사카에 평안도 내에서도 농민봉기가 발생하여 그 기세가 창궐하다는 정보가 전해졌다.<sup>20)</sup> 5월 15일 충청도 문지리(文旨里)라는 곳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여 관리를 내쫓고 병기를 빼앗아 수백 정의 총을 지니고 공주를 진격하려 하여 충청감사가 전주 비장으로 하여금 탄압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감사는 도주하였다. 또 보은지역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하여 사랑에 격문을 발하였는데 환영을 받아 그 기세가 점점 왕성해졌으며, 5백~6백 명이 1개 부대를 이루어 은연중에 관청을 습격하여 병기와 곡물을 약탈하거나 공미를 빼앗았는데 최시형이 보은에 이르러 그들에 가담했다고 한다.<sup>21)</sup>

5월 19일자에, 전라도 “고부폭동”은 흥덕, 나주, 태인, 고창, 부안 등 제읍이 연합한 봉기이고 그 선동자는 “동학당”이라고 전해졌다. 조선정부는 초토사 홍계훈에게 장위영병 800명을 인솔하게 하여 파견하였는데, 마침 충청도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하여 청주를 둘러싸고 있고, 거문도 첨사(僉使) 조의문(趙義聞)은 명령에 따라 출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기타 서학당(西學黨)이 있는 각지에서도 봉기를 기도하고 있고, 경상도 김해부민 8,000여 명이 김해부를 습격하였고,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서는 러시아 둔전병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문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고 전해졌다.<sup>22)</sup>

모지신보(門司新報. 이하 모지신보)에 최초로 농민군 관련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1894년 5월 24일자로, 고부 이하 각 읍의 인민이 지방관의 학정과 폭렴(暴斂)에 대해 봉기하였다고 전하였다. 정보 제공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선의 보부상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17) 「白被黃旗の賊朝鮮に起る」, 『大阪毎日新聞』, 1894. 4. 29.

18) 「東學黨の再起」, 『大阪毎日新聞』, 1894. 5. 15.

19) 「朝鮮民亂に就て」, 『大阪毎日新聞』, 1894. 5. 22.

20) 「朝鮮暴民の蜂起」, 『大阪毎日新聞』, 1894. 5. 17.

21) 「東學黨亦亂る」, 『大阪毎日新聞』, 1894. 5. 15.

22) 「朝鮮民亂の事」, 『大阪毎日新聞』, 1894. 5. 19.

한다.<sup>23)</sup> 5월 25일자에는 농민군의 봉기는 종래의 봉기와는 달리 무기를 준비하였고, 또한 조선 왕조 500년 후에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일어났는데 이를 따르는 자가 5만~6만 명에 이르며, 그 목적은 간신 즉 민씨 일족을 망하게 하고 왜양(倭洋) 축출에 있다고 전하였다.<sup>24)</sup>

이와는 달리 오사카마이니치신문 5월 25일자에, 1893년에 발생한 동학 봉기는 충청도를 근거지로 하여 오직 내정에 대해서는 간신을 물리치고 충신을 권하였으며 밖으로는 척왜척양을 주장하는 등 국가적 목표가 있었지만, 이번 봉기는 일정한 주의(主義)없이 지방관의 학정에 봉기한 민란에 소외된 지방 양반, 도적, 도박사들이 합류한 것이고, 동학당이 이러한 지방의 소란을 이용하여 불평당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 이번 민란을 기회로 일어난 동학 일파는 처음에 4,000여 명을 결합하였는데 그 반수가 모두 화승총을 지니고 있으며, 100명으로 구성된 기마대가 있었고, 공미나 병기를 약탈하여 비축한 양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 시기 농민군의 근거지는 고부 북쪽의 백산으로 노송이 한 그루 서 있고 삼 면이 절벽인 곳으로 좁은 길을 따라 산정에 오르면 깊은 계곡이 있어 수천 명이 숨을 수 있다고 하였다. 농민의 복장은 백건을 머리에 들렀고 휘장을 하였고 기마부대는 일반 조선인 복장을 하였다고 한다. 백산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승리를 거둔 사실도 전하였다.<sup>25)</sup>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은 6월 8일자에, 농민군이 봉기한 이유는 양왜척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감히 왕권 도전이 아니라 간신을 폐할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sup>26)</sup> 같은 신문 같은 일자에 농민군이 고부에서 처음 봉기했을 때 선언한 바는 치세안민에 있었고, 법성읍에서 발한 통문에 의하면 인민이 도탄에 빠진 것은 탐관오리 때문이라 하였다. 이 시기 농민군이 봉기한 것은 민씨 일족의 실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리에 당시 감옥에 있던 박영효에게 밀서를 보내 민씨 일족 박멸을 협의하였다는 풍설도 있었다.<sup>27)</sup> 6월 9일자에, 1882년에 민씨 일족의 칼을 피해 함경도로 도주한 양반 1,0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함경도에서 군사를 훈련시켜 칼, 창, 포를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한데 이들이 농민군에 가담했는지도 모르며, 민씨 일족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사로 보아, 함경도 지역의 농민군 봉기 역시 민씨 일족을 축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한편 모지신보 6월 9일(음 5월 6일)자에, 시기와 장소가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농민군이 봉기하려고 할 즈음에 한 동학도의 집에 숙박하였던 일본인이 농민군으로부터 들은 바

23) 「東學黨暴動詳報」, 『門司新報』, 1894. 5. 24.

24) 「東學黨の猖獗」, 『門司新報』, 1894. 5. 25.

25) 「東學黨の騷擾」, 『大阪毎日新聞』, 1894. 5. 25.

26) 「雞林の變益々急なり」, 『大阪毎日新聞』, 1894. 6. 8.

27) 「朝鮮事變と朴泳孝」, 『大阪毎日新聞』, 1894. 6. 8.

28) 「閔族の怖る者」, 『大阪毎日新聞』, 1894. 6. 9.

에 의하면 농민군이 사방에 격문을 뿌려 척왜양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농민군이 일반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고 한다.<sup>29)</sup> 같은 일자 모지신보에, 당시 농민군의 뜻은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있지 않으며, 농민군이 어느 정도는 외세척양과 내치 개량에 뜻을 두었지만 결국은 지방관의 폭정에 분개하여 일어난 것으로 주동자의 안계(眼界) 역시 오직 지방에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리고 농민군은 지방관에 대해 무한대의 원한을 품고 있어 지방관이라면 방백, 수령으로부터 말단 이속, 향리, 줄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를 불태우고 피를 짜내지 않으면 봉기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전투에 임해서는 경군과 지방군을 구별하여 경군(京軍)과의 싸움은 피하려 한다고 하였다.<sup>30)</sup>

6월 14일 기사에, 농민군 봉기의 원인은 탐관오리의 학정에 대해 전라도 농민들이 누누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전라감사 김문현의 경질을 원했으나 용이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데 있으며, 감사 이하 관리 모두가 농민군에 가담하였는데, 동학이 그러한 기회를 틈타 일어나 농민군을 도와 관병을 물리치고 오늘의 세력을 키웠다고 전하였다.<sup>31)</sup> 평안도에서는 지방 관리의 학정을 원망하는 민중들이 곳곳에 있어 어느 곳에서는 하루 아침에 수령이 된 자가 있다고 한다.<sup>32)</sup> 6월 16일(음 5월 13일)자 모지신보에서 그 즈음 농민군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지방의 탐관을 퇴치하는 데 있다고 전하였다. 즉 농민군은 전 전라감사 김문현, 전운사 조필영, 군전사 김창석, 고부 안핵사 이용태 등 4명의 수급을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의 나무에 걸고나서야 봉기를 멈춘다고 하였다.<sup>33)</sup> 지방관에 대한 농민군의 원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같은 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도 농민군은 횡포를 휘두르기 위해 봉기한 것이 아니라 간신을 물리치고 학정을 바로잡아 보국안민의 정책으로 이루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고지되었고 그 대의명분을 밝히기 위해 각국 공사관에 통지서를 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sup>34)</sup>

이상은 오사카마이니치와 모지신보에 게재된 제1차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기사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종래의 학계 주장, 즉 제1차 동학농민전쟁의 목적은 포악, 탐학한 지방관과 민씨 일족을 제거하고 왜양(倭洋) 축출하는데 있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농민군 세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방관리에 대해 분개한 농민에 불평당이 가담하고 동학이 다시 가담하여 지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동학농민전쟁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 본 인식은 또 다른 것이었다. 즉, 오사카마이니치 신문 5월 25일(음 4월 21일)자 기사를 대략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朝鮮の士族東學黨に興す」, 『門司新報』, 1894. 6. 10.

30) 「朝鮮行の巡查」, 『門司新報』, 1894. 6. 8.

31) 「事變の原因」, 『大阪毎日新聞』, 1894. 6. 14.

32) 「平安道と忠清道」, 『大阪毎日新聞』, 1894. 6. 14.

33) 朝鮮内亂彙報 「東學黨の三派」, 『門司新報』, 1894. 6. 16.

34) 「東學黨の通知」, 『大阪毎日新聞』, 1894. 6. 16.

… 조선에는 외세가 사방에서 습격하여 들어와, 실로 모든 열강 세력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안으로는 정치가 부패하였고 풍습은 나약하고 그에 더하여 민란은 끊임없다. 조선은 능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이 막말(幕末)에 이르러 내정 부패와 외국의 위협으로 전란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곳에서 우뚝 일어나 중흥의 대업을 이룬 것처럼 (민란도 그와 같이 : 필자)되면 쇠약한 조선도 문득 혁신을 이룰 것이지만, 민란이 과연 이와 같이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당초 내치외교, 쇠약한 국력을 회복하고 개량하여 외세에 저항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조선의 안위는 우리의 관련된 바가 많으므로 장래를 고려하여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여 응할 책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이 조선에 대한 방침을 어찌 취할지를 지금 말하는 것은 대단히 늦지만 …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맡기는 것은 국위와 국리가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다른 날 다른 일이 발생하면 타국에 뒤지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sup>35)</sup>

이것은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기 전의 기사로 조선정부와 농민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제국열강이 조선을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일본의 국위와 국리를 생각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장래를 생각하여 그에 대한 조선책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조선정부가 청국에 농민군 탄압을 위한 원병을 요청하자 더욱 강한 기세로 발전하였다. 오사카마이니치신문 6월 3일(음 4월 30일)자에 의하면 재한일본공사관에서는 농민군이 봉기한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 어학생 일본 순사 2명과 다카시마(高嶋)를 파견하였다.<sup>36)</sup> 6월 4일자에는 조선 파견의 명령을 받은 제5사단이 히로시마(廣島)를 출발한 사실이 전해졌으며, 오키나와(那羅)의 제6사단장 크로키 타메모토(黒木爲楨)에게 귀단(歸團)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sup>37)</sup> 같은 날짜의 모지신보에는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순사 20명을 파견한다는 내용과 그 명단이 공개되었다.<sup>38)</sup>

6월 8일자에는 “조선의 내란은 조선의 내란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의 풍운, 변화의 징조이다. … (일본) 정부는 선란을 위해, 거류민 보호를 위해, 적어도 동양 안위를 위한 처치를 취해야 한다. …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난일을 생각하며 강분을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sup>39)</sup> 이 기사에서 전철이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국이 조선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령했던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번에는 일본이 청국보다 조선에서의 우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35) 「朝鮮の内亂」, 『大阪毎日新聞』, 1894. 5. 25.

36) 「我が公使館の戦地視察」, 『大阪毎日新聞』, 1894. 6. 10.

37) 「東學黨の暴動」, 『大阪毎日新聞』, 1894. 6. 2.

38) 「20餘名の警官朝鮮に向ふ」, 『大阪毎日新聞』, 1894. 6. 4; 「朝鮮行の巡査」, 『門司新報』, 1894. 6. 8. 참고로 20명의 일본순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有馬鬼吉, 染川直哉, 是貫義熊, 竹下茂, 戸田茂十, 山下善三郎, 松本徳熊, 富山瀨口, 水瀬榮太郎, 平棟茂二, 堀田正雄, 中村善二郎, 脇田庄造, 長崎勇藏, 五十嵐惠吉, 小川次郎平, 谷口直, 野卷一郎, 井合民吉, 三村久松.

39) 「朝鮮の内亂」, 『大阪毎日新聞』, 1894. 6. 8.

6월 10일(음 5월 7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 “일본의 인심이 날로 권태로워 변화를 바라는 바가 오래되었는데 이러한 때 조선에서 농민군의 세력이 예년에 비해 대단히 창궐하여 남도의 풍운이 참담하다는 급보가 있다. 과연 대변화가 일어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권태로운 인심을 조금이라도 달래기에 족하지 않을까. …안에서 정쟁이 분분할 때에 인심을 밖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가의 흔한 수단으로 오히려 마땅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sup>40)</sup> 더불어 다른 신문에서는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sup>41)</sup>

이와 같이 조선에서의 주도권 장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사와 더불어, 조선의 농민군 봉기는 단순히 조선의 사변에 멈추지 않고 동양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길 바라며 청국의 1만 병사가 이미 인천에 와 있고 러시아병사가 국경을 넘어 조선에 들어와 있음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sup>42)</sup>

한편 일본의 자유당은 6월 8일 총재 이타가키 타이스케(板恒退助)가 대의사 12명과 본부에서 집회하여 농민군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다니카 켄(田中謙)을 특파원으로 파견할 것과 그와 관련하여 자유당 위원을 총리대신을 방문하고 각 지방의 당원에게 당의 방침을 전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sup>43)</sup> 다음 날에는 총회를 열어 농민군의 봉기 관련 격문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코노 히로나카(河野廣中), 가타오카 겐키치(片岡健吉), 호시 도오루(星亨)와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성장관 무츠 무네미쓰(陸奥宗光)를 방문하였다. 즉 자유당 차원에서 조선의 농민군 문제를 파악, 판단하기 위해 조선에 시찰원을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臣) 백작은 농민군이 봉기한 이유가 조선정부 전복에 있는지, 혁명을 이루는 것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봉기한 이유나 상황, 성격이 자세하지 못 하다고 평하였다. 한편으로 조선이 안정되지 못하면 일본의 식산산업에 방해가 되므로 재빨리 농민군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3척동자라도 알고 있다면서, 신공황후의 조선 침략과 임진왜란을 예를 들어 농민군 진압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sup>44)</sup> 일본군의 조선 파견과 동시에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당시 일본 정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대표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치인의 움직임 가운데 6월 19일(음 5월 16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 농민군에 대한 평가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0) 「人心の倦怠と朝鮮の變亂」, 『大阪毎日新聞』, 1894. 6. 10.

41) 「朝鮮内亂に對する日本國民」, 『東雲新聞』, 1894. 6. 9; 「朝鮮獨立の擔保」, 『東雲新聞』, 1894. 6. 12; 「朝鮮出兵の目的」, 『東雲新聞』, 1894. 6. 14.

42) 「朝鮮特派」, 『大阪毎日新聞』, 1894. 6. 9. 참고로 다카기 도시타(高木利太, 1871~1933)는 후젠(豊前) 오이타(大分県) 나가즈(中津) 출신으로 게이오기쥬쿠(慶応義塾)를 졸업한 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에 입사하여 청일전쟁 중군기자로 활동하였다.

43) 「朝鮮事件と自由黨」, 『大阪毎日新聞』, 1894. 6. 10; 「自由黨總會對韓の檄文」, 『大阪毎日新聞』, 1894. 6. 10.

44) 雜報「大隈伯の對朝鮮談」, 『門司新報』, 1894. 6. 15.

... 농민군이 봉기한 이유는 농민군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오직 탐관오리를 배어 떨하고 임금의 축근을 깨끗이하여 인민의 질고(疾苦)를 구하는 데 있다. 농민군의 이와 같은 의기와 행동은 장하지만 말운을 생각하면 애석하다. 또 민씨 일족이 조선의 명문 일족으로 함부로 권력을 횡용하므로 농민군이 봉기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하는 바는 혁명군으로 통상적인 비도로 볼 수 없다. 고로 다른 나라의 정부가 민씨 일족을 돕는 것이나 농민군을 돕는 것은 임의일 뿐이다. 조선의 국정과 농민군 봉기의 기인을 살펴볼 때 일리가 있지만 민씨 일족이 조선 정부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거의 민씨 일족을 조선정부와 동일시한다. 즉 농민군이 민씨 일족의 횡포에 봉기하였다고는 하지만 조선 정부에 항거하고 있다는 점은 면할 수 없다. 만약 농민군이 전국을 석권하여 정성에 들어가 민씨를 배어 국왕을 옹호하고 국왕 또한 그 혁명을 인정하면 곧 농민군의 이름도 정당함을 득할 수 있다. 혹은 횡폭한 관리들을 소탕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농민군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이 역시 농민군의 이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두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농민군은 적명(賊名)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나라도 정면에서 농민군을 도울 수 없다...<sup>45)</sup>

이 기사를 쓴 일본인은 민씨 일족의 횡포를 제거하기 위해 봉기한 농민군의 의지를 “혁명”이라 평하면서, 한편으로 민씨 일족을 조선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집단으로 보고 조선 정부와 동일시함으로써 농민군 봉기가 승리하지 못하면 농민군은 결국 “역적”이라는 이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글에 이어 그는 조선을 강대국의 충돌지로 보고 농민군 봉기를 조선 일국의 일이 아닌 동양의 우환으로 보고 일본이 그저 타국을 현란시키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정리하였다. 이 기회에 일본이 조선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모지신보 6월 19일(음 5월 16일)자에 농민군을 3파로 구분한 내용이 있다. 제1파는 민파(民派)라 칭하여 각 읍의 민중집단을 가리켰으며, 제2파는 리파(吏派)라 하여 각 군현의 리속이 동학에 가담한 자를 가리켰으며, 제3파는 진짜 동학파라 칭하였는데, 3파 가운데 첫째의 민파를 농민봉기를 일으킨 원동자로 보았다. 리파가 민파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는데 지방 방백과 수령 그리고 경군 역시 리파를 가장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각 지방 관청 소속의 리파가 그 지역의 모든 정황(政況), 상황, 지형 등을 파악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후에 청병과의 싸움에서 청병에게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리파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일본의 지역신문에서조차도 청일개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킨 이후 연도의 장정이 농민군에 들어가 그 수가 4만 명을 넘었으며, 농민군의 무기는 전주성에서 획득한 천여 점의 총포가 중심을 이루었다. 당시 상당수의 관

45) 「東徒の志憐む」, 『大阪毎日新聞』, 1894. 6. 19.

46) 朝鮮内亂彙報「姦魁を斃さずんば已まず」, 1894. 6. 19, 『門司新報』.



군이 농민군에 투항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모두 총포를 지니고 있었으며 독일 혹은 프랑스 군대식의 훈련을 하여 움직임이 민첩하다는 평을 받았다.<sup>47)</sup> 이러한 농민군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일본정부는 6월 19일(음 5월 16일) 조선에 병기, 탄약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다만 어업에 필요한 것은 육군성과 소관 육군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8)</sup> 행여 농민군에게 일본의 병기와 탄약이 매매되어 그 군사력이 증강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며, 한편으로 어업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은 것은 조선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유지 내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 일본정부의 자세가 보여진다.

모지신보 6월 21일자에 □창(□昌)지역에서 동학도로 보이는 자 24명이 대구감영에 끌려와 수감되었는데 그 가운데 6명은 가슴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자 12개가 써 있는 부적과 같은 것을 소장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동학과 관계없는 것 같아 석방하였다는 내용이 전해졌다.<sup>49)</sup>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의 관청에서 경상도 지역 동학도 혹은 농민이 전라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부응하여 봉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자들을 단속하거나 체포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동학도들은 12문자가 써 있는 부적과 같은 것을 지니고 있어 일반 농민과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6월 22일, 중앙군이 전주를 회복하고 농민군이 김제로 물러났다는 정보가 인천, 시모노세키를 경유하여 오사카에 전해졌다.<sup>50)</sup> 관군이 전주성을 회복한 것은 농민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가 아니라 농민군이 청군을 비롯하여 타국 병사가 계속 조선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전주성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전라도에서 가장 요새지라 알려진 무주, 금산(원문에는 茂錦山)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시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음력 5월 4일(양 6월 7일) 밤 전주성 동쪽으로 도주함으로써 관군이 전주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였다.<sup>51)</sup> 6월 22일 오사카에 농민군이 진압되어 중앙군이 한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도착하였다.<sup>52)</sup> 6월 25일 한성에서 발송한 전보는 농민군이 청일 양국의 출병을 듣고 해산하여 각 지역에 잠복하기에 이르렀으나 기회를 보아 재봉기할 위험이 있다고 전하였다.<sup>53)</sup>

이후 기사는 경북궁 점령, 내정개혁, 청일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농민군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7월 6일(음 6월 4일)자에 한성·부산 간에 전선을 가설하는데 연변지방에 “폭민”이 있으므로 전

47) 朝鮮內亂彙報「東學黨の内情」, 1894. 6. 12, 『門司新報』.

48) 朝鮮內亂彙報「軍器彈藥の輸出禁止」, 1894. 6. 19, 『門司新報』.

49) 朝鮮內亂彙報「大邱に於ける東學の囚人」, 1894. 6. 21, 『門司新報』.

50) 「東徒鎮定(?)」, 『大阪毎日新聞』, 1894. 6. 22.

51) 「全州回復」, 『大阪毎日新聞』, 1894. 6. 23.

52) 「東學黨鎮定す」, 『大阪毎日新聞』, 1894. 6. 24.

53) 日清戰雲漠々, 「東學黨の真相」, 『門司新報』, 1894. 6. 30.

선가설 지방의 요지에 병참부를 설치하여 전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sup>54)</sup> 군용 전선 보호를 위해 병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기적으로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조선 내 군용전선가설을 허락하기 이전이고 일본군이 최초 병참부 3개를 조선에 파견한 일자인 7월 28일 보다 20여 일 앞선다. 일본군 군용전선 및 병참부와 관련한 또 다른 기사로는, 8월 1일(음 7월 1일), 대구병참부 근처 마을의 주민 수십 명이 대구병참부에서 군용전선 가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집해 둔 수백 마리의 소 가운데 100여 마리를 몰래 끌고간 일이 발생하였는데, 결국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끌려갔고 해당 지역 부사가 많은 야채를 가지고 병참부를 방문하여 사죄하여 그들을 인도받아 갔다는 내용이 있다.<sup>55)</sup> 수백 마리의 소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해당 병참부가 설치되어 있던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 전 지역에서 소를 모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100여 마리나 되는 소를 훔친 농민군은 분명 일본군이나 관군에게 발각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농민 수십 명이 대구병참부를 습격하여 일본군이 모이둔 소 100여 마리를 훔친 사건이 전적으로 반일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농민들의 단체 행위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군이 수백 마리의 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반일 감정이 분출된, 농민들의 비폭력적인 형태의 반일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 7월 27일(음 6월 25일)경 전봉준은 3,000명의 병사를 인솔하여 광주에 있었고, 손화중은 병사 5,000명을 인솔하여 나주에 있었는데, 8월 15일 경부터 수륙으로 나누어 한성을 목표로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다.<sup>56)</sup> 이즈음 전라·충청 지역을 측량하고 돌아온 일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라·충청도는 이르는 곳마다 농민군이 아닌 자가 없고 각 군수, 현령은 농민군의 눈치를 보며 화를 면하고 있고 농민군도 일부러 봉기하려는 모습은 없었다. 그러나 농민군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봉기할 것은 불을 보듯 명료한 일이라 하였다.<sup>57)</sup> 모지신보에, 8월 중순 조선정부는 전라도 지역에 농민군 잔여 세력이 남아 있어 후에 또 다시 봉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잔여 동학도를 탄압하기 위해 내무참의를 파견하였다고 전하면서,<sup>58)</sup> 조선 신정부의 내정개혁 내용이 농민군의 뜻에 합치되는 바가 많아 농민군이 쉽게 봉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59)</sup> 그런데 8월 22일자에, 잔여 농민군은 오합지졸인 까닭에 일본군 1소대를 조선정부에 빌려주면 진멸시킬 것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sup>60)</sup> 일본의 지역신문에 정치가의 주장이 아닌 목소리로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설이 등장한 것이다.

54) 日清戰雲漢々, 「電信の保護」, 『門司新報』, 1894. 7. 6.

55) 「韓人電線架設用の牛を盗む」, 『門司新報』, 1894. 8. 16. 2면.

56) 「東學黨の暴行」, 『大阪毎日新聞』, 1894. 8. 18.

57) 「東學黨の再興」, 『大阪毎日新聞』, 1894. 8. 20.

58) 「東學黨の再起 鎮定使の出發」, 『門司新報』, 1894. 8. 18.

59) 「東學黨の再舉に就ての一説」, 『門司新報』, 1894. 8. 18.

60) 「東學黨の再舉」, 『門司新報』, 1894. 8. 22.

8월 31일(음 8월 1일)자 모지신보에, 전라도 농민군이 재봉기하려 한다는 소문을 접한 조선 정부가 선무사를 파견하려 할 때, 정부의 개혁소식을 들은 전라도의 전봉준이 대원군에게, 농민군이 봉기한 목적은 폐정을 혁신하여 민고를 구하고 간신을 물리치고 국태공(대원군)을 일으키는데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국태공이 일어나 국정을 장악하고 혁신 또한 시작되었으니 우리 농민군의 희망이 완전히 달성되었다. 재빨리 해산할 터이니 선무사 파견을 멈추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고 한다.<sup>61)</sup> 전봉준과 대원군과의 연관설이다.

용산을 출발하여 경기도 광주, 이천, 청주 등을 경유하여 전주에 도착한 한 일본인이 9월 10일(음 8월 11일) 전라감영으로 전봉준(원문에는 金鳳均)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내용이 장문으로 모지신보에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봉기한 이유에 대해 전봉준은, “민씨 일족이 요직에 있으면서 권세를 희롱하여 사복(私腹)을 채우는 것으로 보고 분개하여 참을 수 없어 동지를 규합하여 그들을 물리치기를 위하여 정부에 상소하였으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씨 일족이 직소를 막아 임금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임금 결의 간신을 몰아낸다는 명의로써 봉기하였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전봉준은 당시의 사회상황을 오랜 세월을 걸쳐 잘못 행해진 정치의 결과로 보고 민씨 일족 또한 그러한 부패한 무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주성 점령은 정부에 직접 항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농민군이 재봉기할 것이라는 소문은 헛된 것이며 다른 곳에서 횡행하는 자들은 농민군의 이름을 훔친 자들로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전봉준은 다음 날 전주성 밖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인을 찾아가 돌이 주고받았던 필담서를 찢어 불속에 집어던져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일본인은 11일 오전 전주를 출발하여 용담에 이르러 부산 상인에게 서신을 부탁하고 다시 전주로 되돌아갔다가 보은, 화령, 상주를 경유하여 최명학(崔明學)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전봉준의 소개장과 서신 1편을 남겨 두고, 문경, 마삼, 유곡, 연풍, 충주를 지나 20일 오후 한성에 도착하였다. 그는 가짜 동학당이 있다고 들었지만 자신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전봉준에 대해서는 조선인으로서 보기 드문 자로 평가하고 일본정부에서 등용하면 조선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전봉준을 추천하기도 하였다.<sup>62)</sup>

이상의 내용은 일본인이 9월 21일과 23일 보고서로 작성되어 히로시마의 대본영에 전달된 듯하다. 이후 이 보고서는 「東學黨餘聞」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모지신보사는 10월 1일 히로시마신보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일본인은, 자신은 조선에 간 동생의 소식을 알기 위해 조선에 왔다고 하였는데 방문한 지역이 동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며 더군다나 전봉준의 소개장을 받아 상주지역의 최명학을

61) 「東學黨改革を聞いて自ら鑑定す」, 『門司新報』, 1894. 8. 31.

62) 廣島通信, 「東學黨餘聞」, 『門司新報』, 1894. 10. 4.

방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동생을 찾기 위해 조선을 방문했다는 그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이처럼 조선 각지에서 수집된 정보는 일본 상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 전달을 의뢰한 것도 파악된다. 당시 조선 내의 일본인 정보 수집자의 네트워크의 도식이 그려진다.

#### 4. 제2차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인식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모지신보를 중심으로 한다.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관련 기사는 동학농민종합시스템(<http://www.e-donghak.go.kr>)에서 원문과 번역문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지신보의 경우는 관련 기사뿐 아니라 모지신보 자체가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9월 25일자에 안동지역에서 농민군 수천 명이 봉기하여 일본군 병참부를 습격하려 한다는 밀보를 접한 일본군은 수비병 1소대를 순찰대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sup>63)</sup> 이미 학계에서 밝혀졌듯이, 이 시기, 즉 9월 22일의 안동지역 봉기는 최초의 의병봉기이다. 어찌 되었든 일본군은 9월 22일의 안동 의병봉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 이후 농민군을 철저하게 탄압할 것을 계획하였다.<sup>64)</sup>

10월 1일(음 9월 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에서 발송되어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에 히로시마 신보사(廣島新報社)에 도착하여 다음날 모지신보사에 전달된 정보가 있다. 이 정보에 의하면, 낙동병참부에서 “최초”로 농민군 탄압을 위해 일본군 보병공병대 50명을 용궁, 예천, 안동 부근으로 파견하여 농민군 4명을 죽였다는 내용이다.<sup>65)</sup> 이 사건은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면 9월 24일(음 8월 25일)에 발생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병공병대란 부산-한성 간 병참선로를 보수하는 도로 수비대를 가리키며 태봉병참부 수비대를 포함하여 50명이 하시다(橋田)의 인솔하에 용궁으로 행군하는 도중에 600명의 농민군을 격퇴시키고 가옥 11채를 불태웠다. 또 예천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농민군 4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sup>66)</sup> 이 기사 가운데 농민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최초” 파견이라는 기술이 보이는데, 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8월 28일 함창현 병참부를 습격할 기세를 보인 농민군을 탄압할 목적으로

63) 「韓人我兵站部を襲はんとす」, 『大阪毎日新聞』, 1894. 9. 25.

64) 강효숙,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호, 青木書店, 東京, 2002. 5.

65) 廣島通信 「東學黨餘聞」, 『門司新報』, 1894. 10. 5.

66) 앞의 글,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22쪽 ;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9, 13~14쪽.

다음날 일본군 도로 수선대가 파견된 적이 있으므로 “최초”의 파견은 아니다. 당시 함창현 농민군은 이미 도주한 후라 일본군의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10월 7일(음 9월 9일) 전라도 순천·광양의 영호도회소 농민군이 봉기하여 하동으로 진출한 것을 농민군의 일본군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67)</sup> 이는 전라도 지역 농민군에 한정했을 경우의 견해이다.

즉,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전국적인 관점에서, 현재 확인되는 일본 측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농민군의 적극적인 반일 움직임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8월 28일 함창현에서 시작되었고 실질적인 싸움은 9월 24일 경상도 용궁지역 600명의 농민군 싸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군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민군에 앞서 일본군이 도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조선정부가 일본 측에 농민군 “진정(鎭定)”을 요청한 것은 10월 18일(음 9월 20일)이며, 그 또한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친일 내각의 구두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형식 역시 일본 측이 대원군과 친일내각에 대해 일본정부에 농민군 진정을 요청할 것을 누누이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sup>68)</sup> 어찌되었든 친일내각의 구두 요청이기는 하지만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은 공식적으로는 10월 18일 이후 성립된다. 즉, 10월 18일 이전에 행해진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은 비합리적인 행위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9월 26일(음 8월 27일)경에는 경상도 태봉(台封)지역에 농민군 선봉 50명이 비밀스럽게 들어왔는데 이후에 크게 (태봉에) 진입할 기세를 탐지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sup>69)</sup> 다음 날인 27일에는 천안지역에서는 일본인 6명이 조선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sup>70)</sup> 일본공사관에서는 9월 30일 순사 3명과 통역으로 어학생 사이토(齊藤)를 천안에 파견하였다.

9월 30일(음 9월 2일) 부산에서 히로시마에 전해져 다시 급보로 오사카에 발송된 전보에 의하면, 이즈음의 농민군은 “신도적(新盜賊)”으로 양민을 협박하거나 지방관리를 죽여 금전을 빼앗고 일본군용 전신선을 자르고 또한 일본 신민을 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sup>71)</sup> 10월 4일(음 9월 6일)자 모지신보에 부산에서 농민군 수령 2명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sup>72)</sup>

10월 15일(음 9월 17일) 즈음 평양 부근에서 농민 여러 명이 조직을 결성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옥에 방화하는 일이 거의 매일 발생하였고, 농민군의 수령 1명은 이미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평양감사에게 인도되어 참살당해 대동문 앞에 효수되었다고 한다.<sup>73)</sup> 10월 22, 23

67) 김양식, 앞의 글,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289쪽.

68) 앞의 글,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23~25쪽.

69) 「東學黨」, 『大阪毎日新聞』, 1894. 9. 27.

70) 「日本人殺害せらる」, 『大阪毎日新聞』, 1894. 9. 28.

71) 「東徒と争闘の詳報」, 『大阪毎日新聞』, 1894. 10. 2.

72) 釜山電報「東學黨主領の就縛」, 『門司新報』, 1894. 10. 5.

일경에는 “가짜 동학농민군” 20, 30명이 평양 어은동의 적십자병원을 습격하려고 하였으나 일본 헌병이 경계하고 있어 그대로 물러났다고 한다.<sup>74)</sup>

10월 18일 친일내각에서 구두로 일본 측에 농민군 진정을 요청한 직후인 10월 20일(음 9월 22일)자에 전라·충청도 농민군이 연합하여 북상하여 한성 100리 밖에 있다는 소문을 접한 조선정부가 중앙군을 파견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sup>75)</sup> 10월 22일, 농민군이 재봉기하였다는 정보를 접한 일본군이 병사 150명, 헌병 3명, 조선인 통역인 5명, 조선인 인부 102명, 일본인 인부 16명, 조선관리 주사 2명, 장교 수행인을 합하여 30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시라카와마루(白川丸)에 승선하여 마산포로 향했다는 정보도 전해졌는데,<sup>76)</sup> 이 기사에 나타나는 일본군은 부산수비대의 일부를 말하며 부산수비대의 제1차 경상도 서남단 파견 관련 기사이다.<sup>77)</sup>

부산수비대의 제1차 경상도 서남단 파견에 대해서는 12월 13일자 모지신보에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었는데, 부산병참 겸 정박장 사령관 이마하시(今橋) 소좌가 히로시마 대본영의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에게 12월 1일에 보낸 장문의 보고서로 10월 22일부터 11월 24일에 이르는 부산수비대의 경상도 서남단 지역 농민군 탄압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마하시는 하동 부근의 농민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도오다(遠田) 중위에게 2개 소대를 인솔하게 하여 10월 22일(음 9월 24일) 부산진을 출발시켰다. 이 부대는 마산포에 상륙하여 2개의 길로 나누어 하동으로 향하였다. 후지사카(藤坂) 부대는 27일 하동 부근에서 농민군 약 700명을 광평동에서 물리치고 무기와 양식 약간을 빼앗았다. 농민군은 섬진강을 건너 도주하였고 선박은 모두 강 건너편에 있어 우츠미(内海) 군조가 헤엄쳐 도강하여 그 뒤를 쫓았으나 추적에 실패하였다. 이날 도오다 중위가 하동 부근에 도착하여 후지사카 부대와 합하여 숙박하였다.

10월 28일 농민군 700여 명이 섬거역 부근에 군집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2분대를 파견하였으나 농민군은 이미 도주한 후였다. 일본군은 하동 부근 곳곳에 농민군 수천 명이 군집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곤양으로 물러났다. 11월 7일(음 10월 10일) 후지사카와 도오다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부산수비대 후비보병 제10연대 제4중대장 스즈키(鈴木安民) 대위가 2개 소대를 인솔하여 하동 부근에 파견되었다. 스즈키부대는 안심동 남쪽 금병산으로 진격하여 산의 남쪽과 북쪽에서 농민군 약 400명을 습격하여 물리쳤는데 농민군 6명을 죽였고 27명을 생포하였다. 후에 일본군이 지역민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농민군 시체 70여 구가 산속에 있었다고 한다.

73) 朝鮮近事「平壤の放火」, 『門司新報』, 1894. 10. 25.

74) 「韓人病院を襲ふ」, 『門司新報』, 1894. 10. 30.

75) 「東學黨密陽に迫る」, 『門司新報』, 1894. 10. 20.

76) 「東學黨鎭撫兵出發の詳説」, 『門司新報』, 1894. 10. 25.

77) 앞의 글,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16쪽.

11월 10일(음 10월 13일) 단성현 지역(현 산청군의 일부)의 농민군이 사천의 곤양을 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접한 스즈키는 농민군을 역습하기 위해 다음날 2개 소대를 인솔하여 진주 수곡동에 이르렀는데, 농민군 5천여 명이 산과 들에 가득 차 있었다. 오전 8시 20분 농민군이 먼저 일본군을 공격하여 전투가 시작되었다. 농민군이 부대를 두 개로 나누어 산정과 북쪽으로 물러나자 일본군은 산정의 농민군을 공격하였는데 농민군은 산정의 석루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방어하였다. 이때 산 북쪽의 농민군이 일본군 우측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농민군의 공격방법은 종래 농민군과는 달라 일본군은 놀란 모습을 보였다. 10시 5분 후지사가 소위의 1소대가 산정의 석루를 공격하여 “드디어” 농민군을 격퇴시켰는데, 이때 일본군 3명이 농민군 칼에 부상당하였다. 요시카와(吉川) 조장(曹長)의 1소대는 농민군을 우측에서 공격하여 싸웠으며, 도오다 소위의 1소대는 농민군을 좌측에서 공격하였다. 산정의 농민군이 퇴각하자 결국 다른 농민군도 모두 서북의 덕천지역을 향하여 물러났다. 시각은 11시였다. 2시간 40여 분에 걸친 싸움에서 버려진 농민군의 시체는 160구에 이르렀고, 후에 지역 주민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도중에 죽은 자가 수십 명에 달하였다. 부상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고 2명이 생포되었다. 농민군은 수많은 탄약과 양식 등도 모두 버리고 퇴각하였다.

진주 수곡동전투에서 일본군이 농민군과의 싸움에 있어 “드디어” 농민군을 격퇴시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일본군은 좀처럼 이와 같은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일본군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매우 고전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표현이다. 그만큼 농민군 측의 희생도 커서 전쟁터의 사망자 160명과 도주 과정에서 죽은 수십 명을 합하면 200명을 전후한 농민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투의 규모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1월 16일(음 10월 19일) 일본군은 하동 부근의 광치와 삼봉산에 모여 있는 수많은 농민군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섬진강 건너편의 배를 가지러 가는 도중에 군부 1명이 의사하고 점차 바닷물이 빠지는 시각이 되어 강을 건너지 못했다. 다음날 오전 7시 일본군은 광평동에서 섬진강을 건너 응치 방향으로 1소대, 삼봉산 방향으로 1소대가 진격하였는데 삼봉산의 농민군은 이미 물러난 후였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응치를 향하여 세 방향에서 진격하였고 나머지 1소대는 섬거역으로 진격하여 잔여 농민군을 공격하여 물리치고 오후 5시 하동으로 되돌아갔다. 11월 19일 오전 7시 일본군은 다시 강을 건너 응치에 농민군이 군집해 있는 것을 보고 사방에서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낭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대부분은 서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농민군은 앞서 농민군이 일본군에게 패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하동지역 농민군을 지원하러 온 순천지역 농민군이였다. 이 싸움에서 농민군은 사망자 7명, 부상자 5명이 발생하였고, 농민군이 버리고 간 무기와 기타 잡품들이 도로를 덮을 정도였다. 이날 별도로 수 명의 농민군이 일본군의 배후를 돌아 하동의 일본군을 공격하려 하였는데, 남아 있던 일본 병졸 8명이 이를 방어하여 깃발을 들고 있던 농민군 1명을 죽이자 나머지는 홀연히 물러나 퇴각하였다.

이후 하동지역 농민군은 전라도 순천지역으로 모두 도주하여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목적을 달성한 스즈키 부대는 11월 21일 하동을 출발하여 27일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때 하동과 곤양지역 주민들은 농민군이 재봉할 것을 두려워하여 일본군을 방문하여 재류할 것을 재삼 요청하였는데 부산수비대의 임무가 병참부 보호에 있어 지역 주민들을 달래고, 100명의 조선병을 하동과 충주에 두어 수비하게 하였다고 한다.<sup>78)</sup>

이상의 내용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인 『千代田文庫』 77·『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 全 暴民』·『南部兵站監部日誌』 및 일본 외무성 외교 자료관 소장 자료인 『韓國東學黨蜂起一件』, 그리고 당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자료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모두 종합한 것에 해당된다.

한편, 10월 25일(음 9월 27일)에 있었던 농민군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인천과 부산에서 히로시마로 발송된 후 10월 31일자 모지신보에 게재되었는데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중앙군을 응원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군 한성수비대가 도중에 농민군의 거두 1명을 체포하여 수원부에 맡겨 수감하였는데 농민군이 감옥을 습격하여 탈출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조선정부가 스키무라(杉村) 임시 대리공사에게 출병을 요청하여 25일 인천수비대에서 2분대를 수원부에 파견하였다. 한편 전라도 함열, 부안, 고부와 경상도 개령, 성주 등에도 농민군이 집합하였다는 정보가 있다. 농민군 1,000명이 경기도 가흥 병참부를 습격하기 위해 목계나루 우안까지 와 있었으나 가흥병참부 수비병에 의해 격퇴당했고, 일본군 헌병 1명이 사망하였다. 25일 밤 성주지역을 탐문하기 위해 파견된 척후병이 도중에 농민군을 만나 서로 사격하며 싸웠으나 농민군을 격퇴시키고 11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부산의 일본 상인 2명은 전라도 함열현에 이르러 농민군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한 후 간신히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당시 농민군의 수령은 부안현, 고부군 주변에 있으면서 각지의 동학도를 모이게 하여 한성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목적은 대원군에게 의견을 말하고 일본인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전해졌다. 진주지역에 파견된 부산수비대 일부가 25일에 도착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sup>79)</sup>

10월 25일 성주지역에 80여 명의 농민군이 모여 민가에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일본군은 헌병 1명, 수비병 8명을 파견하여 농민군과 전투하여 농민군의 수령 1명을 죽이고 도주하

78) 廣島通信「東徒擊攘報告」, 『門司新報』, 1894. 12. 13. 이때 조선 관리의 손에 체포된 농민군은 초토사 대구부 관관 지식영이 일본군에게 통보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진주 구(舊) 해창에서 체포된 농민군 21명 중 수령 임석준(林碩俊)은 11월 8일 효수되었고 나머지 12명은 엄형에 처해진 후 2명은 방면되고 8명은 수감되었다. 곤양 금병산 전투에서 생포된 농민군 21명 가운데 수령 최학원(崔學元)은 13일 총살당했으며 나머지 20명은 엄형 후에 방면되었다. 진주에서 생포된 농민군 58명 가운데 수령 김고규(金高圭)는 13일 효수되었고 어린 아이 김권순(金卷順)은 같은 날 총살당하였다. 나머지 56명은 엄형에 처해진 후에 그 가운데 27명은 수감되고 29명은 방면되었다. 하동 갈목치 싸움에서 농민군 11명이 총살당하였고, 생포된 17명은 엄형에 처해진 후 방면되었다. 한편 일본군이 생포한 농민군 34명의 대장 김재희(金在喜)는 이전에 여러 차례 석방된 바 있으나 다시 농민군에 들어가 체포되었고, 김달득(金達得)은 농민군이 진주에 들어왔을 때 길을 안내하여 수령 김성대(金性臺)와 함께 11월 24일(음 10월 27일) 하동 단교장에서 총살당하였다.(廣島通信「東徒擊攘報告」, 『門司新報』, 1894. 12. 13)

79) 廣島電報「東學黨に關する電報」, 『門司新報』, 1894. 10. 31.



는 농민군 11명을 사로잡았으며 화승총 5정, 칼 1개, 깃발 1개, 말 4두를 취득하였다. 체포된 자들은 대구병참부에서 성주에 출장한 헌병에게 취조당하였다. 도주한 농민군을 쫓아 새로이 헌병 및 일본군 12명이 성주지역으로 파견되었다.<sup>80)</sup>

10월 26일자에 농민군 2천여 명이 문경병참부를 습격하여 방화하고 사격하여 일본군 수비병 18명이 이들을 물리쳤다고 전하였다.<sup>81)</sup> 11월 1일자에 원산에서 조선인 상인 수명이 일본인 4명을 살해하였는데 그들은 곧바로 체포되어 한성으로 호송되어 취조를 받고 있다.<sup>82)</sup>

11월 7일(음 10월 10일) 조선정부는 재봉기한 전라도 농민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수병 420명을 인천에서 출발시켰는데 풍파 때문에 하루 반을 체재한 후 9일 여러 척의 배에 탑승하여 전라도로 향했다.<sup>83)</sup> 11월 10일자에 전라도 지역 농민군이 재봉기하여 날로 기세가 창궐하고 경상·충청도에서도 기세가 대단하여 세금을 거두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였다.<sup>84)</sup> 11월 11일에는 경상도 진주와 단성현 사이에서 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전개되어 농민군이 격퇴당하여 흩어졌다고 한다.<sup>85)</sup>

인천병참부의 병참감 이토(伊藤)가 히로시마 대본영의 가와카미 병참총감에게 12월 17일(음 11월 21일)에 발송한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 수선대와 그 부대를 호위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구와하라(桑原) 소위의 소대는 낙동을 출발하여 한성으로 돌아가는 도중, 12월 6일(음 11월 10일) 충청도 청산 부근에서 약간의 농민군을 격퇴하였고, 8일 밤중에 문의 쪽에서 수만 명의 농민군이 청주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응전준비를 하여 9일 청주 부근에서 그들을 격파하여 농민군은 남쪽으로 퇴각하였다. 농민군의 사망자는 24명에 달하였고, 부상자는 헤아릴 수 없었으며, 일본군은 대포 2문, 화승총 40여 정, 기타 탄약 등을 획득하였다.<sup>86)</sup>

같은 기사에, 12월 초 공주 부근에 머무르고 있던 인천수비대에서 파견된 야마무라(山村) 중대가 해미 방면으로 퇴각한 농민군이 재봉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12월 5일 해미로 진격하여 농민군 수백 명을 체포하여 50명을 죽이고 9일 공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다. 야마무라 부대는 10일 공주를 출발하여 해미, 서산을 경유하여 태안에 이르러 그 지역의 민보군을 이용하여 농민군을 태안반도로 몰아 수백 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30여 명을 죽였는데, 이 지역의 농민군 수령은 모두 체포되거나 사망하여 이후 이 지역에서 농민군이 다시 일어날 걱정이 없다고 하였다. 일본군이 태안에서 해미에 이르자 관민이 모두 나와 그들을 환영하여 천막을 치거나 임시 판잣집을 지어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자진하여 하물을 운반하였다고 한

80) 雜報 「東學黨の捕縛と分捕品」, 『門司新報』, 1894. 11. 1.

81) 廣島電報 「東學黨が兵站部を襲ふ」, 『門司新報』, 1894. 10. 30.

82) 「韓人我商人を殺害す」, 『門司新報』, 1894. 11. 10.

83) 雜報 「東學黨退治の出兵」, 『門司新報』, 1894. 11. 21.

84) 「東學黨の再燃」, 『門司新報』, 1894. 11. 10.

85) 「東學黨の紛騷」, 『門司新報』, 1894. 11. 17.

86) 廣島通信 「東學の退却」, 『門司新報』, 1894. 12. 21.

다. 아마무라 중대는 12월 14일 덕산을 출발하였다. 이상은 아마무라가 인천 이토 병참감에게 보고한 내용을 다시 히로시마 대본영의 가와카미 병참총감에게 보고한 것이다.<sup>87)</sup>

12월 7일(음 11월 11일) 평안도 평양 어은동의 산속에 약 200명의 농민군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접한 어은동병참부는 헌병 7, 8명을 파견하였으나 농민군은 이미 도주한 후였다. 일설에는 어은동 부근의 “의병(義兵)”이라고도 한다.<sup>88)</sup> 12월 17일(음 11월 21일) 후쿠하라(福原) 어은동병참감이 히로시마 대본영의 병참총감에게 발송한 보고에 의하면, 황해도 지역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파견된 각 병참부 수비대가 평양에서 파견한 제1군의 수비대와 연락을 취하여 재령, 안악, 신천, 해주 부근을 수색하여 농민군은 이미 해한 후라 모두 병참지로 되돌아갔다. 용산수비대에서 파견된 1소대는 지난 10일 강합현(康翁縣) 부근에 집합해 있던 농민군을 격퇴한 후 개성에 체재하면서 농민군의 상황을 탐문 중에 있다.<sup>89)</sup>

해주지역에 파견된 스즈키 소위 부대는 12월 19일 미명에 해주의 서쪽 취야장에서 농민군 약 2,000명을 격전 끝에 격퇴하였는데, 농민군은 사망자 2명, 부상자 12명이 발생하였고, 9명이 생포되었으며 말 33두 및 소 4두, 화약 3상자, 무기 및 서류를 일본군에게 빼앗겼다. 서류 가운데는 연안, 평산 기타 지역에 농민군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안병참부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은 스즈키 부대는 다음날인 20일 연안으로 출발한다고 한다.<sup>90)</sup> 이 기사 역시 12월 23일(음 11월 27일) 어은동병참감 후쿠하라가 병참총감에게 보낸 보고서로, 내용으로 보아 해주, 연안, 평산 등지에 조직된 농민군이 존재하였고 일본군이 포획한 우마의 숫자와 화약 및 농민군 관련 서류 등에 비추어도 이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은 1895년 1월 1일(음 1894년 12월 6일)을 전후한 전라도 여수와 순천지역의 농민군 및 일본군 츠크바(筑波) 함대, 관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사 내용으로 츠크바 함장이 1895년 1월 2일 보고한 내용이다. 보고받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 내용과 전술한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히로시마의 대본영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인다.

1894년 12월 31일 오후 부산항을 출발한 츠크바 함대는 다음 날인 1895년 1월 1일 오전 좌수영에 도착하였는데, 좌수영 절도사 김철규(金澈圭)가 츠크바 함장을 방문하여 지난 31일 부산수비대에서 1중대가 순천에 파견되었음을 통첩하고 순천지역 농민군 탄압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1월 2일 오전 좌수영에서 중군 신완(申椀) 및 중령장(中領將) 곽경환(郭景煥)이 조선병 100명을 인솔하여 해로를 이용하여 하동으로 출발하는 일본군을 환영하며 맞이하였다. 3일에는 이주회(李周會, 李量榮 혹은 南州라고도 칭함)가 조선병 600명을 인솔하여 순천을 향하여 출발하여 6일 일본군 육군과 결합하여 순천성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당시 전라남도 12읍의

87) 廣島通信 「東學の退却」, 『門司新報』, 1894. 12. 21.

88) 「東學黨徒現はる」, 『門司新報』, 1894. 12. 13.

89) 廣島通信 「東學黨の偵察」, 『門司新報』, 1894. 12. 22.

90) 「東學黨の消息」, 『門司新報』, 1894. 12. 27.

농민군과 수령이 순천에 모여 있었는데, 좌수영을 공격할 움직임은 없었다. 당시 전라도 53읍 가운데 50명은 농민군이 점령한 상태였고 농민군은 100만여 명에 이르렀다. 나머지 3곳은 좌수영, 남원, 운봉이다. 1월 1일 좌수영 절도사는 수감되어 있던 농민군 28명 가운데 부인(婦人) 3명을 선유하여 방면하였다. 츠크바 함대는 1895년 1월 6일경 순천을 공격한 결과를 보고 죽림포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죽림포에 측량원 외 대위 1명, 소의 2명, 하사 이하 20여 명을 남겨둘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마지막 부분에 지도를 바란다는 글을 덧붙였다.<sup>91)</sup>

1895년 1월 초, 순천부 광양부의 주민과 관리는 농민군의 수령인 김인배(金仁培)와 유하덕(劉夏德)의 수급을 효수하였다. 좌수영의 조선병 500명이 순천부로 달려갔고 수령을 잃은 농민군은 사망으로 흩어졌다.<sup>92)</sup>

1월 18일(음 1894년 12월 23일)자에 전봉준(全奉準)과 김개남(金介南)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김개남에 대해서는 동학도의 대수령으로 전라도 남원에 근거하면서 “왕”이라 칭하였고 전라감사가 멋대로 참살했다고 소개하고, 전봉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전명숙이라는 이름을 소개하였다. 또 안영선(安映善)을 심산의 토굴에서 사로잡아 일본군이 한성으로 호송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모지신보는 전봉준을 조선병과 일본군 중 어느 쪽이 전봉준을 사로잡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sup>93)</sup>

이후 농민군 관련 기사는 한동안 확인되지 않다가 1895년 2월 14일자에, 전라도의 농민군이 완전히 탄압되었다는 공보가 이제 막 히로시마의 대본영에 도달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sup>94)</sup>

그리고 5월 12일자에, 4월 23일 오후 4시를 지나 권설재판소에서 전봉준에게 다음날 오전 이점진(二點鎭) 좌감옥(左監獄)에서 교수형에 처한다는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된다.<sup>95)</sup> 현재 전봉준의 사형 장소와 그의 시신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료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95년 6월 9일자 기사에 전봉준에 대한 사형선고 상황이 소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권설재판소 높은 곳에 누 협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우치다 일본영사, 왼쪽에 張 참의가 착석하였고 그 아래에서 서기 2명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방청객은 겨우 2, 3명이 있었고 이외 1, 2

91) 「筑波艦長の報告」, 『門司新報』, 1895. 1. 10.

92) 「東徒首領を失ふ」, 『門司新報』, 1895. 1. 10.

93) 「東徒の大首領を捕ふ」, 『門司新報』, 1895. 1. 18. 원문 제목은 「東後の大首領捕」이나 東後は 東徒로 오자로 판단된다.

94) 電報「東學黨の鎭定」, 『門司新報』, 1895. 2. 14.

95) 여기에서 감옥이란 갑오개혁 당시 조선시대의 전옥서가 경무청 감옥서로 개칭된 것을 말한다. 전옥서는 현 종로구 세종로 1가 부근 의금부 옆(형조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감옥서에는 남옥(男獄)과 여옥(女獄)이 있어 담장으로 구분하였다. 좌우 포도청 역시 갑오개혁 당시 합하여져 경무청으로 개칭되었다. 우포도청은 서린방의 혜정교 남쪽에 위치하였는데 표지석은 일민미술관(구 동아일보사) 앞에 있고, 좌포도청은 파자교 동북쪽에 위치하였는데 표지석은 현재 종로3가역 16번 출구 앞에 있다. 기사 가운데 좌감옥이라 함은 감옥서 가운데 남옥(男獄)을 칭하는 것인지, 좌포도청 자리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점진(利點鎭)에 대해서도 향후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에 전봉준의 단소가 있지만 허묘이다.

명의 고문관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5인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sup>96)</sup>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1895년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법무이문 권설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형선고가 한 차례의 항소도 없이 행해진 것이다.

이후 농민군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지신보사의 정보 수집은 재조선 정보원 및 특파원의 활동도 있었겠지만, 히로시마 대본영에 도달한 일본군의 보고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히로시마에 파견된 히로시마 특파원의 활동이 활발했거나 대본영이 공개한 내용을 특파원 혹은 히로시마신보사가 모지신보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94년 11월 2일자 『每日新聞』에, 11월 이전의 동학당은 사리를 이해하는 자가 있었지만 이후의 동학당은 이전 동학당과는 달리 “가짜 동학당”으로 오직 술과 먹을 것을 탐한다는 내용이 있어 11월 이전의 동학당과 그 성격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7)</sup>

1894년 12월 21일자 『時事新報』에 도비쓰카 류(飛塚龍)라는 자가 게재한 「現在の朝鮮(3) 東學黨」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동학당은 혹은 일종의 의민(義民)이고 혹은 일종의 비일본당이고 혹은 일종의 초적이다. 사용하는 무기는 화승총, 칼, 낫, 농기구 등으로 초적으로도 의민으로도 부르기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조선 정치계가 부패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취할 바가 있으며, 그들이 녹슨 낫이나 폐기된 총을 들고 일본군과 대항하는 것을 보면 용맹스럽고, 배덕 무치한 관리를 응징하려고 하는 것은 의(義)이다. 그들은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들의 폭동은 대체로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을 생각하여 일으킨 것으로 행하는 바는 나쁘지만 그 심정은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들의 화승총은 무라다(村田)총에 미치지 못하여 총기 싸움은 일본군 1이 동학당 100에 필적한다. 지금의 동학당은 조선정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정부를 적으로 삼고 있다.<sup>98)</sup>(밑선은 필자)

이 기사를 보면 도비쓰카 류는 갖추고 있는 무기를 보면 농민군을 의민이나 초적으로도 볼 수 없지만 탐관오리들을 응징하려한 것은 “의”에 해당한다고 평하면서, 농민군은 비일본당으로 조선정부가 아닌 일본정부를 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군 1이 동학당 100에 필적한다”는 내용은 농민군의 무기가 일본군에 비해 어느 정도 뒤떨어진 것인가를 충분히 가늠하게 해 준다. 그는 “동학당”, “동도(東徒)”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 의민이란 일반적인

96) 「全琿準死刑宣告の實況」, 『門司新報』, 1895. 5. 12.

97) 朝鮮內亂集報「東學黨の決意」, 『門司新報』, 1894. 6. 9.

98) 飛塚龍, 「現在の朝鮮(3) 東學黨」, 『時事新報』, 1894. 12. 21. 飛塚龍가 인천에 처음 도착한 것은 1894년 11월 7일로 중국 금주로 건너갔다가 12월 8일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로 에도(江戸)시대에 민중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봉기(百姓一擧)를 주도하여 권력과 다툼 사람들을 칭한다.<sup>99)</sup>

충청·황해도 지역의 농민군을 탄압했던 스즈키(鈴木) 소위와 나카야마(中山) 중위는 농민군을 “비도”, “둥도”, “적도”, “동학당”으로 불렀다. 특히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의 황해도 농민군에 대해서는 “제1종 진정한 동학당”, “제2종 일시적인 동학당”, “제3종 가짜 동학당”으로 구분하고, 제1종의 진정한 동학당이란 일파의 종교를 신봉하는 무리로 경문을 통하여 종교를 믿으면 그로 인해 백 가지 병이 고쳐지고, 재화도 모이고, 백 가지 재난이 사라지며, 수명이 늘어난다고 믿는 자들을 칭하였다. 제2종의 동학당이란 동학의 교지를 믿는 자들은 아니지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학당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제3종에 속하는 비도, 즉 가짜 동학당은 청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혐오하는 자, 도둑, 기타 범죄자, 무직자 등으로 생계에 궁하며 약간의 금전 손해에도 분노하며 지방관을 원망하는 자들로 사금채집자, 광부 등을 칭하였다.<sup>100)</sup>

이상, 살펴보았듯이 일본군과 조선에서 정보, 첩보 활동을 한 일본인은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농민군을 대체적으로 진짜 동학농민군, 가짜 동학농민군, 유사 동학농민군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맺는 글

일반적으로 일본 측 자료에 나타난 동학농민군과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표현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초기 몇 가지 사료와 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일본 측 연구에 제1차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및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단지 청일전쟁의 도화선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청일전쟁이 일본정부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을 통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본 군부, 일본정부의 책략에 의한 것이다.

본고는 조선을 왕래하는 선박이 많았던 오사카와 모지지역의 신문인 오사카마이니치신문과 모지신보를 대상으로 동학농민전쟁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의 관련 기사는 동학농민군 자체와 일본 측 입장에서 바라보는 對 동학농민전쟁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1차 동학농민전쟁 목적이 탐학한 지방관과 민씨

99) 『日本史辭典』, 角川書店, 1996 ; 井上光貞 외 2인, 『新詳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1990, 206쪽.

100) 「동학당정토약기」,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894년 농민운동 편』 1, 여강출판사, 1986, 459~532쪽.

일족을 제거하고 왜양(倭洋)을 축출하는 데 있었음을 명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다. 농민군의 전주성 해산 이후 즉 일본군이 조선에 파견된 이후에는 조선에서의 일본 주도권 장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의 농민군을 민파(民派), 리파(吏派), 진짜 동학파로 구분하였고, 3파 가운데 민파를 농민봉기를 일으킨 원동자로 인식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기사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농민군의 전주성 해산 이후, 즉 일본군의 청일개전 준비를 위한 조선 병참화 시기에도 전라도 지역 농민군의 재봉기설 기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 특히 경상도 지역 관련 기사는 일본군의 군용전선 및 병참부와 연관되어 있으며, 비합법적인 군용전선 설치 보호를 위한 일본군 병참부 설치와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진압설 등장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에 대해서는 모지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일본군과의 접촉이 빨랐던 -경부간 군용전선 및 병참부 설치, 도로 수선, 일본군의 부산 상륙 등과 관련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농민군의 반일·항일 움직임이 일찍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8월 28일 함창현 농민군의 반일 움직임을 시작으로, 9월 24일 낙동병참부 수비대에서 공병대를 파견하여 경상도 용궁지역에서 발생한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으로 전개되어 1895년 2월 중순경까지 지속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당시 일본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1895년 5월 말 경으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점은 지니고 있다. 이상은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 명확하게 농민군의 반일·항일투쟁이었고,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1895년 5월 12일자 모지신문에 전봉준의 사형장소가 이점진(二點鎭) 좌감옥(左監獄)으로 밝혀진 것은, 전봉준의 사형 장소와 그의 시신 처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태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95년 6월 9일자 기사에 실린 권설재판소의 전봉준에 대한 사형선고 상황 역시 흥미롭다.

한편 모지신문 기사를 통하여 당시 일본의 각 신문사의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집한 정보를 여러 신문사에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조 일본인 정보·첩보원은 일본상인을 찾아가 수집한 정보를 ‘어느 곳’의 ‘누구’에게 전달해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수집된 정보가 대체적으로 전보를 통하여 일본에 전달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어느 곳’은 일본으로 전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국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한성, 인천, 부산, 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누구’란 어느 신문사의 특파원이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재조 일본영사관과 일본군에게 전달되었을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에는 주로 재조 일본인 정보·첩보원과 오사카항과 모지항을 출입하는 수십 척의 기선과 수백 명의 승객 및 군인, 군속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본군이 조선에 파견된 이후에는 한성, 인천, 부산에 특파원을 파견하였고, 대본영이 설치되어 있던 히로시마에도 국내 특파원을 파견하여 대본영에 도달한 일본군 보고서 내용을 수집하였던 것이

다. 혹은 히로시마 신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탄대로 모지신보사나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가 상대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정보수집 방법은 타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보인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에는 대본영이 있었던 히로시마에서 수집한 정보가 많으며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내용이 방대하다.





Donghak Peasant Revolution Symposium

학 | 술 | 대 | 회

동학농민혁명  
성격규명과 기념사업

주관 전북사학회

공동주최 정읍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본 자료집(발표문)은 2011년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전국학술대회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백산대회’의 존재와 역사적 의의



# ‘백산대회’의 존재와 역사적 의의

박 준 성 | 역사학연구소

- 
1. 백산과 ‘백산대회’
  2. ‘동학농민혁명연구’에서 ‘백산대회’의 위치
  3. ‘백산대회’의 존재와 의의
- 

## 1. 백산과 ‘백산대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한 제1차 농민전쟁, 전주성을 점령한 뒤 농민자치 시기인 집강소시기, 9월부터 다시 전개된 2차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며 1895년까지 이어졌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역사의 사건이 전개된 시간과 함께 공간 또한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되는 요소이다.

지금은 전라도 부안에 속하는 백산의 높이는 47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부안 고부 태인 금구 원평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 위에 올라서면 배들평야와 김제 만경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누군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일 년 내내 허리가 휘어지도록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 저 땅은 뉘 땅인가 저 곳에서 난 벼는 누가 빼앗아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며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조선시대 지주제의 실상을 실감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백산 자체가 선동의 공간이었고, 가장 뛰어난 역사의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36년에 쓰여진 ‘동학당의 전란’에 인용된 노인들이 말을 보면 백산에는 1894년 당시 공미(貢米)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던 듯하다. 농민군이 백산에 결진할 수 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옛부터 백산은 부안 해안에 있는 공미의 집합지였다. 또 당시 여기에 약 4천 석의 쌀이 쌓여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전봉준-인용자) 먼저 백산을 습격하여 그 창고를 열어 천하이 기민에게 쌀을 배급하였다. 이 사건은 동학군의 기세를 앙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함성은 백산을 진동시켰고, 이에 민중과 동학당은 하나가 되어 고부의 관군과 싸우기 위해 백산에서 고부로 향하여 진군하였다(局池謙讓, 田內蘇山, 1936, 『근대조선이면서』,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 (1)』 수록).

백산은 무엇보다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고부농민봉기 시기에 농민군 주력부대가 진을 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1차 농민전쟁을 모색했던 곳이고, 1차 농민전쟁에서 ‘백산대회’가 열렸던 공간이다.

구체적으로 ‘백산대회’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오지영의 『동학사』이다. 백산에서 동학농민군의 조직을 편제하고 격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백산에서 편제된 농민군 조직은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 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 정백현이었다.

古阜邑에서 留連한 지 3일 후에 大軍을 모라 古阜 白山에 陳을 옮겨치고 다시 軍을 組成할새 衆望에 依하여 前봉준이 대장이 되고, 손화중, 김개남이 總관령이 되고, 김덕명, 오시영이 總참모가 되고 최경선이 영솔장이 되고, 송희옥, 정백현 등이 비서가 되었었고, 대장기폭에는 輔國安民 四字를 大書로 特書하였고, 이에 再度의 檄文을 지어 死방에 전하였었다.

이때 만들어진 격문에는 농민군의 투쟁의 목적과 지향 주체와 동맹세력이 밝혀져 있다.

우리가 義를 들어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 건지고 國家를 磐石의 위에다 두고 함이다. 안으로는 貪虐한 官리의 머리를 버히고 빗그로는 橫暴한 強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丞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冤恨이 깊은 者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이 時刻으로 일어서라. 萬一期會를 이르면 後悔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甲午 正月 일 湖南倡義大將所 在白山

이렇게 농민군 조직이 편제되고, 격문이 발표되자 호남 일대는 물론이요 전조선 강산이 고부 백산을 중심으로 흔들흔들하였다고 ‘백산대회’를 강조하였다. 이때 백산에는 대장 전봉준

과 기타 장령 격으로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강경중, 송경찬, 고영숙, 김봉년, 김사엽, 김봉득, 유한필, 손여옥, 차치구 등을 중심으로 기타 고창, 무장, 영광, 고부, 정읍, 태인, 금구, 김제, 옥구, 만경, 무안, 임실, 남원,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부안, 장흥, 담양, 창평, 장성, 능주, 광주, 나주, 보성, 영암, 강진, 홍양, 해남, 곡성, 구례, 순천, 전주의 농민군들이 결집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백산은 “서면 백산이오 앞으면 죽산”이라는 비결이 맞을 정도로 죽창을 들고 물려든 농민군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농민군 조직이 편제되고 격문이 발표되었다는 백산대회를 알려주는 자료는 오지영의 『동학사』 뿐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백산대회’는 모두 오지영의 『동학사』를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다.

『동학사』와 함께 ‘백산대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가 정교의 『대한계년사』이다. 정교는 이용태의 탐학 뒤 백성들이 전봉준을 우두머리로 추대하고 3월 25일에 동학의 무리 모두 5~6만 명과 함께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손에는 누런 깃발을 들고, 따라서 4개항의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였다.

하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둘, 충.효를 함께 갖추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셋,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 없애고, 성인의 도리를 맑고 깨끗이 한다.

넷,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군세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모두 없애 버린다. 기강을 크게 떨치고 명분을 바르게 세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

백산대회의 성격, 지향과 함께 3월 25일 백산대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 2. ‘동학농민혁명연구’에서 ‘백산대회’의 위치

1970년대나 1980년대 초까지는 백산대회는 이용태의 탐학에 맞서 3월 21일 백산에서 다시 기포한 뒤 농민군조직을 편제하고 3월 25일 4대 강령을, 3월 27일 격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았다(김광래, 「전봉준의 고부 백산 기병」, 『나라사랑』, 녹두장군 전봉준 특집호, 1974).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중요한 초석을 놓은 최현식의 『갑오동학농민혁명사』에서도 “1984년 3월 21일 교주 최시형의 탄신일을 기하여 동학교도와 다수의 농민들을 고부 백산에 모이게 하니

3월 봉기의 백산기포이다.”고 하였다.

1985년 신용하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한국학보』 40)에서 1894년 3월 20일에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의 최초의 봉기 선언문’인 무장창의문이 발표되면서 무장기포가 일어났고, ‘백산대회’는 그 이후의 사실임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3월 25일경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했고, 『대한계년사』에 있는 ‘농민군 4대 명의’를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농민군 12개조 기율’도 이때 공포한 것으로 보았다. 격문이 발표된 날은 3월 27일이라고 하였다.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한 날이나, 격문을 발효한 날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1989년 이이화의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역사비평)에서도 3월 25일 이후 고창 금구 등지에서 농민군들이 백산으로 속속 모여들었는데, 손화중포에 속하는 접주들이 거느린 3천5백 명, 김개남포에 속하는 접주들이 거느린 1천3백 명, 김덕명포에 속하는 접주들이 거느린 2천 명이 모여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고 하였다.

1991년 정창열의 『갑오농민전쟁연구』도 3월 25일 농민군 조직 체계를 갖추고 4개 명의를 발표한 것으로 보았다. 오지영이 동학사에서 농민군이 ‘고부읍에 유진한 지 3일 후에 대군을 몰아 고부 백산에 진을 옮겨치고’라고 한 유진이 3월 23일이므로 3일 후는 3월 25일이며, 정교가 3월 25일 4대 명의를 내걸었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격문을 발표한 날도 3월 25일이며 명의나 격문 모두 전봉준이 쓴 것으로 보았다.

1992년 우윤의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은 3월 25일 백산에 설치된 본진에 집결된 농민군 수를 『동학사』를 근거로 8,000명으로 보았다. 부서별 책임자를 정하고 격문을 띄우고, 전봉준이 ‘4대 행동강령’을 선포하였다고 하였다.

전북일보 팀이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발굴하면서 쓴 『동학농민혁명 100년』에서는 무장기포가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백산기포’나 ‘백산봉기’ 대신 ‘백산결진’이나 ‘백산결집’, ‘백산대회’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기하고, ‘백산결진’ 날짜는 모든 기록들이 동의하므로 3월 25일 거사일로 보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1998년에 나온 신순철, 이진영의 『동학농민혁명사』, 2005년, 김양식의 『새야새야 파랑새야』, 2008년에 나온 조광환의 『소통하는 우리역사』에서도 백산에서 조직편제가 이루어졌고, 격문과 4대 명의가 발표된 것으로 보았다. 2008년에 나온 조경달의 『이단의 민중반란』에서 백산 대회는 언급하고 있으나 ‘격문’의 존재는 거론하지 않았다.



### 3. '백산대회'의 존재와 의의

'백산대회'에서 농민군 조직이 편제되고 격문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는 『동학사』뿐이다. 과연 '백산대회'는 존재했던 사실일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백산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동학사』가 출간되기 이전에 김상기는 193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동학과 동학란」에서 백산을 주목했다.

민중의 동란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어 그해 3, 4월경에는 전국이 소연하였으며 당시 동도대장 전봉준에게 통솔된 동학군의 중 심부대는 [다보하시(田保橋潔) 씨 설에 의하면 약 4천 명의 도중이라 함] 의연히 백산에 주둔하여 무장의 손화중, 남원의 김개남, 태인의 최경화 등과 의각의 기세를 취하여 한편으로는 도중을 조련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농민군 주요 지도자들이 백산에 결집하였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1894년 당시의 자료를 보면 무장에서 고부에 이를 때까지 농민군 수에 비해 '백산대회' 이후 농민군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3월 16일 무장현 동음치면에 다른 읍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100여 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 며칠 사이에 밤낮으로 사방에서 몰려와 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해당 촌의 앞에 있는 평야에 모여 있습니다."고 한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무렵 부안 줄포에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된 창과 죽창을 잡고 도착하여, 점심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달라고 하고,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줄포의 사정에 모였다. 깃발의 구호는 인, 의, 예, 지, 신을 쓰거나 혹은 순천, 광주라고 썼다. 같은 날 저녁 7~9시 무렵 동학도 3,000여 명이 창과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고부 읍내로 난입하였다. 3월 25일 고부지역의 농민군의 수는 수천 명, 혹은 3천 명이라고 하며, 2천 명에서 3천 명이 된다고 파악되고 있다(『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

이렇게 3월 25일 무렵까지 3천여 명 정도 되던 농민군이 3월 29일에는 6,000~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3월 29일 동학도 6,000~7,000명이 3월 29일 술시(戌時)에 태인현에 도착하여 곧바로 머물러 갔고, 4월 초 1일 오시(午時)에 금구현 원평점에 도착하여, 그 마을 앞 냇가에 진을 치고 곧바로 머물러 잤다고 한다(『수록』 4월 8일 계초, 영문에서 보낸 기별). 한편 4월 초 2일 부안현감의 보고에 따르면 고부군 '백산여당'이 본 읍에 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충동하여, 부안현 하동면 분토동에 모이게 하였는데, 인원이 500명쯤 되었고, 각자 죽창

을 들고 ‘보국안민’이라는 붉은 기를 걸고 있었다. 또 작은 깃발에는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흥덕, 고창 등의 읍호를 썼다(『수록』 4월 초 5일). 부안에 모인 무리들이 ‘백산여당’이었다면 태인 쪽으로 간 6,000~7,000천명은 백산의 본대가 될 것이다. 본대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군은 무장에서 출발하여 고부를 점령한 전봉준, 손화중 중심의 농민군 외에 무장이 아니라 곧바로 백산으로 와서 결집한 인원이 거의 비슷한 숫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들은 백산대회 이후 태인에 이르는 며칠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기보다, 무장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백산으로 와서 합류한 인원이라고 할 것이다. 백산에서 본대와 함께 태인으로 향하지 않고 부안 쪽으로 갔던 ‘백산여당’, 백산 주변에 일부 남아 있었을 농민군까지 합치면 백산대회에 모인 농민군수는 7,000~8,000여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동학사』에서 손화중포의 두령들이 영솔한 고창 1,500명, 무장 1,300명, 흥덕 700명, 정읍 1,200명 합 4,700명 김개남포의 태인 1,300명, 김덕명포의 태인·김제·금구 2,000명 도합 8천 명에 버금가는 수이다. 이 인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장기포’부터 ‘백산대회’ 이전 고부관아 점령까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백산에서 농민군 조직을 편제할 때 손화중과 함께 총관령이 된 김개남은 무장기포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전라도 태인현의 재지사족』, 1996, 74~78쪽). 무장기포 때는 참가하지 않았던 김개남 세력이 백산에 결집함으로써 1·차 농민전쟁의 농민군 연합부대의 조직체계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장기포에서 농민군의 지도부의 서열을 1. 전봉준, 2. 손화중, 3 김개남 순으로 정하고 전봉준이 대장이 되어 전체 농민군을 지휘하도록 하였다는 신용하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다.

농민군 주력부대는 3월 26일 유시(酉時 : 오후 5시~7시) 무렵 고부의 백산 예동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태인현 용산면 화호 신덕정리로 옮겨 주둔하였는데, 세력이 매우 커서 방어할 수 없었다고 한다(『수록』 4월 초 8일 계초). 일시에 산을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백산에 모였던 농민군 주력부대가 백산을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용산면 화호는 백산에서 동진강을 건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들은 3월 29일 태인현 동현과 내아를 점령하였던 6,0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농민군 주력이었다.

자료와 정황으로 보아 ‘백산대회’는 실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산으로 바로 온 농민군이 무장에서 출발한 농민군 숫자보다 적지 않고, 백산에 모인 농민군이 군대체제의 한 부대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농민군의 연합부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조직체계를 갖추고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백산에 새롭게 조직을 편제하고 규율을 마련하여 전체 농민군에게 선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음은 『동학사』에만 실려 있는 격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창의문들에 비해 지나치리 만치 현대적이고 사회과학적이라서 문제다. 『동학사』는 1868년 몰락 양반 출신으로 태어나 1894년 농민전쟁 때 익산 대접주 김방서의 휘하에서 중견 간부로 활약한 오지영이 쓴 책이

다. 그의 형인 오시영, 하영도 참가했다. 『동학사』의 초고본은 만주로 이주했던 1926년 이후에 썼고, 1936년 10월 귀국한 뒤 1940년에 초고본을 수정하여 간행본을 출판했다. 만주에서 국내로 돌아온 오지영은 『동학사』를 간행하기 전에 3년 동안 전국의 농민전쟁 역사 현장을 찾아 답사를 했고, 승정원일기를 열람 대조했다고 한다. 오지영이 천도교 내의 반대파의 주장을 반박하고 천도교연합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려고 『동학사』를 쓰려고 했다 하더라도, 『동학사』를 지어낸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백산대회'의 격문은 그때까지 나왔던 농민군의 목표와 지향, 주체와 동맹 세력을 오지영이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산대회는 무장에서 출발한 농민군뿐 아니라 그 배 이상 되는 농민들이 참가하여 농민군 연합부대를 확대 재편하고 조직체계를 갖추어 본격적인 농민전쟁의 전열을 갖추었다는 의의가 있다. 1894년 농민전쟁을 전봉준 장군 중심으로 이해하는 틀에서 벗어나려면 특히 백산대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산대회에서는 곳곳에서 모인 농민군들 앞에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목적과 의지를 천명하였을 것이며, 대의적 명분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명의를 규율을 발표하였을 것이다.

